

친환경농식품의 생산·소비실태와 시장전망

김 창 길 선 임 연 구 위 원
정 학 균 부 연 구 위 원
문 동 현 연 구 원

연구 담당

김창길	선임연구위원	연구 총괄, 생산 및 소비분석 종합
정학균	부 연구 위 원	시장전망 및 소비실태 분석
문동현	연 구 원	생산실태 및 해외사례 분석

머 리 말

정부가 DDA·FTA 등에 따른 농산물 시장개방에 대응하여 국내 농산물의 질적 경쟁력 제고를 위해 친환경농업을 적극 육성함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생산은 2000~2011년 사이 연평균 40% 이상 급격히 증가해 왔다. 친환경농산물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농가들은 판로확대와 가격차별화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편, 농산물의 안전성과 건강을 추구하는 웰빙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가족 건강을 위해 친환경농식품을 찾는 소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소비자는 소비의향은 높은 반면, 가격이 지나치게 높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저렴하면서도 신뢰성이 높은 친환경농산물을 선호하고 있다.

대내외적 여건이 빠르게 변하는 상황에서 최근의 국내 친환경농식품의 생산·소비실태와 국내 친환경농산물의 시장규모 및 전망 정보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 연구는 최근의 친환경농식품의 생산·소비실태를 분석하고, 대내외적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시장규모를 전망함으로써 정책담당자와 친환경농식품 생산·유통·가공업체 종사자들에게 의사결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수시과제로 추진되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친환경농산물 인증실적을 바탕으로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실태를 분석하였고, 수도권 거주 20대 이상 주부들을 대상으로 소비실태를 조사·분석하였다. 또, 2020년까지의 시장규모를 전망하였으며, 세계의 유기농업 실천현황을 소개하였다. 아무쪼록 이 연구가 친환경농식품 발전전략을 도출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바쁜 가운데에도 본 연구의 수행에 귀중한 자문을 해 주었던 농림수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이상준 사무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김동현 주무관, 흙살림 이태근 대표에게 감사드린다.

2012. 2.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이 동 필

요 약

- 이 연구는 최근의 친환경농식품의 생산 및 소비실태를 분석하고, 대내외적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시장규모를 전망함으로써 정책담당자와 친환경식품 생산, 유통, 가공업체 종사자들에게 의사결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됨.
- 정부가 친환경농업을 미래농업의 성장동력으로 적극 육성함에 따라 친환경 농산물 생산은 2000년대 초반까지 매년 약 120%의 급증세를 보였고, 최근 5년(2007~2011년) 동안에는 성장세가 크게 둔화되었으나 매년 12%씩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2011년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은 유기와 무농약이 전년보다 각각 24.5%, 0.8% 증가하였지만 저농약이 30.8% 감소함에 따라 전체적으로는 전년 대비 11.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2011년 기준 친환경농산물 인증단계별 출하량을 보면, 유기 190,912톤(10.5%), 무농약 915,823톤(50.3%), 저농약 712,493톤(39.2%)으로 무농약이 처음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품목류별로는 곡류 404,825톤(22.3%), 과실류 433,346톤(23.8%), 채소류 701,894톤(38.6%) 등으로 채소류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전체 경지면적 중 친환경농업 인증실적이 차지하는 비중을 도별로 살펴보면, 전남 28.9%, 경남 7.8%, 경북 7.3% 등인 데 반해 경기와 제주는 각각 4.3%와 4.2%로 상대적으로 낮음. 지방자치단체의 친환경농업육성 전략에 따라 지자체간에 상당한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소비자들의 친환경농식품에 대한 소비의향을 조사한 결과 구입 경험자와 비 경험자 모두 향후 소비를 증가시킬 것이라고 응답하였음. 친환경농산물은

구매경험자의 41.1%, 비구매경험자의 74.3%가, 친환경농가공식품의 경우는 구매경험자의 52.3%, 비구매경험자의 77.1%가 소비를 늘릴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소비자들의 필요를 적절하게 충족시킬 경우 잠재적 소비량이 상당히 많음을 시사하고 있음.

- 친환경농식품 소비촉진을 위한 개선사항으로 친환경농산물과 친환경농가공식품 모두 ‘가격인하’를 가장 우선순위로 꼽았고, 적당한 구입처, 인증제도의 개선 등을 그 다음으로 꼽았음. 구입경험자의 유기농산물에 대한 가격 프리미엄은 51~79%, 적정 프리미엄은 37~52%로 나타났고, 유기가공식품의 가격 프리미엄은 100%, 적정 프리미엄은 50%로 나타나 시장에서 거래되는 친환경농식품의 가격이 소비자의 지불의사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됨. 유기농산물은 약 20% 정도, 유기가공식품은 약 50% 정도 가격 프리미엄을 떨어뜨린다면 소비를 확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구입비경험자의 경우 친환경농산물 29%, 유기가공식품 60% 정도 가격 프리미엄을 떨어뜨린다면 구입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친환경농식품 구입장소는 친환경농산물과 가공식품 모두 대형할인점이 4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구입장소를 선택하는 데 있어 소비자들은 구입의 편리성을 가장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남. 마케팅 전략이 편리성을 추구하는 소비자 성향을 반영하여 바뀌어야 함을 시사함.
- 가족 건강에 대한 기여도를 보면 친환경농산물의 경우 72.0%, 친환경농가공식품의 경우 70.7%로 높게 나타났음. 순위형로짓분석 결과에서 건강증진도가 높다고 인식할수록 향후 소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친환경농식품의 가족건강 증진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부각시켜 홍보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 소비자들은 유기가공식품 구매 시 83.8%가 인증마크를 확인하고, 64.4%가

식품첨가물을 확인한다고 응답하여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매우 중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따라서 인증기관의 책임성과 인증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인증기관의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인증기관에 대한 모니터링을 내실있게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 2011년 국내 친환경농산물 시장규모는 전년보다 3.8% 감소한 3조 2,602천억 원으로 전망됨. 시장규모가 감소한 이유는 저농약인증제도의 신규인증 중단에 따른 저농약인증 재배면적의 감소와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의 강화로 생산량이 2010년에 비해 다소 감소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됨.
- 2012년의 친환경농산물 시장규모는 2011년 대비 13% 정도 증가한 3조 6,800억 원으로 전망됨. 저농약농산물은 저농약인증 제도가 완전히 폐지되는 2015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나 유기와 무농약 농산물의 꾸준한 증가로 시장규모는 2013년 3조 9,845억 원, 2015년 4조 8,329억 원으로 늘어나며, 2020년에는 전체 농산물 시장 거래액의 약 20%인 6조 9,000억 원이 될 것으로 전망됨.
- 세계 유기농산물 생산은 2009년 기준 약 160개국에서 약 7,920만ha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유기농식품 및 음료 시장규모는 약 70조 원으로 추정됨. 2000년대 유기농식품은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매년 20% 내외의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였으나 2009년은 글로벌 경제위기의 여파로 한자리수의 성장에 그침.
- 중국은 정부의 적극적인 녹색식품 육성전략에 힘입어 녹색식품 인증면적이 2000년 333만ha에서 2006년 1,000만ha를 넘어섰고 2007년에는 1,725만ha로 매우 확대되었음. 이후 2009년과 2010년에는 다소 감소하였음. 중국의 유기농업은 내수보다는 수출지향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주요 수출국은 EU, 미국, 일본 등 20여개 국가임.

- 일본의 유기농산물 인증물량은 2010년 기준으로 국내산보다 국외산이 15.4배나 많음. 유기농산물 가공식품 인증물량의 경우 해외인증이 국내인증보다 1.3배로 많으며, 해외인증의 경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유기농식품의 해외의존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저농약인증 폐지라는 제도적 변화로 저농약 농산물에 대한 인증실적이 단기적으로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따라서 저농약 인증농가의 신속한 유기와 무농약 인증 전환 및 유기농업 실천농가 육성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
- 친환경농업 인증실적을 보면 지자체별로 친환경농업육성 전략에 따라 상당한 격차가 나타나므로 지역단위에서 친환경농업이 확산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친환경농업 육성정책이 중요한 관건임. 더 나아가 지역적 특색에 맞는 품목과 브랜드 발굴을 통한 지역별로 차별화된 친환경농업 육성 전략이 마련되어야 함.
- 일본의 해외인증 급증과 유럽 선진국의 유기농산물 공급부족현상은 우리나라가 유기농산물을 수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임. 특히 일본은 해외인증 유기농산물과 가공품의 해외의존 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 특유의 고품질 유기농산물 및 가공품을 개발·육성하여 일본과 유럽, 미국에 수출할 수 있는 공세적인 전략 개발이 필요함.
- 친환경농식품 소비촉진을 위해 가격 프리미엄을 낮출 수 있는 생산 및 유통부문의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며, 친환경농식품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시킬 수 있도록 철저한 인증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함. 또한 가공식품의 경우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품목을 다양화시킬 필요가 있음. 친환경농산물 판로확대를 위해 학교급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며, 친환경농식품의 건강과의 관계성 및 환경영향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음.

ABSTRACT

Production and Consumption Status and Market Prospects for Environment-Friendly Agri-foods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recent production and consumption patterns of environment-friendly agri-foods, and to present the prospect for expansion of market volume in consideration of changes in domestic and global circumstances.

The introduction of this report describes the need and goal of this study, a review of previous studies, and the scope of this study. Chapter 2 describes Korea's current production of environment-friendly agri-foods, including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al produce, certified organic processed food, and certified imported organic agricultural products. Chapter 3 describes the purchasing and consumption patterns of environment-friendly agri-foods, which includes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al produce and environment-friendly processed food. Chapter 4 presents the market volume and prospects of Korea's environment-friendly agri-foods. Chapter 5 presents the current production and market volume of global organic agriculture. Chapter 6 presents the summary and conclusion.

As the Korean government positively supported environment-friendly farming as a growth engine of future agriculture, production of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showed a sharp annual increase of 120% in early 2000s, but the growth rate has significantly slowed down for the last five years (2007~2011). Despite such a slowdown, however, it still continued to grow by approximately 12% every year. In 2011, certified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increased by 24.5% from the previous year and both organic and chemical-free produce increased by 0.8%. As the production of low-chemical produce decreased by 30.8%, the overall production of environment-friendly products decreased by 11.0% from 2010.

As of 2011, the market volume of certified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by farming method was 190,912 tons (10.5%) for organically cultivated products, 915,823 tons (50.3%) for products cultivated without use of agricultural chemicals, and 712,493 tons (39.2%) for products produced with low-agricultural chemical agricultural inputs. Non-chemical products clearly make up the largest proportion, which is further divided into

404,825 tons (22.3%) for grains, 433,346 tons (23.8%) for fruits, and 701,894 tons (38.6%) for vegetables which had the largest share.

A consumer survey on environment-friendly agri-foods revealed that more people are willing to buy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41.1% of those who have purchased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al produce previously said that they would buy more such fresh products in the future and 74.3% of those who said they have never bought the products said that they will buy them. In the case of environment-friendly processed agri-foods, 52.3% of those who have purchased them before said they will buy more such products and 77.1% of people who have never bought them before said they will buy such products.

The first thing that should be improved for promoting consumption of environment-friendly agri-foods is a means of 'price reduction' of both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and environment-friendly processed agri-foods, followed by access to reasonable shops to buy such products and improvement of the certification system.' It was revealed that price premiums of organic agricultural products for people who had purchased them were 51~79%, and optimum premiums were 37~52%. The price premium of organic processed food was 2.0 times of conventional products, and the optimum premium was 1.5 times of them. It is assumed that it would be possible to expand the consumption if the price premium is lowered by approximately 20% for organic agricultural products, and by approximately 50% for organic processed food. Meanwhile, it is assumed that people who have not purchased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al produce and organic processed food would purchase them if the price premium is lowered by approximately 29% for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al produce, and approximately 60% for organic processed food. With respect to the shops for buying environment-friendly agri-foods, large discount stores accounted for the greatest proportion with 40% for both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and organic processed food.

With respect to contribution to family's health,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al produce accounted for 72.0%, and environment-friendly processed agri-foods accounted for 70.7%. An ordered logit analysis revealed that future consumption would increase if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are recognized to be contributing much to family's health. This suggests that it is necessary to bring out and publicize the positive effect of environment-friendly agri-foods for promotion of family's health.

It is estimated that Korea's market volume of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in 2011 decreased by 3.8% from the previous year to 3.26 trillion won. The reason for the reduced market volume is presumed to be due to a decrease in the cultivation areas certified for low-chemical use and due to the implementation of a more strict certification system for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In 2012, it is predicted that the market volume of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will increase by approximately 13% from 2011 to 3.68 trillion won. The prediction for low-chemical agricultural products is as follows: they will continue to decrease by 2015, but a steady increases of organic and chemical-free agricultural products will contribute to increasing the market volume to 3.98 trillion won in 2013 and to 4.83 trillion won in 2015; and the market volume will increase to 6.9 trillion won in 2020 to account for 20% of the entire transactions of agricultural products.

It is predicted that the volume of certified low-chemical agricultural products will sharply decrease in a short period of time due to the abolition of the low-chemical certification system.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velop positive policy programs to lead the farmers of low-chemical cultivation to organic and chemical-free cultivation.

It is also necessary to take proper measures in the fields of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environment-friendly agri-foods to lower price premiums and promote their consumption, and build up an comprehensive certification system for reliable environment-friendly agri-foods. Also, it is necessary to diversify the items of organic processed food to provide a wider range of selection choices to consumers. Positively utilizing the school catering system as a means for expanding the route for selling environment-friendly agricultural products, and to positively publicize the effect of environment-friendly agri-foods on healthy living and the environment can also contribute towards these goals.

Researchers: Chang-Gil Kim, Hak-Kyun Jeong, and Dong-Hyun Moon

Research period: 2011. 12. - 2012. 2.

E-mail address: changgil@krei.re.kr

차 례

제1장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
2.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차별성 3
3. 주요 연구내용과 연구방법·범위 6

제2장 국내 친환경농산물 생산현황

1. 국내 친환경농산물 인증실적 10
2. 국내 유기가공품 인증 실적 및 수입현황 22
3. 국내 수입 유기농산물의 인증 실적 25

제3장 친환경농식품의 구매패턴과 소비성향

1. 친환경농산물 소비실태 28
2. 친환경농가공식품 소비실태 46
3. 설문조사의 시사점 58

제4장 국내 친환경농식품의 시장규모 및 전망

1. 친환경농산물 거래처 및 시장규모 61
2. 친환경농산물 시장전망 63
3. 유기가공식품 시장전망 66

제5장 세계의 유기농업 실천현황 및 시장규모

1. 세계 유기농업 생산현황 68
2. 세계 유기농식품 시장현황 91

제6장 요약 및 결론

1. 요약	100
2. 정책적 함의	103
부록 1: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 현황	108
부록 2: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 현황	112
부록 3: 친환경농산물 소비자조사표	115
부록 4: 친환경농가공식품 소비자조사표	131
참고문헌	148

표 차 례

제2장

표 2- 1.	연도별 친환경농산물 인증실적 변화추이	11
표 2- 2.	품목별·인증단계별 친환경농산물 출하량(2011)	15
표 2- 3.	국가기관과 민간인증기관의 연도별 친환경농산물 인증실적 ...	16
표 2- 4.	인증유형 및 인증단계별 친환경농산물 인증실적(2011)	17
표 2- 5.	시도별 친환경농산물 인증실적(2011)	20
표 2- 6.	유기농식품 시장 현황(2010)	22
표 2- 7.	국내 유기가공품 품질인증 실적	23
표 2- 8.	유기농식품의 최근 5년간 수입현황	24
표 2- 9.	국가별 유기농식품의 수입량(중량순)	24
표 2-10.	국가별 유기농식품의 수입액(금액순)	25
표 2-11.	국가별 유기농산물 수입인증 현황(2005-2010)	26

제3장

표 3- 1.	친환경농산물 소비자의 사회·경제적 특성	29
표 3- 2.	구입 장소별 1순위 선택의 이유	32
표 3- 3.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시장구입가격 및 적정가격	34
표 3- 4.	안전성 신뢰수준별 건강증진 기여도	35
표 3- 5.	구입빈도별 건강증진 기여도	36
표 3- 6.	단체회원여부별 건강증진도	36
표 3- 7.	소비지속여부별 건강증진도	37
표 3- 8.	아토피유무별 건강증진도	37
표 3- 9.	단체회원여부별 건강증진도(아토피 있는 소비자)	38
표 3-10.	소득수준별 소비의향	39

표 3-11.	질병유무별 소비의향	40
표 3-12.	아토피 유무별 소비의향	40
표 3-13.	고혈압 유무별 소비의향	41
표 3-14.	건강증진도별 소비의향	41
표 3-15.	설명변수의 기초통계량	42
표 3-16.	소비의향요인 추정결과	43
표 3-17.	친환경농가공식품 소비자의 사회·경제적 특성	47
표 3-18.	품목별 한달 평균 구매 횟수	48
표 3-19.	친환경농가공식품 구입 시 품질 속성별 고려 정도	51
표 3-20.	국산 유기가공식품 품목별 향후 지불의사	54
표 3-21.	향후 구입확대 의사 큰 품목	55
표 3-22.	소득수준별 소비의향	56
표 3-23.	건강증진도별 소비의향	57

제4장

표 4- 1.	친환경인증 농산물의 시장 유통규모(2011)	62
표 4- 2.	품목류별 친환경농산물 시장규모 전망	63
표 4- 3.	인증단계별 친환경농산물 시장규모 전망	64
표 4- 4.	유기가공식품의 시장규모 전망	65
표 4- 5.	국내 유기가공식품 시장규모(2008)	66
표 4- 6.	유기가공식품의 시장규모 전망	67

제5장

표 5- 1.	대륙별 유기농업 관련 자료 구축 현황(2009)	69
표 5- 2.	대륙별 유기농업 실천현황(2009)	70
표 5- 3.	대륙별 유기농경지 면적변화(2008-2009)	73
표 5- 4.	대륙별 유기농업 실천 농가 수(2008-2009)	76
표 5- 5.	대륙별 농가당 유기농경지 면적(2008-2009)	77

표 5- 6.	미국의 유기농업 생산액 비교(2008)	82
표 5- 7.	일본의 유기농산물 국내 인증량	83
표 5- 8.	일본의 총생산량과 유기인증량 비교(2008-2010)	84
표 5- 9.	일본의 유기농산물 해외 인증량	85
표 5-10.	중국 녹색식품 산지 인증면적 구분(2005-2010)	88
표 5-11.	중국 주요 녹색식품의 수출 현황(2008-2010)	89
표 5-12.	유럽 유기농식품 시장 현황(2009)	94
표 5-13.	일본의 유기농산물 가공식품 국내 인증실적	98
부표 1.	지역별 친환경농산물 인증실적(2001-2011)	108
부표 2.	지역별 유기농산물 인증실적(2001-2011)	109
부표 3.	지역별 무농약농산물 인증실적(2001-2011)	110
부표 4.	지역별 저농약농산물 인증실적(2001-2011)	111
부표 5.	재배면적 기준 기관별 친환경농산물 인증실적(2011)	112

그 립 차 례

제2장

그림 2- 1.	친환경농산물 출하량 변화 추이	12
그림 2- 2.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 변화 추이	13
그림 2- 3.	친환경농산물 재배 농가수 변화 추이	14
그림 2- 4.	품목별 친환경농산물 출하량(2011)	14
그림 2- 5.	친환경농산물 인증단계별 민간인증 인증면적 실적 상위 10개소(2011)	18
그림 2- 6.	지역별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 인증실적	21

제3장

그림 3- 1.	친환경농산물 소비계층의 유형(구매 경험자)	30
그림 3- 2.	친환경농산물 구입 동기	31
그림 3- 3.	주요 구입장소(구매 경험자)	31
그림 3- 4.	친환경농산물 구입처를 선택한 이유(1순위+2순위)	32
그림 3- 5.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제도, 안전성, 품질에 대한 신뢰정도(경험자)	33
그림 3- 6.	구매경험자의 가격수준 평가	33
그림 3- 7.	친환경농산물 구매 후 건강증진 여부	35
그림 3- 8.	향후 친환경농산물 소비의향	38
그림 3- 9.	친환경농산물 구입 애로사항	44
그림 3-10.	친환경농산물의 신뢰도 제고방안	44
그림 3-11.	판매확대를 위한 수요처 발굴에 대한 의견	45
그림 3-12.	학교급식 찬성 여부 및 최대 지불가능 수준	45
그림 3-13.	친환경농가공식품 구입시 ‘인증마크’ 및 ‘식품첨가물’ 확인 여부 ...	48
그림 3-14.	주요 구입장소(구매 경험자)	49
그림 3-15.	친환경가공식품 구입처를 선택한 이유(1순위+2순위)	49

그림 3-16.	향후 친환경농가공식품 구입 희망처(구매 경험자)	50
그림 3-17.	친환경농가공식품 구입시 고려사항	50
그림 3-18.	친환경농가공식품 가격 수준	51
그림 3-19.	비싸도 구입하는 이유와 가격비 품질만족도	52
그림 3-20.	친환경농가공식품 구입후 건강증진 여부	52
그림 3-21.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에 대한 만족수준	53
그림 3-22.	유기가공식품 안전성에 대한 만족수준	53
그림 3-23.	친환경농가공식품 구매 후 건강증진 여부	54
그림 3-24.	향후 친환경농가공식품 소비의향	55
그림 3-25.	친환경농가공식품 신뢰도 향상 위한 필요사항	58
그림 3-26.	향후 구입확대 위한 필요사항	58

제4장

그림 4- 1.	친환경인증 농산물의 시장 유통규모(2011)	62
그림 4- 2.	인증단계별 친환경농산물 시장전망(2016년 이후 저농약 폐지시) ..	65
그림 4- 3.	유기가공식품의 시장규모 전망	67

제5장

그림 5- 1.	세계의 유기농업 실천 면적(2009)	70
그림 5- 2.	세계 유기농지 및 유기 기타 지역의 면적 증가 추세(2009)	71
그림 5- 3.	대륙별 유기농경지 면적변화(2008-2009)	72
그림 5- 4.	유기농경지 면적의 대륙별 분포 비중과 농경지면적 상위 10개국(2009) ...	73
그림 5- 5.	경지면적 대비 유기농경지 현황(2009)	74
그림 5- 6.	대륙별 유기농업 실천 농가 수(2008-2009)	75
그림 5- 7.	유기농가의 지역별 분포 비중과 농가수 상위 9개국(2009) ·	76
그림 5- 8.	연도별 유럽 유기농경지 면적(1992-2009)	78
그림 5- 9.	유럽 유기농업 토지이용 현황(2009)	79
그림 5-10.	유럽 국가별 유기농경지 면적 및 비중(2009)	80

그림 5-11.	미국의 유기농경지 면적(1992-2008)	81
그림 5-12.	중국 녹색식품 산지 인증면적 변화 추이(2000-2010)	87
그림 5-13.	유기농식품의 시장규모 및 지역분포	91
그림 5-14.	유럽 주요국의 유기농식품 시장규모(2008-2009)	93
그림 5-15.	유럽 주요국의 1인당 유기농식품 소비액(2009)	95
그림 5-16.	미국의 유기농식품 시장규모(2009)	96
그림 5-17.	중국의 녹색식품 시장규모 변화추이(1996-2008)	99

제 1 장

서 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정부는 DDA·FTA 등에 따른 농산물 시장개방에 대응하여 국내 농산물의 질적 경쟁력 제고를 위해 친환경농업을 미래농업의 성장동력으로 적극 육성해 왔음. 이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생산은 2000~2011년 사이 연평균 40% 이상 급속히 증가해 왔음.
- 정부는 친환경농식품 육성을 위해 친환경농산물 생산기반의 확충, 친환경 농축수산물 유통확대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유기농식품산업 육성을 저탄소 녹색성장의 핵심정책으로 추진하였음. 이에 따라 국내 친환경농산물 시장규모는 전체 농산물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를 넘어서면서 틈새시장(niche market)에서 주류시장(mainstream market)으로 진입하였음.
- 한편, 정부는 2010년부터 저농약 신규인증을 중단하고, 2016년부터는 저농약인증제도를 완전히 폐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이와 같은 정부정책에 따라 유기와 무농약 농산물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던 저농약농산물이 크게 감소하고 있음. 따라서 친환경농산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저농약농산물에서 유기와 무농약 농산물 재배로 전환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친환경농가들의 소득보전을 위해 유기와 무농약 농산물의 판로확대와 가격차별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함께 요구되고 있음.

- 세계적으로 농산물의 안전성과 건강을 추구하는 웰빙 트렌드의 확산으로 유기농식품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특히 소득수준이 높은 북미, 유럽 및 일본 등의 지역을 중심으로 2000년 이후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 우리나라도 농산물의 안전성과 건강을 추구하는 웰빙 트렌드가 확산되면서 가족 건강을 위해 친환경농식품을 찾는 소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음. 특히 친환경농식품 소비를 통해 가족건강 증진을 경험한 소비자일수록 친환경농산물 소비를 보다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그러나 소비자들은 현재의 친환경농산물 시장가격이 지나치게 높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저렴하면서도 신뢰성이 높은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강한 구매 욕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친환경농식품의 판로확보와 가격차별화를 통해 생산자들의 필요를 충족시키면서 동시에 신뢰성 있고, 저렴한 가격의 친환경농식품 공급을 통해 소비자들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적절한 정책적 대안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임.
- 이 연구는 친환경농식품의 생산 및 소비 실태와 시장전망을 실시함으로써 정책담당자, 생산자, 소비자, 유통업자, 가공업자 등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건실한 친환경농식품 발전을 위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연구목적이 있음.

2. 선행연구 현황 및 본 연구의 차별성

2.1. 선행연구 검토

- 국내외 친환경농산물 생산현황 분석, 시장규모 및 시장전망에 관한 연구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져 왔음.
 - 김창길 외 3인(2005)은 충남 홍성과 충북 옥천 사례지역을 중심으로 친환경농업 실천에 따른 경제적 분석을 기초로 지역여건에 적합한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등 친환경농업 발전 방안을 제시하였음.
 - 김창길·김태영·이상건(2007)은 국내외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실태 및 시장규모 정보에 대한 사회적 수요에 대응하여 국내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현황을 분석하고, 장·단기의 시장규모를 처음으로 전망하였음.
 - Catherine Greene et al.(2009)은 최근의 유기농산물에 대한 소비의 급증은 유기규정프로그램(organic regulatory program)과 상표(label)의 개발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소비 급증으로 부각되는 이슈들을 살펴보기 위해 유기농업 시스템, 공급 체인, 가격 프리미엄 그리고 시장 조건들에 관한 최근의 경제적 연구들을 검토하였음.
 - 황재현(2009)은 친환경·유기농산물의 시장현황을 분석하고 가격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대안으로 수요·공급의 양적·질적 협력시스템 구축, 소비자의 신뢰성 제고, 도농교류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전략 개발을 제시하였음.
 - 김창길 외 3인(2010)은 국내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실태를 분석하고, 2015년부터 폐지되는 저농약 인증제도의 영향을 반영하여 장·단기의 시장규모를 전망하였음. 또 EU, 미국, 일본, 중국의 친환경농업 실천현황 및 시장규모 등을 제시하였음.
 - IFOAM(2011)은 세계의 유기농업 생산 및 소비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대륙별 유기농업 실천현황, 전체농업에서 유기농업이 차지하는 비중, 유

기능 제품 시장유통 규모, 1인당 유기농산물 소비액 등의 자료를 분석하였음.

- 유덕기(2011)는 유기농시장의 환경과 생산-가공-유통 부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장애요인을 극복한 성공사례 발굴을 통해 유기농식품 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을 유통단계별로 제시하였음.
- 친환경농식품 소비 측면의 연구는 소비량, 가격 등 이용 가능한 공식적 통계자료의 한계로 주로 설문조사를 통한 소비자의 반응과 행태분석, 친환경농식품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 등에 관한 연구가 수행됨.
 - 오호성 외 8인(2000)은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구매의향 행태에 관한 설문조사와 CVM, AIDS 모형 등을 이용하여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지불의사 추정, 저투입 농산물에 대한 수요함수 추정을 기초로 각종 탄력성 및 수요량을 예측하였음.
 - 이종성(2001)은 서울과 부산 및 창원지역의 중고등학교 학부모를 대상으로 친환경농산물 구입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식별하였고,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소비자 반응분석을 시도하였음.
 - 허승욱·김호(2003)는 수도권 소비자를 대상으로 친환경농산물 소비실태를 설문조사·분석하고 소비자 신뢰 및 인지도 제고, 경쟁력 제고, 그린마케팅 전략 등 소비확대 전략을 제시하였음. 특히 Charter의 그린 제품·시장 모형을 수정한 친환경농산물 상품 유형별 전략적 모형을 제시하였음.
 - 강충관 외 8인(2005)은 친환경농산물의 소비 특성 및 소비자 기호분석을 기초로 소비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음. 서울시와 분당·평촌 등의 가정주부를 대상으로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자 선호도 분석과 로지스틱 모형을 이용하여 친환경농산물 수요를 예측하였음.
 - 김창길 외 3인(2005)은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와 구매행태 분석을 기초로 친환경농산물 소비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음. 특히 이 연구에서는 친환경농산물의 잠재적 수요 추정과 소득계층별 친환경농산물의 유형별 가격 프리미엄 등을 분석하였음.

- 안병렬(2005)은 광주광역시 소비자를 대상으로 친환경농산물 구매행태를 조사하고, 로지스틱 모형을 통해 구매촉진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 연령, 월평균 소득, 매체접촉수준, 인지수준 등이 중요한 요인임을 밝혀냈다.
- 정만철(2006)은 친환경농산물 가공식품의 생산 및 유통현황을 비교적 자세하게 조사하였음. 특히 소비자 조사를 통해 친환경농산물과 친환경가공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구매패턴을 조사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 조윤미 외 4인(2006)은 전국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유기농식품의 인식도를 조사하였음. 특히 친환경농산물 표시제도에 대한 인식, 표시가 필요한 내용, 표시사항의 중요도 등을 분석함으로써 신뢰할 수 있는 인증제도와 인증제도의 현실화의 필요성을 도출하였음.
- 유덕기(2008)는 소비자의 친환경유기농산물 구매태도를 분석하고 친환경유기농산물의 공급과잉에 대응한 친환경유기농산물의 수급균형을 위해 구매 장소의 편의성 제공, 적정 추가 지불가격 유지, 고품질신선도유지 등의 전략을 제시하였음.
- 김창길·이용선·이상건(2008)은 주부를 대상으로 친환경농산물 소비자의 소비 성향과 구매 행태에 관한 설문조사자료 분석을 기초로 체계적인 친환경농산물 마케팅 전략 수립방안을 도출하였음.
- 김충실·이상호(2009)는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신뢰도가 지금보다 개선될 경우 친환경농산물 구입 및 취급물량 확대의향이 높다는 점과 인증의 신뢰도와 포장지 개선에 따른 구매의향이 소비자와 유통업체간 차이가 있다는 점을 분석하였음.
- 허승욱·김호(2010)는 친환경농산물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속성별로 만족도 및 요인분석을 실시하고, 만족도와 고객충성도 수준이 과거에 비해 높아졌으며 맛이 가장 중요한 속성이라는 결론을 도출하였음.
- 정학균·장정경(2011)은 수도권 소비자들의 국산 유기가공식품 소비실태 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국산 유기가공식품에 대한 소비자의 구매행태 및 향후 소비의향에 관하여 분석하고, 국산 유기가공식품 소비촉진 방향을

도출하였음.

- 김태영·장우환(2011)은 친환경농산물 구매경험자와 비구매경험자로 나누어 구매 및 소비행태를 분석함으로써 인증마크와 신뢰성에 대한 인식이 통계적으로 차이가 난다는 결론을 도출하고 소비활성화 방안을 제시함.

2.2. 본 연구의 차별성

- 선행연구들은 주로 친환경농산물에 대하여 조사 및 분석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왔음. 본 연구는 가공식품을 포함한 친환경농식품으로 영역을 확대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됨.
- 친환경농식품 시장규모 전망 시 친환경농산물의 경우 저농약인증제도, 직접지불제도 등 정책적인 변수를 고려하였고, 유기가공식품의 경우 유기농산물 수요량 추정을 통해 유기농식품 클러스터의 정책영향을 고려하였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됨.

3. 주요 연구내용과 연구방법·범위

3.1. 주요 연구내용

- 친환경농식품의 국내외 생산실태
 - 국내 친환경농식품의 생산추세 및 최근의 현황
 - 국내 친환경농가공식품의 유형별 생산현황
 - 중국의 녹색식품과 일본의 유기농산물 시장의 현황 분석

- 친환경농식품의 소비실태 진단
 - 친환경농식품의 유형별 소비추세 및 최근의 현황
- 친환경농식품 소비성향 조사
 - 친환경농식품의 개념과 인증제도에 대한 이해도, 인증기관 신뢰도, 농약 잔류 정도, 안전성 등 정보요구도
 - 친환경농식품 구입 빈도, 구입동기, 비구입 이유, 애로사항, 구입비용, 가격의 적정성, 구매 관련 구매처, 구입처 선택 이유
 - 친환경농식품에 대한 구매요인 및 패턴 조사, 브랜드 유형별 인식도
- 친환경농식품 소비 관련 시장규모 추정 및 전망
 - 친환경농산물 거래처 및 시장규모
 - 인증단계별, 주요 종류별(또는 품목별) 2011년의 시장규모 추정 및 2012, 2015, 2020년 친환경농산물 시장규모 전망 및 농산물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 추정

3.2. 연구방법

- 친환경농식품의 생산 및 소비성향 관련 문헌 및 기존 연구자료 조사.
 - 유기농식품, 무농약농식품의 생산 및 소비에 관련한 선행연구의 문헌조사
- 친환경농식품의 생산실태 분석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친환경농산물인증실적 자료를 바탕으로 생산실태를 분석함. 또, 품목별 인증량에 관한 내부 자료와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의 인증단계별 가격자료를 바탕으로 시장규모를 전망함.
- 친환경농식품의 인증실적, 수입실적 자료들을 중심으로 친환경농식품의 소

비현황을 분석함.

- 수도권 소비자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친환경농식품에 대한 소비성향이 어떻게 변하고 있고, 향후 소비의향이 어떠한지, 소비의 애로요인이 무엇인지를 도출하여 제시함.
 - 전문 리서치 기관에 의뢰하여 인터넷으로 조사하며, 친환경농식품 소비 경험자와 비 경험자를 모두 조사함(800명은 경험자, 200명은 비경험자로 구성).
 - 설문조사 주요내용: 사회경제적 특성, 친환경농식품의 구매요인 및 패턴, 구입 시 애로사항, 향후 소비의향, 지불의사 등으로 구성되었음.
- 설문조사 자료를 기초로 구매요인, 구매행태, 구입 시 애로사항, 향후 소비의향, 지불의사 등에 대해 SPSS 12.0을 이용하여 빈도 및 교차분석을 실시함. 교차분석의 통계적 유의성은 χ^2 검정을 이용함.
- 친환경농식품의 시장규모 전망
 - 시장규모 전망은 2015년 저농약인증제도 폐지의 영향을 고려하고, 2020년의 목표 시장규모를 설정하여 전망함.
- 유관기관 전문가 면담조사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한살림 등 유관기관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친환경농식품의 소비, 생산, 시장규모에 대한 심층면담조사를 실시함.
- 소비자·생산자 단체, 관련 전문가, 유관기관 담당자들과의 협의회를 통해 친환경농식품 소비의향분석 및 시장규모 전망 결과의 적절성에 대한 의견수렴

3.3. 연구범위

- 친환경농식품의 소비성향에 대한 설문조사 대상지역은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으로 하며, 조사대상자는 20대 이상 주부로 함.
 - 친환경농식품의 조사대상은 신선식품의 경우 곡류, 채소류, 과일류로, 가공식품의 경우 다류, 떡류, 음료류, 김치·절임류로 한정함.
 - 인증유형별로는 신규인증이 중단되고, 2015년 폐지예정인 저농약인증은 제외하고 유기와 무농약 인증농산물로 한정함.
- 국가 및 민간 인증을 받은 친환경농식품을 연구 대상으로 함.
- 세계의 유기농업은 유럽 주요국과 북미지역을, 주변국은 중국과 일본을 주요 연구대상으로 함.
-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관련하여 친환경농식품은 친환경농산물과 친환경농가공식품을 가리킴. 친환경농가공식품은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6조에 따른 유기농산물 또는 무농약 농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가공·유통되는 식품을 의미함. 중국의 유기식품은 생산과정에서 화학합성 농업투입재나 식품첨가제 등을 일절 사용하지 않는 식품으로 정의하며, 우리나라의 유기농산물 및 유기농가공식품과 유사함. 중국의 녹색식품은 국제표준을 참고하기는 했지만 중국의 자체적인 표준이 보다 강조된 중국 국내표준으로 화학합성 물질의 사용 방식에 따라 제한적 사용을 허용하는 A급과 일절 사용을 금지하는 AA급으로 구분됨.

제2 장

국내 친환경농산물 생산현황

1. 국내 친환경농산물 인증실적

1.1. 친환경농산물 생산실태

- 우리나라 친환경농산물 국내생산 인증실적을 살펴보면 2000~2011년에 농가 수는 연평균 46.3%, 면적은 49.7%, 출하량은 43.1% 각각 증가하였음.
 - 2000년대 초반(2000~2003년)에 전체 인증면적 증가율은 122.7%의 급증세를 보였고, 최근 5년 동안(2007~2011년)에는 12.2%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전반적으로 최근 유기농산물과 무농약농산물은 증가하는 반면, 저농약농산물은 2008년 이후 증가 추세가 꺾이고 최근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2015년 이후 저농약인증제도가 폐지되기 때문에 농가들이 이에 대응하여 기존의 저농약농산물 위주의 친환경농산물 생산을 다른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표 2-1. 연도별 친환경농산물 인증실적 변화추이

구 분		2000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¹⁾	연평균증감률(%)
유기	농가수(호)	353	7,167	7,507	8,460	9,403	10,790	13,376	39.1
	면적(ha)	296	8,559	9,729	12,033	13,343	15,517	19,312	46.2
	출하량(톤)	6,538	95,405	107,179	114,649	108,810	122,243	190,912	35.9
무농약	농가수(호)	1,060	21,656	31,540	45,089	63,653	83,136	89,765	49.7
	면적(ha)	876	18,066	27,288	42,938	71,039	94,533	95,253	53.2
	출하량(톤)	15,694	320,309	443,989	554,592	879,930	1,039,576	915,823	44.7
저농약	농가수(호)	1,035	50,812	92,413	119,004	125,835	89,992	57,487	44.1
	면적(ha)	867	48,371	85,865	119,136	117,306	83,956	58,109	46.6
	출하량(톤)	13,174	712,380	1,234,706	1,519,070	1,369,034	1,053,702	712,493	43.7
계	농가수(호)	2,448	79,635	131,460	172,553	198,891	183,918	160,628	46.3
	면적(ha)	2,039	74,995	122,882	174,107	201,688	194,006	172,674	49.7
	출하량(톤)	35,406	1,128,093	1,785,874	2,188,311	2,357,774	2,215,521	1,819,228	43.1
경지면적(ha)		1,888,765	1,800,470	1,781,579	1,758,795	1,736,798	1,715,301	1,698,040	-0.9

주: 1) 2011년도 친환경농산물 출하량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잠정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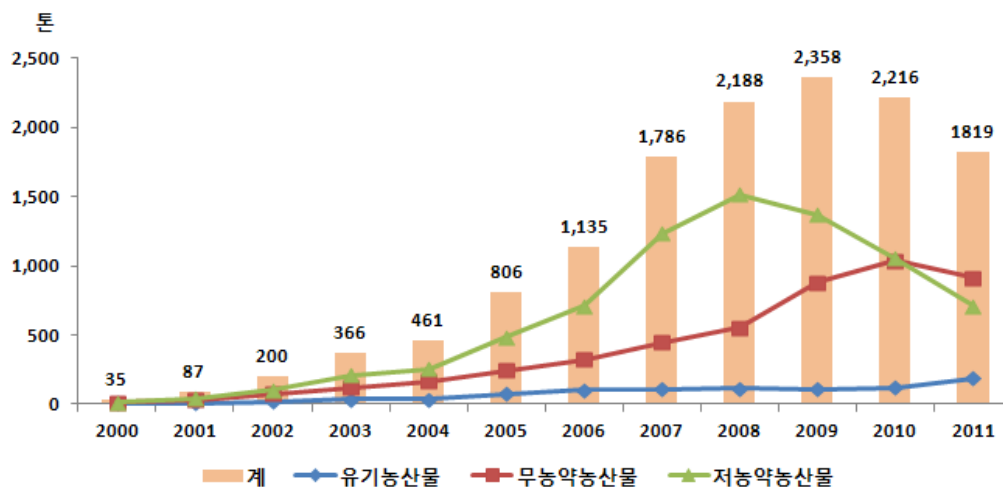
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친환경인증통계정보(<http://www.enviagro.go.kr>).

- 인증단계별 친환경농산물 출하량을 보면, 2007년까지 빠르게 증가하다가 이후 2009년까지 증가율이 완화되었고 2010년과 2011년에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유기농산물의 경우 2008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 2009년 약간 침체되었으나 이후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2011년 유기농산물 출하량은 전년 대비 56.2% 증가한 190,912톤으로 매우 높은 증가세를 보였음.
- 무농약농산물은 2010년 최대 출하량을 기록한 후 2011년에는 915,823톤으로 다소 감소하였으나 전체 친환경농산물 출하량 1,819,228톤의 44.7%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함.

- 기존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던 저농약농산물은 2008년까지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나 이후 빠르게 감소하고 있음. 2011년에는 무농약농산물 출하량이 저농약농산물 출하량을 추월하였다는 것이 큰 특징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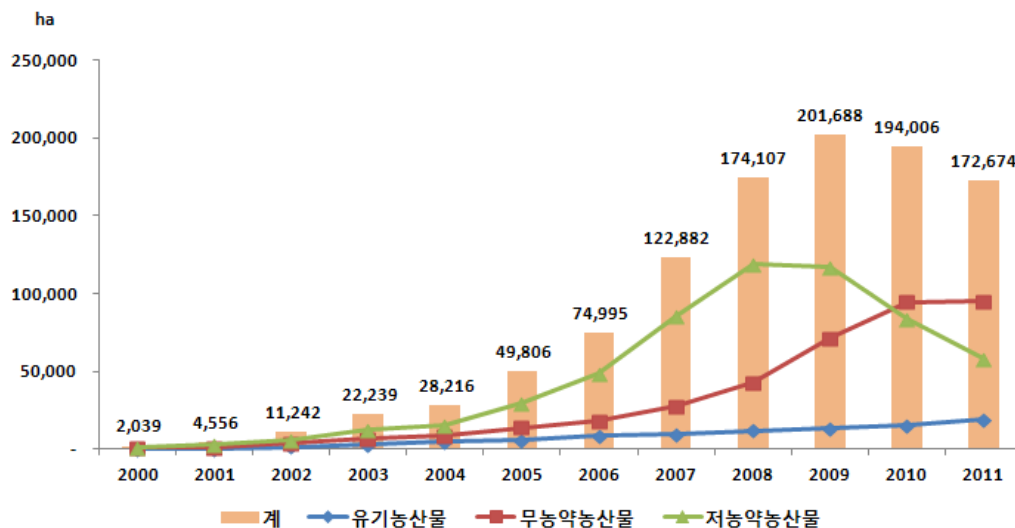
그림 2-1. 친환경농산물 출하량 변화 추이



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친환경인증통계정보(<http://www.enviagro.go.kr>).

- 인증단계별 재배면적은 친환경농산물 전체적으로 2009년까지 빠르게 증가하였으나 2010년 들어서면서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의 감소는 친환경농산물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해 왔던 저농약농산물의 재배면적이 급격하게 감소한 것이 주원인으로 파악됨.
 - 유기재배 면적은 19,312ha로 전년 대비 24.0% 증가하였으나, 무농약과 저농약재배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미미한 수준임.
 - 2011년 무농약재배 면적은 95,253ha로 2000년 이후 연평균 53.2%의 높은 증가율을 보여 왔음.
 - 저농약재배 면적은 2010년 저농약 신규인증이 중단되고, 저농약인증이 2015년까지만 유지되는 제도적 변화 여파로 2009년 이후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으며, 2011년 재배면적은 58,109ha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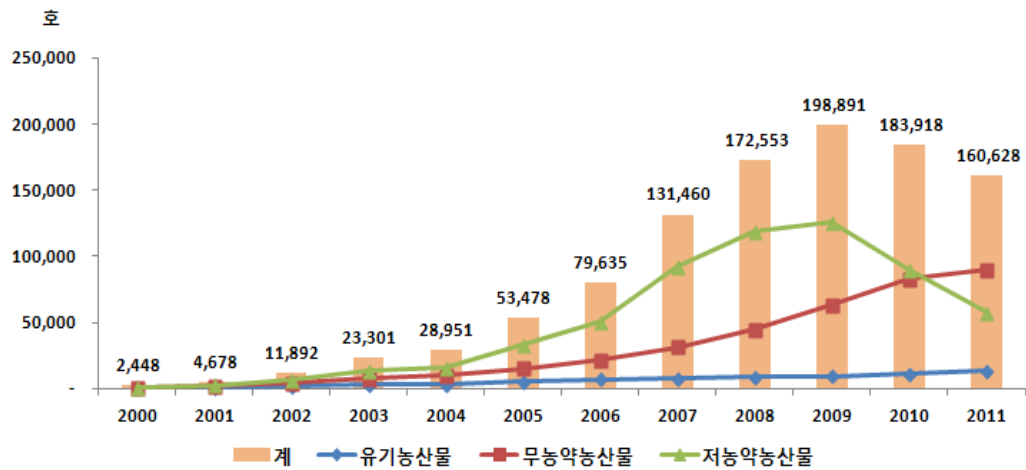
그림 2-2.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 변화 추이



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친환경인증통계정보(<http://www.enviagro.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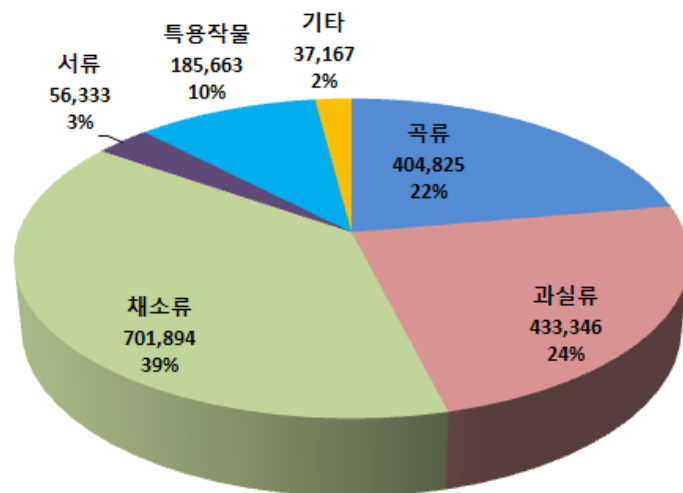
- 인증단계별 친환경농산물 재배 농가수 역시 2009년을 최고점으로 하여 이후 2010년과 2011년에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유기재배 농가수는 2000년보다 37.9배 증가한 13,376호로 친환경농산물재배 농가수 160,628호의 8.3%를 차지하였음. 무농약재배 농가수는 89,765호로 55.9%를, 저농약재배 농가수는 57,487호로 35.8%를 차지함.
 - 유기재배와 무농약재배 농가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저농약재배 농가는 2009년 125,835호를 기록한 이후 줄어들고 있음.

그림 2-3. 친환경농산물 재배 농가수 변화 추이



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친환경인증통계정보(<http://www.enviagro.go.kr>).

그림 2-4. 품목별 친환경농산물 출하량(2011)



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2012).

- 2011년 친환경농산물은 총 1,819,228톤 생산되었으며, 인증단계별로는 유기가 190,912톤, 무농약 915,823톤, 저농약 712,493톤 생산되었음.
- 인증단계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유기 10.5% 무농약 50.3%, 저농약 39.2%로 나타났음.
 - 곡류는 22.6%가 유기로 재배되어 다른 품목에 비해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음. 특히 곡류는 전체 유기농산물 190,912톤의 약 47.9%인 91,435톤을 생산하였음.
 - 과실류는 저농약이 89.9%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유기는 1.8%에 불과하였음.
 - 채소류는 무농약이 56.1%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였음. 서류와 특작류 역시 무농약의 비중이 각각 82.0%와 95.2%로 상당히 높았음. 특히 특작류의 경우 저농약은 1.4%에 불과하였고 유기가 3.3% 오히려 더 높은 비중을 보였음.

표 2-2. 품목별·인증단계별 친환경농산물 출하량(2011)

단위: 톤, %

구 분	곡류	과실류	채소류	서류	특작류	기타	전체
유 기	91,435 (22.6)	7,589 (1.8)	53,643 (7.6)	4,287 (7.6)	6,200 (3.30)	27,758 (74.7)	190,912 (10.5)
무농약	254,453 (62.9)	36,669 (8.5)	394,085 (56.1)	46,205 (82.0)	176,834 (95.2)	7,577 (20.4)	915,823 (50.3)
저농약	58,937 (14.6)	389,088 (89.8)	254,166 (36.2)	5,841 (10.4)	2,629 (1.4)	1,832 (4.9)	712,493 (39.2)
합 계	404,825 (100.0)	433,346 (100.0)	701,894 (100.0)	56,333 (100.0)	185,663 (100.0)	37,167 (100.0)	1,819,228 (100.0)

주: ()는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유형별 구성비를 나타냄.
 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자료.

1.2. 인증기관별 친환경농산물 인증실적

- 친환경농산물 인증은 2011년 말 기준, 국가기관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70개 민간인증기관에서 맡고 있음.
- 2011년 민간기관 인증실적은 인증건수 14,711건, 인증농가수는 114,075호, 인증면적은 121,451ha로 2010년에 비하여 인증건수는 증가하였으나 인증농가수와 인증면적은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민간인증기관의 인증건수는 전체의 62.2%, 인증농가 수는 71.0%, 면적은 70.3%를 차지하여 인증건수와 인증농가수, 인증면적 모두에서 국가기관의 인증실적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남. 즉 전체 친환경농산물 인증의 절반 이상이 민간인증기관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음.
 - 민간기관의 인증실적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인증건수는 2009년부터, 인증농가수와 인증면적은 2007년 이후부터 국가기관의 인증실적을 넘어섰음.

표 2-3. 국가기관과 민간인증기관의 연도별 친환경농산물 인증실적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농관원	민간	농관원	민간	농관원	민간	농관원	민간	품관원	민간	품관원	민간
건수 (건)	8,708 (75.8)	2,773 (24.2)	10,127 (62.6)	6,060 (37.4)	9,887 (50.2)	9,790 (49.8)	11,262 (46.7)	12,866 (53.3)	10,322 (42.5)	13,966 (57.5)	8,943 (37.8)	14,711 (62.2)
농가수 (호)	53,241 (66.9)	26,394 (33.1)	63,220 (48.1)	68,240 (51.9)	56,299 (32.6)	116,254 (67.4)	62,024 (31.2)	136,867 (68.8)	55,384 (30.1)	128,534 (69.9)	46,553 (29.0)	114,075 (71.0)
면적 (ha)	52,512 (70.0)	22,483 (30.0)	60,580 (49.3)	62,302 (50.7)	61,382 (35.3)	112,725 (64.7)	72,112 (35.8)	129,576 (64.2)	66,051 (34.0)	127,955 (66.0)	51,223 (29.7)	121,451 (70.3)

주: ()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의 구성비를 나타냄.

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친환경인증통계정보(<http://www.enviagro.go.kr>).

- 2011년 친환경농산물 인증실적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민간인증이 국가기관인 품관원보다 많음을 볼 수 있음. 인증건수는 민간기관이 62.2%로 품관원 37.8%보다 많았으며, 인증농가수와 인증면적 또한 민간기관이 각각 71.0%와 70.3%로 29.0%와 29.7%인 품관원 인증실적보다 2배 이상 많았음.
- 인증실적을 인증유형 및 인증단계별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 인증건수의 경우 유기 및 무농약은 민간기관 인증이 품관원 인증보다 많았으나 저농약은 품관원 인증이 민간기관 인증보다 많았음.
 - 인증농가수는 유기와 무농약, 저농약 모두에서 민간기관 인증이 품관원 인증보다 많았음. 특히 무농약의 경우 민간기관 인증은 84.0%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함.
 - 인증면적은 저농약을 제외하고 유기 및 무농약의 경우 민간기관 인증이 품관원 인증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나 그 차이는 미미한 수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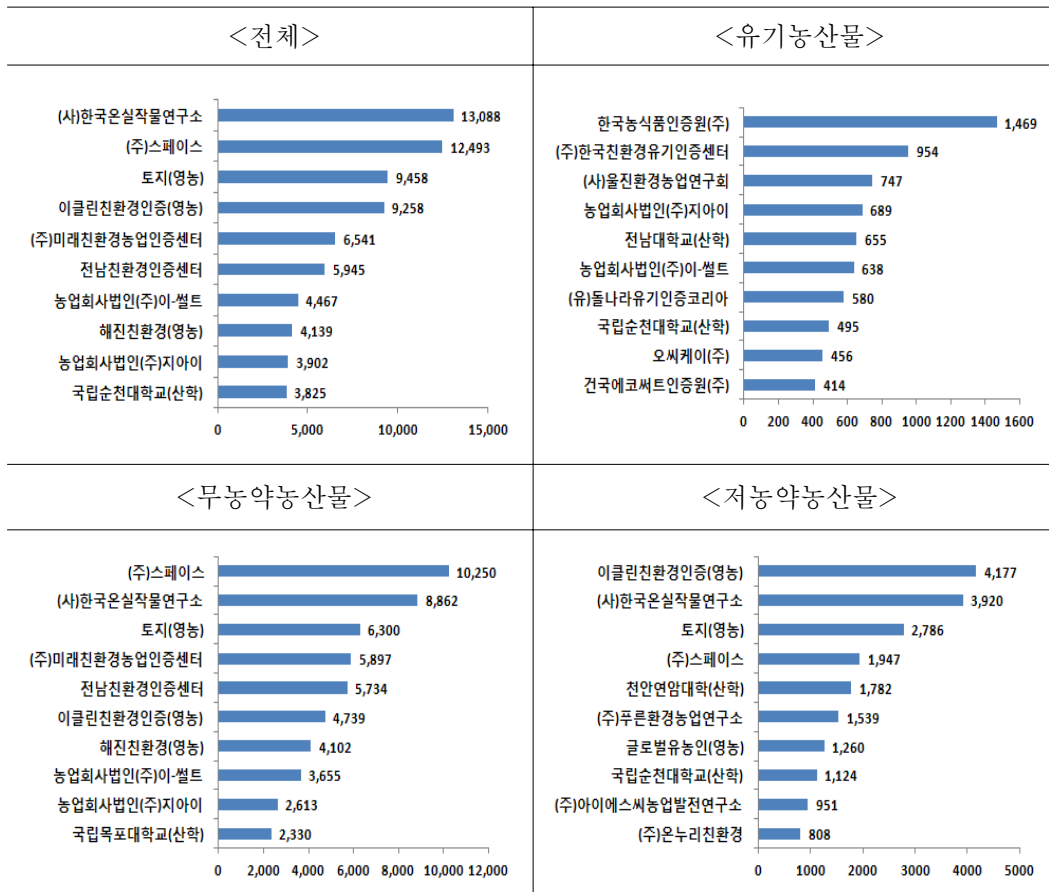
표 2-4. 인증유형 및 인증단계별 친환경농산물 인증실적(2011)

구 분		유기		무농약		저농약		전체	
		인증실적	비중	인증실적	비중	인증실적	비중	인증실적	비중
건수 (건)	품관원	1,497	(46.0)	3,735	(27.3)	3,911	(58.3)	8,943	(37.8)
	민간	1,760	(54.0)	9,959	(72.7)	2,792	(41.7)	14,711	(62.2)
	계	3,257	(100.0)	13,694	(100.0)	6,703	(100.0)	23,654	(100.0)
농가 수 (호)	품관원	4,187	(31.3)	14,340	(16.0)	28,026	(48.8)	46,553	(29.0)
	민간	9,189	(68.7)	75,425	(84.0)	29,461	(51.2)	114,075	(71.0)
	계	1,3376	(100.0)	89,765	(100.0)	57,487	(100.0)	160,628	(100.0)
면적 (ha)	품관원	6,282	(32.5)	14,826	(15.6)	30,115	(51.8)	51,223	(29.7)
	민간	1,3030	(67.5)	80,427	(84.4)	27,994	(48.2)	121,451	(70.3)
	계	1,9312	(100.0)	95,253	(100.0)	58,109	(100.0)	172,674	(100.0)

주: ()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의 구성비를 나타냄.

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친환경인증통계정보(<http://www.enviagro.go.kr>).

그림 2-5. 친환경농산물 인증단계별 민간인증 인증면적 실적 상위 10개소(2011)



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자료.

-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을 기준으로 (사)한국온실작물연구소가 13,088ha, 민간기관 인증의 7.6%를 인증하여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음. 다음으로 (주)스페이스 12,793ha(7.2%), 토지(영) 9,458ha(5.5%), 이클린친환경인증(영) 9,258ha(5.4%) 등의 순이었음.

- 2009년에는 위의 4개 기관이 전체 민간기관 인증면적의 56.1%를 차지하여 비중이 매우 높았으나 2011년도에는 그 비중이 25.7%로 집중도가 크게 완화되었음.

- 한국농식품인증원(주), (주)한국친환경유기인증센터, (사)올친환경농업연구회 등의 기관들은 유기를 중점적으로 인증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인증기관의 상당수가 무농약과 저농약농산물을 위주로 인증을 하고 있는데, 2015년 이후 저농약인증 폐지에 대비하여 무농약 및 유기 인증 중심으로 전환하고, 전문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1.3. 지역별 인증실적

- 지역별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을 보면, 전남이 총 87,817ha로 전국 친환경농업 실천면적의 50.86%로 가장 높았고, 경북 20,109ha(11.65%), 충남 15,953ha(9.24%), 경남 11,882ha(6.88%), 전북 10,647ha(6.17%) 등의 순으로 나타났음.
 - 반면, 충북은 5,116ha(2.96%), 제주는 2,531ha(1.47%)로 친환경농업 실천면적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2011년도에도 2009년과 마찬가지로 지자체별로 큰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경지면적을 기준으로 비교하면, 전남의 경우 총 경지면적 303,975ha 중 87,817ha가 친환경재배 인증을 받아 28.89%라는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음. 이는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매우 앞서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또한 전남지역은 저농약을 제외한 유기와 무농약농산물의 재배면적이 78.9%로 향후 저농약인증이 폐지되더라도 친환경농업 생산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히 대응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전남 이외에 경지면적 대비 10% 이상의 친환경농산물 재배인증면적을 가지고 있는 지역은 없었으며, 경남 7.57%, 경북 7.32%, 강원 7.27%의 순으로 나타났음.

표 2-5. 도별 친환경농산물 인증실적(2011)

단위: 호, ha, 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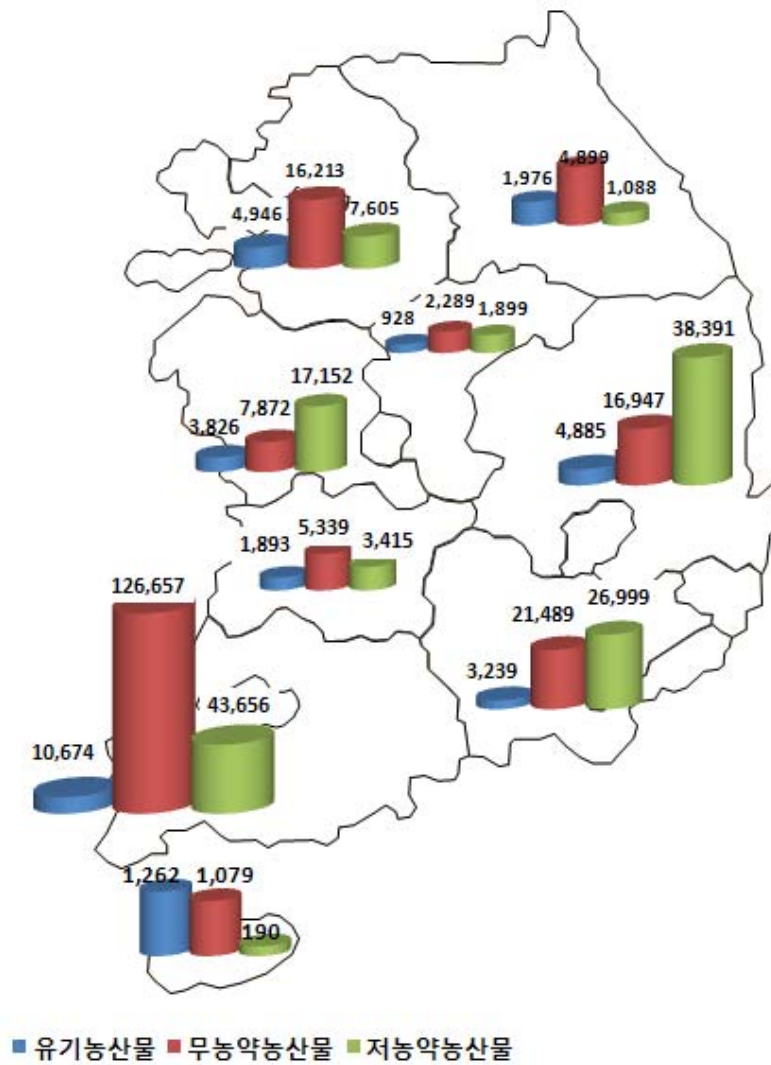
구 분		유기	무농약	저농약	계	인증면적 비중	경지면적 비중
경 기	농가수	1,189	4,015	2,442	7,646	4.40	4.25
	면적	1,983	3,231	2,387	7,601		
	출하량	90,264	72,205	30,924	193,393		
강 원	농가수	1,093	3,561	1,200	5,854	4.61	7.27
	면적	1,976	4,899	1,088	7,963		
	출하량	14,774	33,044	17,899	65,717		
충 북	농가수	840	2,620	2,049	5,509	2.96	4.42
	면적	928	2,289	1,899	5,116		
	출하량	11,547	47,032	32,103	90,682		
충 남	농가수	1,571	2,776	5,256	9,603	9.24	6.87
	면적	1,835	3,491	10,627	15,953		
	출하량	13,324	26,477	64,205	104,006		
전 북	농가수	1,127	5,088	3,036	9,251	6.17	5.25
	면적	1,893	5,339	3,415	10,647		
	출하량	11,654	33,846	64,588	110,088		
전 남	농가수	3,930	55,612	20,559	80,101	50.86	28.89
	면적	5,983	63,283	18,551	87,817		
	출하량	22,481	538,438	173,763	734,682		
경 북	농가수	2,129	7,142	13,724	22,995	11.65	7.32
	면적	1,886	5,726	12,497	20,109		
	출하량	11,990	84,065	231,584	327,639		
경 남	농가수	1,097	6,288	7,397	14,782	6.88	7.57
	면적	1,281	4,274	6,327	11,882		
	출하량	7,679	50,967	68,183	126,829		
제 주	농가수	226	872	254	1,352	1.47	4.29
	면적	1,262	1,079	190	2,531		
	출하량	5,045	8,713	1,955	15,713		
합 계	농가수	13,376	89,765	57,487	160,628	100.00	10.17
	면적	19,312	95,253	58,109	172,674		
	출하량	190,912	915,823	712,493	1,819,228		

주: 광역시의 자료는 '합계'에 포함됨.

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친환경인증통계정보(<http://www.enviagro.go.kr>), 통계청.

그림 2-6. 지역별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 인증실적

단위: ha



2. 국내 유기가공품 인증 실적 및 수입현황

- 최근 국민소득 증가와 식품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유기가공품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음. 또한 친환경농가의 새로운 소득기반으로 친환경농산물 생산뿐만 아니라 가공식품 생산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이 부각되고 있음.
-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가 닐슨컴퍼니코리아를 통해 추산한 국내 유기농식품의 시장규모는 2010년 기준 6,276억 원 규모로 조사됨. 이는 2009년의 4,930억 원에 비해 27.3% 성장한 수치임. 유기농산물은 3,174.0억 원이었으며, 유기가공식품은 3,102억 원으로 각각 전년 대비 30.1%, 24.6% 성장함.

표 2-6. 유기가공식품 시장 현황(2010)

단위: 억 원, %

구분			2009		2010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증가율
유기가공 식품	계		2490.2	50.5	3102.2	49.4	24.6
	국내생산	국내인증	1047.4	21.2	1250.7	19.9	19.4
		표시	1354.0	27.5	1732.0	27.6	27.9
	해외수입	국내인증	8.7	0.2	14.8	0.2	70.1
		해외인증	80.1	1.6	104.7	1.7	30.7

자료: 닐슨컴퍼니코리아(2011).

- 유기가공식품 관련 제도는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에 근거한 유기농산물 가공품 품질인증제와 「식품위생법」에 근거한 일반 유기가공식품 표시제로 이원화되어 있음. 우선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에 근거한 유기농산물 가공품 품질인증제도는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해 유기재배 인증을 받은 국내 산 농산물(원재료의 95%)을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녹즙 또는 주스류, 녹차

류, 분말류, 기타 품목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 국내 유기가공식품 품질인증 건수는 2004년 38건에서 큰 폭으로 증가하여 2011년에는 302건으로 집계됨. 또한 품목수도 해마다 크게 증가하여 2011년에는 399개 품목이 인증을 받았음.
- 2004년 유기가공식품 출하량은 1,340톤이었다가 2005년에 풀무원이 유기가공품 인증을 취소하면서 인증물량이 급격하게 줄어 2005년에는 235톤에 그쳤음. 그러나 이후 다시 증가하여 2008년 1,748톤까지 증가하였음<표 2-7>.

표 2-7. 국내 유기가공품 품질인증 실적

단위: 건, 개, 톤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인증건수	38	99	194	187	231	199	283	302
품목수	-	-	-	100	125	250	378	399
출하량	1,340	235	1,103	1,893	1,748	-	-	-

주: 유기가공식품의 출하량은 2009년부터는 집계되지 않고 있으나 인증건수 및 품목수의 증가 따라 증가하였을 것으로 판단됨.

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자료.

- 유기농식품의 수입은 2006년 14,635톤(27,486천 달러)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0년 현재 25,473톤(49,350천 달러)을 나타내고 있음<표 2-8>. 국가별 유기농식품의 수입량은 브라질이 3,930톤으로 가장 많았고, 필리핀, 미국, 중국 등의 순이었음<표 2-9>.

표 2-8. 유기농식품의 최근 5년간 수입현황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제조국가	35개국	35개국	45개국	43개국	38개국
수입건수	2,451	3,009	3,844	3,686	3,991
중량(kg)	14,635,488	23,867,595	25,350,022	21,293,130	25,473,180
금액(\$)	27,486,073	40,357,998	56,604,304	39,735,113	49,349,691

주: 식품위생법 제10조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서 정한 규정에 따르면 최종제품에 유기농산물이 95% 이상 함유되어 있어야 제품명에 ‘유기’ 또는 이와 유사한 용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따라서 유기농식품 수입현황은 제품명에 ‘유기’가 포함된 것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실제 수입현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청(2011).

표 2-9. 국가별 유기농식품의 수입량(중량순)

단위: kg

순 번	연도	2006	2007	2008	2009	2010
	합 계	14,635,488	23,867,595	25,350,022	21,293,130	25,473,180
	소 계	12,090,496	19,531,758	19,222,180	17,109,297	21,840,141
	(비 중)	(82.6)	(81.8)	(75.8)	(80.4)	(85.7)
1	브라질	976,817	1,188,697	2,112,018	2,822,073	3,930,053
2	필리핀	581,321	2,392,484	2,197,166	2,805,556	3,658,376
3	미국	3,933,700	3,607,489	4,632,938	2,780,216	3,416,253
4	중국	2,823,351	6,402,901	4,127,983	2,446,787	3,028,441
5	호주	1,473,068	1,931,745	2,738,996	2,665,068	2,529,313
6	터키	346,750	846,069	1,243,206	835,905	1,350,654
7	쿠바	-	-	-	44,000	1,100,000
8	콜롬비아	111,798	346,262	466,246	1,401,626	1,011,278
9	이탈리아	912,479	1,987,102	948,467	629,966	989,826
10	뉴질랜드	931,212	829,009	755,160	678,100	825,947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청(2011).

- 국가별 유기농식품 수입액은 미국이 12,977천 달러로 가장 많았고, 필리핀, 브라질, 호주 등의 순이었음. 2010년 기준 1~10위 국가의 수입액이 전체의

79.6%를 차지함<표 2-10>.

표 2-10. 국가별 유기농식품의 수입액(금액순)

단위: 달러

	연도	2006	2007	2008	2009	2010
순 번	합 계	27,486,073	40,357,998	56,604,304	39,735,113	49,349,691
	소 계	20,365,311	33,353,826	45,576,288	30,886,486	39,306,704
	(비 중)	(74.1)	(82.6)	(80.5)	(77.7)	(79.6)
1	미국	10,640,830	10,633,776	14,139,456	10,512,038	12,977,004
2	필리핀	582,139	2,645,918	2,232,811	3,105,539	3,646,995
3	브라질	948,828	1,408,998	2,502,233	3,051,284	3,450,247
4	호주	1,146,729	2,438,220	4,249,317	3,133,177	3,374,388
5	터키	585,888	3,022,619	5,794,032	1,831,266	3,265,875
6	독일	685,838	3,126,314	8,121,866	1,755,982	2,804,677
7	중국	1,703,555	3,568,552	2,845,488	1,772,903	2,759,109
8	콜롬비아	231,888	555,544	941,048	2,181,487	2,456,185
9	뉴질랜드	2,338,455	2,083,042	2,149,482	1,748,010	2,364,971
10	이탈리아	1,501,161	3,870,843	2,600,555	1,794,800	2,207,253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청(2011).

3. 국내 수입 유기농산물의 인증 실적

- 수입국별 유기농산물 수입현황은 2010년 기준으로 중국에서 수입하는 물량이 전체 수입물량의 43.2%인 5,942톤으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그밖에 필리핀 3,619톤(23.3%), 베트남 1,514톤(11.0%) 등의 순으로 조사되었음.
 - 최대 수입국인 중국에서는 주로 사료작물, 바나나, 도토리 등을 수입하고, 필리핀에서는 바나나를, 베트남에서는 사료작물을 주로 수입함.

표 2-11. 국가별 유기농산물 수입인증 현황(2005-2010)

단위: 톤

수입국	품 목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중 국	고 추	6	13	10	13	-	4
	녹 두	180	140	140	160	100	
	대 두	5,798	2,458	3,327	1,760	340	20
	흑 두	97	-	-	-	-	-
	들 깨	13	84	53	23	-	-
	옥수수	792	955	1,399	2,000	922	-
	참 깨	-	53	138	36	72	36
	해바라기씨	-	36	-	31	-	-
	소 맥	-	180	-	-	-	300
	밀	183	-	400	-	300	-
	옥수수수염	-	-	-	10	-	-
	도토리	-	-	-		160	758
	사료작물	-	-	-	40	2,512	3,824
	바나나	-	-	-	-	-	1,000
미 국	머스타드 외	-	4	-	-	-	-
	새싹채소종자	-	11	-	-	-	-
	무 씨	2	-	-	-	-	-
	알팔파씨	1	-	-	-	-	-
	케일 등	7	-	-	-	-	-
	브로컬리	6	-	-	-	-	-
	블루베리	-	-	-		35	-
	사료작물	-	-	-	800	180	737
호 주	대 두	-	21	-			32
	쇠고기	-	-	195	152	101	26
	밀	-	-	-	299	784	-

표 2-11. 국가별 유기농산물 수입인증 현황(2005-2010)(계속)

단위: 톤

수입국	품 목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키르기즈스탄	밀	628	1,235	700	1,010	-	-
	살구	-	-	9	-	-	-
필리핀	바나나	46	729	2,297	2,129	2,670	3,619
	야콘	-	-	59	56	-	-
뉴질랜드	키 위	478	924	706	420	464	527
이탈리아	브로컬리	2	-	-	-	-	-
콜롬비아	바나나	262	-	103	17	377	164
아르헨티나	딸기	-	-	12	-	9	-
	블루베리	-	-	-	-	32	-
칠레	블루베리	-	-	-	-	30	-
캐나다	밀	-	-	306	690	198	996
	블루베리	-	-	15	94	28	-
페루	바나나	-	-	-	-	-	22
멕시코	바나나	-	-	-	265	-	-
베트남	사료작물	-	-	-	1,596	958	1,514
러시아	사료작물	-	-	50	-	-	180
합 계		8,501	6,843	9,919	11,601	10,272	13,759

주: 2009년 기준 인증업체 현황-수입자 인증업체(23개소), 해외 생산자 인증업체(65개소), 취급자 인증업체(183개소)

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자료, 식약청(2011).

제 3 장

친환경농식품의 구매패턴과 소비성향

1. 친환경농산물 소비실태

1.1. 조사개요

-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성향과 구매행태를 살펴보기 위해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 거주하는 주부를 대상으로 소비자 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조사기간: 2011. 12. 30~2012. 1. 6). 조사대상자는 친환경농산물 구입경험자 421명, 비경험자 105명 등 총 526명으로 하였음.
- 조사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살펴보면, 응답자 연령은 20대가 44명(8.4%), 30대가 237명(45.1%), 40대가 179명(34.0%), 50대 이상이 66명(12.6%)으로 30~40대가 79.1%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교육수준은 대졸 이상이 72.5%, 고졸 이하가 27.5%를 차지함.
- 응답자의 소득수준은 200만 원 미만이 7.6%, 200만 원대 19.0%, 300만 원대 27.9%, 400만 원대 23.8%, 500만 원 이상이 21.7%를 차지하였음. 조사대상자의 주부유형은 전업주부가 46.6%를 차지하였으며, 미취학 또는 초중

표 3-1. 친환경농산물 소비자의 사회·경제적 특성

단위: 명, %

구분		응답수	비중
거주지역	서울	266	50.6
	수도권	260	49.5
연령대	20대	44	8.4
	30대	237	45.1
	40대	179	34
	50대 이상	66	12.6
교육수준	고졸 이하	145	27.6
	대졸	346	65.8
	대졸 이상	35	6.7
소득수준	200만원 미만	40	7.6
	200만원대	100	19
	300만원대	147	27.9
	400만원대	125	23.8
	500만원 이상	114	21.7
주부유형	전업주부	245	46.6
	부업주부	36	6.8
	취업주부	245	46.6
성장지역	대도시	359	68.3
	중소도시	130	24.7
	농촌	37	7
미취학 및 초중고생 자녀 유무	있다	364	69.2
	미취학 및 초등학생	243	46.2
	중고등학생	67	12.7
	미취학과 초중고생	54	10.3
	없다	162	30.8
가족구성원 질환 유무	있다	185	35.2
	없다	341	64.8
친환경농산물 지속소비 여부	그렇다	326	62
	아니다	200	38
소비자단체 회원 여부	그렇다	76	14.4
	아니다	450	85.6
계		526	100.0

고생 자녀가 있는 가정이 69.2%로 대부분이었음. 응답자의 성장지역은 대도시 출신이 68.3%로 많았으며, 농촌 출신은 7.0%로 낮은 비중을 차지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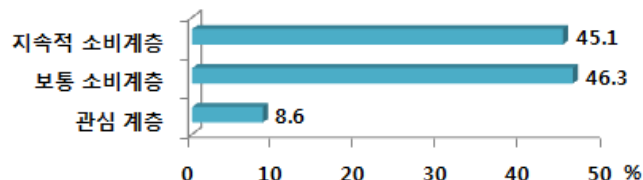
- 가족구성원의 건강질환(아토피 피부질환 등) 경험유무를 묻는 질문에서는 전체응답자의 35.2% 정도가 질환 여부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음.
- 설문조사 분석은 SPSS 12.0을 이용하여 빈도 및 교차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교차분석의 통계적 유의성은 χ^2 검정을 이용함.

1.2. 분석결과

1.2.1. 친환경농산물 구입패턴

- 현재 친환경농산물을 소비하고 있는 소비자 계층을 분류해 보면 지속적 소비계층(1개월에 4회 이상 구입)이 45.1%, 보통 소비계층(1개월에 4회 미만 구입)이 46.3%, 친환경농산물 관심계층(6개월에 1회 이상 구입)은 8.6%로 나타나 91.4%가 보통 이상의 친환경농산물 소비계층(그린 소비자)인 것으로 나타났음<그림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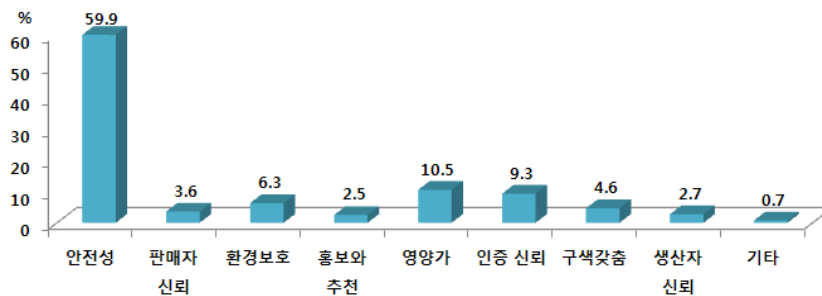
그림 3-1. 친환경농산물 소비계층의 유형(구매 경험자)



- 친환경농산물을 구입하는 동기를 살펴본 결과 ‘안전성 및 가족건강’이

59.9%, ‘영양가가 높을 것 같아서’ 10.5%, ‘인증제도에 대한 신뢰 때문에’ 9.3%로 나타났음<그림 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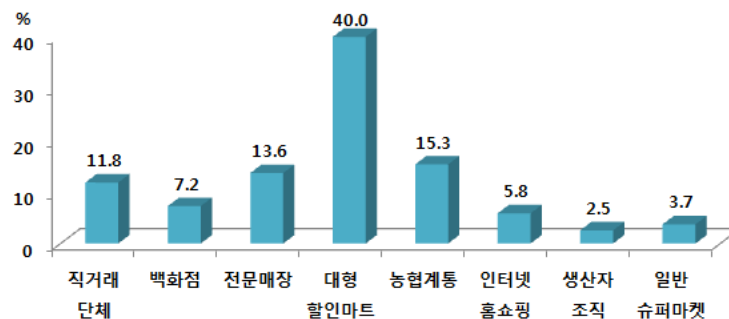
그림 3-2. 친환경농산물 구입 동기



- 친환경농산물 구입 장소로 대형할인점이 40.0%, 농협계통(하나로클럽, 하나로마트) 15.3%, 친환경농산물 전문매장 13.6%, 직거래단체 11.8%, 백화점 7.2% 등의 순임<그림 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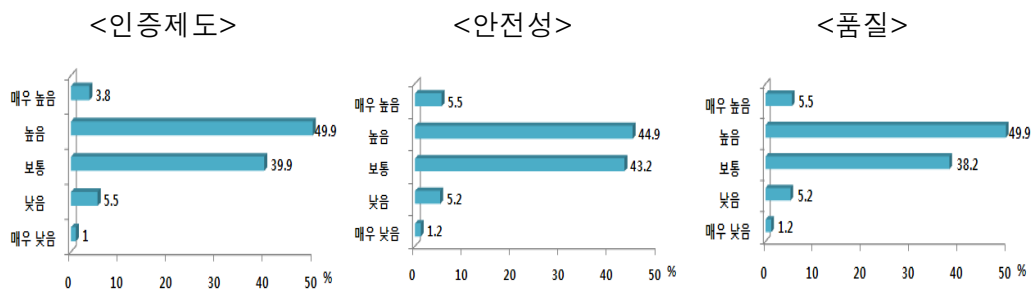
- 구입처를 선택한 이유로는 ‘구입의 편리성’ 31.1%, ‘판매처나 판매자에 대한 신뢰’ 23.5%, ‘다양한 품목단위와 지속적인 공급’ 20.6%, ‘타 판매처에 비해 저렴한 가격’ 16.7% 등으로 나타남<그림 3-4>.

그림 3-3. 친환경농산물 주요 구입장소(구매 경험자)



-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제도에 대한 만족수준은 ‘높다’는 응답이 53.7%로 절반 이상이 만족한 것으로 나타났음. 안전성과 품질에 대한 만족수준도 ‘높다’는 응답이 각각 50.4%, 55.4%로 높게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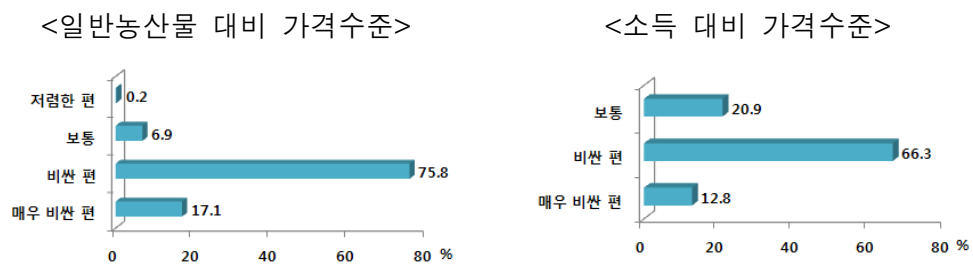
그림 3-5.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제도, 안전성, 품질에 대한 신뢰 정도(경험자)



3.2.2. 친환경농산물 소비의향

- 친환경농산물의 가격을 평가한 결과, 일반농산물 대비 가격수준의 경우 ‘비싼 편’ 75.8%, ‘매우 비싼 편’ 17.1%로 나타나 비싸다고 인식하는 비중이 92.9%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소득과 비교한 가격수준의 경우 ‘비싼 편’ 66.3%, ‘매우 비싼 편’ 12.8%로 나타나 비싸다고 인식하는 비중이 79.1%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그림 3-6>.

그림 3-6. 구매경험자의 가격수준 평가



- 일반농산물 가격(1,000원 기준) 대비 소비자가 직접 시장에서 구입하고 있는 친환경농산물의 시장가격 수준은 품목과 인증단계에 따라 다르나 가격 프리미엄은 유기농산물 51~79%, 무농약 48~69% 수준임. 한편 소비자가 원하는 친환경농산물 적정가격 프리미엄은 유기농산물 37~52%, 무농약 32~44% 수준 등으로 나타남<표 3-3>.
- 친환경농산물 비 구입자의 경우 친환경농산물 가격 수준이 일반농산물에 비해 평균 69% 정도 더 높은 것으로 인지하고 있으며, 구입 가능한 적정가격 수준은 평균 40% 정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친환경농산물 비 구입자의 경우 앞으로 가격 프리미엄 수준이 현재보다 평균 29% 정도 떨어지면 친환경농산물 구입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표 3-3.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시장구입가격 및 적정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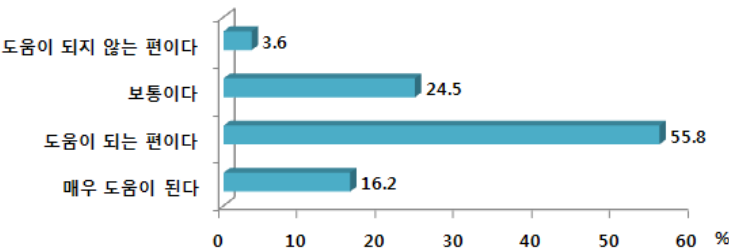
단위: 원

구 분		현재가격		적정가격	
		유기	무농약	유기	무농약
구입 경험자	곡류	1,783 (178)	1,481 (148)	1,517 (152)	1,441 (144)
	엽채류	1,591 (159)	1,504 (150)	1,372 (137)	1,317 (132)
	과채류	1,785 (179)	1,507 (151)	1,476 (148)	1,416 (142)
	과실류	1,506 (151)	1,693 (169)	1,497 (150)	1,381 (138)
평 균		1,666 (167)	1,546 (155)	1,466 (147)	1,388 (139)
비구입자		1,694(169)		1,395(140)	

주: ()는 일반농산물을 100으로 했을 때의 친환경농산물 가격지수를 나타냄.

- 친환경농산물 섭취로 인한 건강증진 여부에 대해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72.0%, ‘보통이다’ 24.5% 등으로 분석됨<그림 3-7>.

그림 3-7. 친환경농산물 구매 후 건강증진 여부



○ 건강증진 여부를 안전성 신뢰수준별로 살펴보면 안전성 신뢰를 ‘매우 낮음’과 ‘낮음’이라고 응답한 소비자의 경우 건강증진도별 응답비중의 가중평균이 22.6%로 나타난 데 비해, ‘높음’과 ‘매우 높음’으로 응답한 소비자의 경우 32.5%로 안전성 신뢰수준이 높은 소비자의 가족건강증진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변수들 간 독립성 테스트는 카이자승(χ^2) 검정을 이용하였음(통계량: 95.554, p-value: 0.000). 이는 안전성을 제고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 수준을 높일 경우 소비를 촉진하여 가족건강 증진에 기여함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음.

표 3-4. 안전성 신뢰수준별 건강증진 기여도

단위: %

구 분		건강증진					가중평균 ¹⁾
		도움 안되는 편	보통	도움 되는 편	매우 도움됨	합계	
안 전 성 신 뢰	매우 낮음	40.0	40.0	0.0	20.0	100.0	20.0
	낮음	15.8	26.3	47.4	10.5	100.0	25.3
	보통	5.3	34.7	53.5	6.5	100.0	26.1
	높음	0.5	11.0	65.4	23.1	100.0	31.1
	매우 높음	0.0	13.0	34.8	52.2	100.0	33.9
	낮음	27.9	33.2	23.7	15.3	100.0	22.6
	높음	0.3	12.0	50.1	37.6	100.0	32.5

주: 1) 가중평균치는 ‘도움 안되는 편’에 가중치 1, ‘보통’에 가중치 2 등을 차례로 부여하여 가중 평균한 값임.

- 건강증진 여부를 구입빈도별로 살펴보면 ‘6개월 이내 1회 이상’ 이라고 응답한 소비자의 경우 건강증진도별 응답비중의 가중평균이 25.2%로 나타난 데 비해, ‘1개월에 4회 이상’으로 응답한 소비자의 경우 29.8%로 자주 구입하는 소비자의 가족건강증진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p-value: 0.001).

표 3-5. 구입빈도별 건강증진 기여도

단위: %

구 분		건강증진					
		도움 안되는 편	보통	도움 되는 편	매우 도움됨	합계	가중 ¹⁾ 평균
구매 빈도	6개월 이내 1회 이상	9.7	35.5	48.4	6.5	100.0	25.2
	1개월에 1회 이상	2.2	24.9	61.9	11.0	100.0	28.2
	1개월에 4회 이상	4.3	17.6	53.5	24.6	100.0	29.8

주: 1) 가중평균치는 ‘도움 안되는 편’에 가중치 1, ‘보통’에 가중치 2 등을 차례로 부여하여 가중 평균한 값임.

- 단체회원 여부에 따른 건강증진도를 분석한 결과는 <표 3-6>과 같음. 단체비회원인 경우 건강증진도별 응답비중의 가중평균이 28.4%로 나타난 데 비해, 단체회원인 경우 30.1%로 단체회원인 소비자가 자주 그리고 지속적으로 소비함에 따라 가족건강증진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p-value: 0.025).

표 3-6. 단체회원 여부별 건강증진도

단위: %

구 분	건강증진도					
	도움되지 않는 편	보통	도움되는 편	매우 도움됨	전체	가중평균 ¹⁾
단체비회원	3.9	22.4	59.2	14.5	100.0	28.4
단체회원	2.9	22.1	45.6	29.4	100.0	30.1

주 1) 가중평균치는 ‘도움 안되는 편’에 가중치 1, ‘보통’에 가중치 2 등을 차례로 부여하여 가중 평균한 값임.

- 소비지속 여부에 따른 건강증진도를 분석한 결과는 <표 3-7>과 같음. 소비를 지속적으로 하지 않는 소비자의 경우 건강증진도별 응답비중의 가중평균이 25.4%로 나타난 데 비해, 소비를 지속하는 소비자의 경우 29.8%로 지속적으로 소비한 경우 가족건강증진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p-value: 0.000).

표 3-7. 소비지속 여부별 건강증진도

단위: %

구 분	건강증진도					가중평균 ¹⁾
	도움되지 않는 편	보통	도움되는 편	매우 도움됨	전체	
소비미지속	8.1	37.4	47.5	7.1	100.0	25.4
소비지속	2.3	17.3	60.0	20.3	100.0	29.8

주: 1) 가중평균치는 ‘도움 안되는 편’에 가중치 1, ‘보통’에 가중치 2 등을 차례로 부여하여 가중 평균한 값임.

- 아토피 유무에 따른 건강증진도를 분석한 결과는 <표 3-8>과 같음. 가족 중에 아토피가 없는 소비자의 경우 건강증진도별 응답비중의 가중평균이 28.6%로 나타난 데 비해, 아토피가 있는 소비자의 경우 29.4%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 통계적 유의성이 낮았음(p-value: 0.362).

표 3-8. 아토피 유무별 건강증진도

단위: %

구 분	건강증진도					가중평균 ¹⁾
	도움되지 않는 편	보통	도움되는 편	매우 도움됨	전체	
아토피 무	4.5	21.9	56.9	16.8	100.0	28.6
아토피 유	0.0	24.6	56.9	18.5	100.0	29.4

주: 1) 가중평균치는 ‘도움 안되는 편’에 가중치 1, ‘보통’에 가중치 2 등을 차례로 부여하여 가중 평균한 값임.

- 아토피가 있는 소비자만을 대상으로 단체회원 여부에 따른 건강증진도를 분석한 결과는 <표 3-9>와 같음. 단체비회원인 경우 건강증진도별 응답비중의 가중평균이 29.1%인 데 비해, 단체회원인 경우 30.9%로 단체회원인 소비자가 자주 그리고 지속적으로 소비함에 따라 가족건강증진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p-value: 0.009).

표 3-9. 단체회원 여부별 건강증진도(아토피 있는 소비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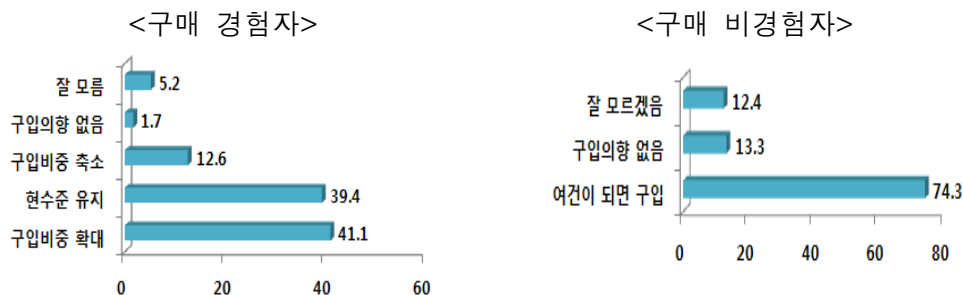
단위: %

구 분	건강증진도				
	보통	도움되는 편	매우 도움됨	전체	가중평균 ¹⁾
단체비회원	22.2	64.8	13.0	100.0	29.1
단체회원	36.4	18.2	45.5	100.0	30.9

주: 1) 가중평균치는 ‘도움 안되는 편’에 가중치 1, ‘보통’에 가중치 2 등을 차례로 부여하여 가중 평균한 값임.

-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 의향을 조사한 결과, 친환경농산물 구입경험자의 경우 ‘구입비중 확대’가 41.1%, ‘현 수준 유지’가 39.4%, ‘구입비중 축소’ 12.6% 등으로 나타나 현행 소비수준 유지 및 확대비중이 80.5%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또한 친환경농산물 비 구입자의 경우도 ‘앞으로 여건이 된다면 구입하겠다’는 반응이 74.3%로 경제성장으로 소득수준이 개선된다면 향후 친환경농산물을 구입하는 소비자 계층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임<그림 3-8>.

그림 3-8. 향후 친환경농산물 소비의향



- 소비의향을 소득별로 살펴보면 300만 원 미만인 소비자의 경우 소비의향별 응답비중의 가중평균이 31.7%로 나타난 데 비해, 400만 원 이상인 소비자의 경우 33.5%로 고소득층이 상대적으로 소비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p-value: 0.006).

표 3-10. 소득수준별 소비의향

단위: %

구 분		소비의향					
		구입의 향없음	구입비 중축소	현수준 유지	구입비 중확대	합계	가중평균 ¹⁾
소 득	200만 원 미만	0.0	11.8	47.1	41.2	100.0	32.9
	200-300만 원 미만	1.4	24.3	41.9	32.4	100.0	30.5
	300-400만 원 미만	1.8	13.5	40.5	44.1	100.0	32.7
	400-500만 원 미만	1.9	9.3	53.3	35.5	100.0	32.2
	500만 원 이상	2.2	8.9	27.8	61.1	100.0	34.8
	300만 원 미만	0.7	18.0	44.5	36.8	100.0	31.7
	400만 원 이상	2.0	9.1	40.5	48.3	100.0	33.5

주: 1) 가중평균치는 ‘구입의향없음’에 가중치 1, ‘구입비중축소’에 가중치 2 등을 차례로 부여하여 가중 평균한 값임.

- 소비의향을 질병 유무별로 살펴보면 가족 중에 아토피, 암, 당뇨, 고혈압이 없는 소비자의 경우 소비의향별 응답비중의 가중평균이 32.5%로 나타난 데 비해, 질병이 있는 소비자의 경우 33.0%로 가족 중 질병이 있는 가구의 소비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p-value: 0.009). 특히 질병이 있는 경우 현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높아 친환경농산물 섭취가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추정할 수 있음.

표 3-11. 질병 유무별 소비의향

단위: %

구 분		소비의향					
		구입의향 없음	구입비중 축소	현수준 유지	구입비중 확대	전체	가중평균 ¹⁾
질병	무	2.0	16.7	36.1	45.2	100.0	32.5
유무	유	1.4	7.5	51.0	40.1	100.0	33.0

주: 1) 가중평균치는 ‘구입의향 없음’에 가중치 1, ‘구입비중축소’에 가중치 2 등을 차례로 부여하여 가중 평균한 값임.

- 아토피와 고혈압 등 세부 질병별로 질병 유무에 따른 소비의향을 분석한 결과는 <표 3-12>와 같음. 가족 중에 아토피가 없는 소비자의 경우 소비의향별 응답비중의 가중평균이 32.5%로 나타난 데 비해, 아토피가 있는 소비자의 경우 33.1%로 가족 중 아토피가 있는 가구의 소비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p-value: 0.403). 또, 가족 중에 고혈압이 있는 소비자의 경우 소비의향별 응답비중의 가중평균이 32.5%로 나타난 데 비해, 고혈압이 있는 소비자의 경우 33.0%로 가족 중 아토피가 있는 가구의 소비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p-value: 0.050).

표 3-12. 아토피 유무별 소비의향

단위: %

구 분		소비의향					
		구입의향 없음	구입비중 축소	현수준 유지	구입비중 확대	전체	가중평균 ¹⁾
아토피	무	2.1	14.1	40.1	43.7	100.0	32.5
아토피	유	1.5	7.7	49.2	41.5	100.0	33.1

주: 1) 가중평균치는 ‘구입의향 없음’에 가중치 1, ‘구입비중축소’에 가중치 2 등을 차례로 부여하여 가중 평균한 값임.

표 3-13. 고혈압 유무별 소비의향

단위: %

구 분	소비의향					
	구입의향 없음	구입비중 축소	현수준 유지	구입비중 확대	전체	가중평균 ¹⁾
고혈압 무	2.5	14.2	38.7	44.6	100.0	32.5
고혈압 유	0.0	7.9	53.9	38.2	100.0	33.0

주 1) 가중평균치는 ‘구입의향없음’에 가중치 1, ‘구입비중축소’에 가중치 2 등을 차례로 부여하여 가중 평균한 값임.

- 소비의향을 가족 건강증진도별로 살펴보면 도움이 안된다고 응답한 소비자의 경우 소비의향별 응답비중의 가중평균이 26.0%로 나타난 데 비해,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소비자의 경우 35.2%로 가족건강증진을 경험한 소비자의 소비의향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p-value: 0.000).

표 3-14. 건강증진도별 소비의향

단위: %

구 분		소비의향					
		구입의향 없음	구입비중 축소	현수준 유지	구입비중 확대	합계	가중평균 ¹⁾
건강 증진	도움되지 않는 편	13.3	40.0	20.0	26.7	100.0	26.0
	보통	4.5	32.6	40.4	22.5	100.0	28.1
	도움되는 편	0.4	7.5	46.7	45.4	100.0	33.7
	매우 도움됨	0.0	1.5	30.9	67.6	100.0	36.6
	도움 안됨	13.3	40.0	20.0	26.7	100.0	26.0
	도움됨	0.2	4.5	38.8	56.5	100.0	35.2

주: 1) 가중평균치는 ‘구입의향 없음’에 가중치 1, ‘구입비중축소’에 가중치 2 등을 차례로 부여하여 가중 평균한 값임.

3.2.3. 친환경농산물 소비의향분석

- 설문조사 자료를 기초로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의향 요인을 분석하였음. 유기농제품 소비의향을 증가, 현수준 유지, 감소 등 순위를 가지는 것으로 파악하여 순서형 로짓모형을 선택하였음.
- 소비의향 분석의 종속변수는 소비의향이 ‘구입비중 확대’로 응답한 경우 2로 ‘현수준 유지’로 응답한 경우 1로 ‘구입비중을 축소하거나 구입의향 없음’인 경우 0으로 나타내었음. 소비의향 분석의 설명변수로 나이, 소득, 학력, 친환경농산물 구입비중, 가격비 품질만족도, 건강증진도 등을 설정하였으며, 각 변수는 5점 리커트 스케일로 나타내었음. <표 3-15>는 분석에 이용된 설명변수의 기초통계량을 보여주고 있음. 나이의 평균은 2.5, 소득 3.5, 학력 2.8 등이고, 친환경농산물 구입비중 평균은 36% 정도로 나타났음.

표 3-15. 설명변수의 기초통계량

설명변수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나이	1.00	5.00	2.5113	0.82623
소득	1.00	5.00	3.4486	1.15256
학력	1.00	4.00	2.8296	0.53145
친환경구입비중	2.00	100.00	35.7444	19.57038
품질만족도	1.00	5.00	3.4561	0.65926
건강증진도	2.00	5.00	3.8722	0.72722
소비지속 여부	0.00	1.00	0.7519	0.43246

- 친환경농산물 소비의향에 대한 순위형 로짓모형의 주요 추정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음. 첫째 고소득자일수록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를 증가시킬 것으로 나타났음. 또, 가격비 품질만족도와 건강 증진도가 높을수록 소비를 늘릴 것으로 나타났음. 현재 친환경구입비중이 높거나 지속적으로 소비

하는 고객충성도가 높은 소비자의 소비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나이와 학력은 기대되는 부호가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못하였음.

표 3-16. 소비의향요인 추정결과

설명변수		B 추정값 ¹⁾	표준 오차	Wald ²⁾	오즈비 ³⁾		
					평균	하한	상한
한계치	[소비의향=0]	2.204**	1.043	4.469	9.063	1.174	69.947
	[소비의향=1]	4.626***	1.017	20.676	102.055	13.898	749.391
	[소비의향=2]	7.057***	1.054	44.816	1,160.912	147.064	9,164.154
위치	나이	-0.008	0.126	0.004	0.992	0.776	1.269
	소득	0.265***	0.095	7.756	1.304	1.082	1.571
	학력	0.050	0.201	0.061	1.051	0.708	1.560
	친환경구입비중	0.017***	0.005	9.369	1.017	1.006	1.028
	품질만족도	0.396**	0.164	5.798	1.485	1.076	2.050
	건강증진도	0.973***	0.159	37.684	2.647	1.940	3.612
	[소비지속=1]	0.467*	0.247	3.572	1.594	0.983	2.587
모형적합도		-2Log-Likelihood: 829.275 Chi-Square(χ^2): 99.476 (P=0.000)					

주: 1) ***, **, *은 각 1%, 5%, 10% 수준에서 유의수준을 나타냄.

2) Wald 통계량은 각 공변량의 회귀계수에 대한 유의성을 검정하기 위해 사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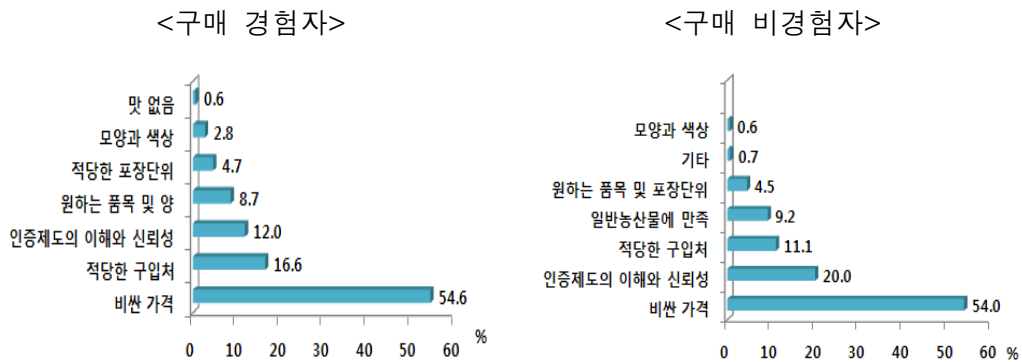
3) 오즈비(odds ratio)는 임의의 사건이 나타날 확률의 상대적 가능성을 나타내며 한계효과를 설명함.

3.2.4.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개선사항

- 친환경농산물 구입 경험자의 친환경농산물 구입 시 애로사항과 관련하여 ‘가격이 비싸서’가 54.6%, ‘적당한 구입처를 찾기 어려워’가 16.6%,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대한 이해와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이 12.0%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친환경농산물 비 구입자의 경우에도 ‘가격이 비싸서’가 54.0%로 가장 많았고,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대한 이해와 신뢰가 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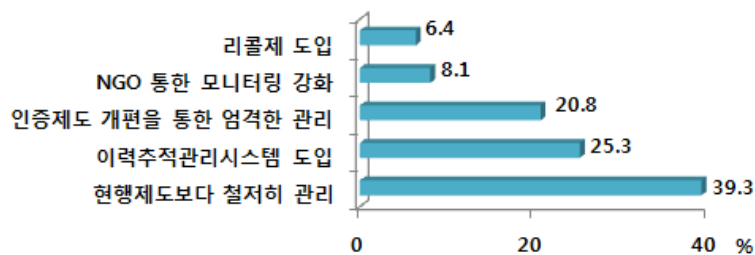
족하기 때문'이 20.0%로 나타남<그림 3-9>.

그림 3-9. 친환경농산물 구입 애로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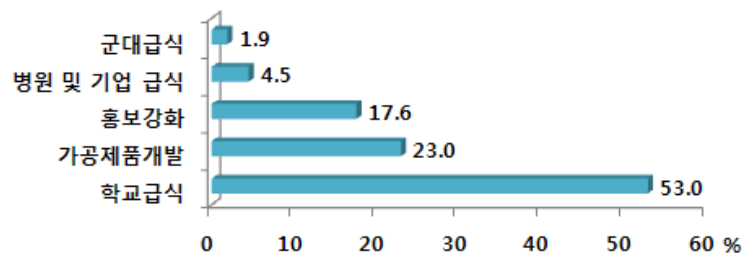
- 친환경농산물 신뢰도 제고 방안으로 현행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를 보다 철저하게 관리(39.3%), 이력추적관리시스템 도입(25.3%), 인증제도 개편을 통한 엄격한 관리(20.8%) 순으로 나타남<그림 3-10>.

그림 3-10. 친환경농산물의 신뢰도 제고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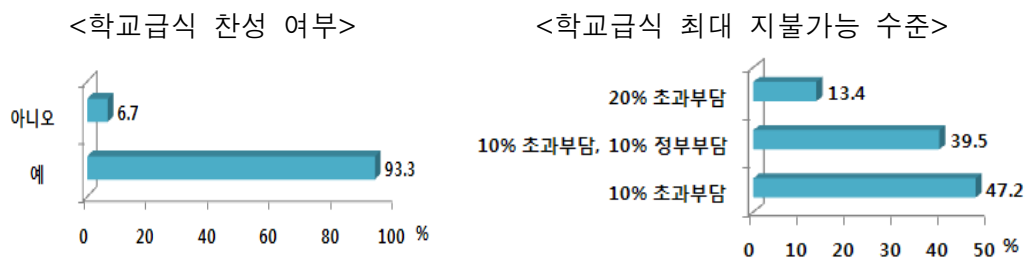
- 친환경농산물의 판로 확대를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 ‘학교급식 확대’ 53.0%, ‘친환경농산물을 이용한 가공제품 개발’ 23.0%, ‘홍보 활동 강화’ 17.6% 등의 순으로 나타남<그림 3-11>.

그림 3-11. 판매확대를 위한 수요처 발굴에 대한 의견



- 미취학 아동이나 초중고 자녀를 둔 가구를 대상으로 친환경농산물 급식제 사용에 대한 반응조사 결과 약 93%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남. 친환경농산물을 학교 급식에 사용할 경우 지불 가능한 급식비용은 ‘10% 초과부담 가능’이 47.2%로 가장 높았고, ‘10% 초과부담, 10% 정부부담’이 39.5%, ‘20% 초과부담 가능’이 13.4%로 나타남<그림 3-12>.

그림 3-12. 학교급식 찬성 여부 및 최대 지불가능 수준



2. 친환경농가공식품 소비실태

2.1. 조사개요

- 친환경농가공식품에 대한 소비성향과 구매행태를 살펴보기 위해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 거주하는 주부를 대상으로 소비자 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조사기간: 2011. 12. 30~2012. 1. 6). 조사대상자는 친환경농가공식품 구입경험자 413명, 비경험자 105명 등 총 518명임.
- 조사가구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살펴보면, 응답자 연령은 20대가 42명(8.1%), 30대가 232명(44.8%), 40대가 179명(34.6%), 50대 이상이 65명(12.6%)으로 30~40대가 73.7%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교육수준은 대졸 이상이 73.7%, 고졸 이하가 26.3%이었음.
- 응답자의 소득수준은 200만 원 미만인 7.3%, 200만 원대 17.4%, 300만 원대 28.2%, 400만 원대 24.7%, 500만 원 이상이 22.4%를 차지하였음. 조사대상자의 주부유형은 전업주부가 47.1%를 차지하였으며, 미취학 또는 초·중·고생 자녀가 있는 가정이 80.2%로 대부분이었음.
- 가족구성원의 건강질환(아토피 피부질환 등) 경험유무를 묻는 질문에서는 전체응답자의 34.7% 정도가 질환 여부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표 3-17. 친환경농가공식품 소비자의 사회·경제적 특성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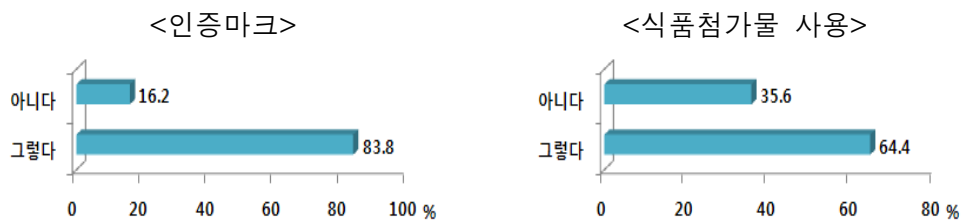
구 분		응답수	비중
거주지역	서울	271	52.3
	수도권	247	47.7
연령대	20대	42	8.1
	30대	232	44.8
	40대	179	34.6
	50대 이상	65	12.6
교육수준	고졸 이하	136	26.3
	대졸	344	66.4
	대졸 이상	38	7.3
소득수준	200만 원 미만	38	7.3
	200만 원대	90	17.4
	300만 원대	146	28.2
	400만 원대	128	24.7
	500만 원 이상	116	22.4
주부유형	전업주부	244	47.1
	부업주부	36	6.9
	취업주부	238	45.9
성장지역	대도시	365	70.5
	중소도시	122	23.6
	농촌	31	6
미취학 및 초중고생 자녀 유무	있다	362	69.9
	미취학 및 초등학교	233	45.0
	중고등학교	71	13.7
	미취학과 초중고생	58	11.2
	없다	156	30.1
가족구성원 질환 유무	있다	180	34.7
	없다	338	65.3
친환경농산물 지속소비 여부	그렇다	305	58.9
	아니다	213	41.1
소비자단체 회원 여부	그렇다	74	14.3
	아니다	444	85.7
계		518	100

2.2. 분석결과

2.2.1. 친환경농가공식품 구입패턴

- 친환경농가공식품 구매 시 인증마크를 확인한다는 응답은 83.8%로 많은 소비자들이 친환경농가공식품을 구입할 때 인증마크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또한 친환경농가공식품 제조 시 사용된 식품첨가물을 확인하고 구입한다는 의견도 64.4%로 높게 나타남<그림 3-13>.

그림 3-13. 친환경농가공식품 구입시 ‘인증마크’ 및 ‘식품첨가물’ 확인 여부



- 품목별 한달 평균 구매 횟수는 신선반찬류(김치, 두부, 장아찌 등) 2.3회, 과자류 2.1회, 밀가공품(밀가루, 면류, 빵류 등)이 1.9회, 음료류 1.8회 등으로 나타남<표 3-18>.

표 3-18. 품목별 한달 평균 구매 횟수

단위: 회

구분	구매 횟수
쌀가공식품(떡류, 죽류 등)	1.5
밀가공식품(밀가루, 면류, 빵류 등)	1.9
유아식/분유	1.6
신선반찬류(김치, 두부, 장아찌 등)	2.3
조미양념류(조미료, 장류, 기름류 등)	1.2
다류(녹차, 둥글레차 등)	1.1
음료류(사과주스, 포도즙, 양과주스 등)	1.8
과자류(쿠키, 스낵, 씨리얼 등)	2.1
기타(잼류, 유가공품 등)	1.3

- 친환경농가공식품 구입 장소로 대형할인점이 40.3%, 농협계통(하나로클럽, 하나로마트) 15.0%, 친환경농산물 전문매장 13.8%, 직거래단체 11.2%, 백화점 7.1% 등의 순으로 나타남<그림 3-14>.

- 위의 구입처를 선택한 이유로는 ‘구입의 편리성’ 32.9%, ‘판매처나 판매자에 대한 신뢰’ 27.1%, ‘다양한 품목단위와 지속적인 공급’ 17.5%, ‘타 판매처에 비해 저렴한 가격’ 16.2% 등으로 나타남<그림 3-15>.

그림 3-14. 주요 구입장소(구매 경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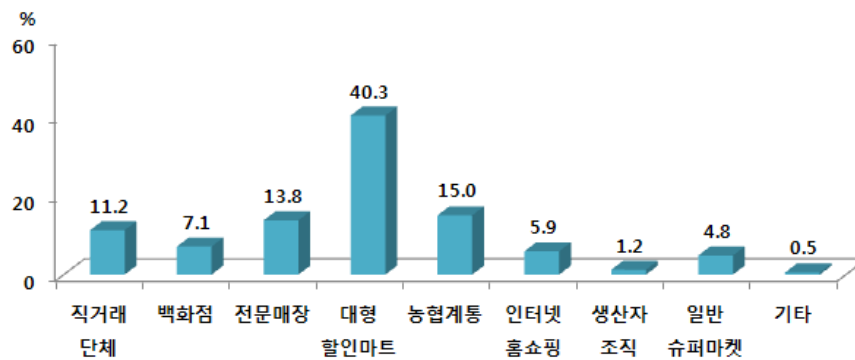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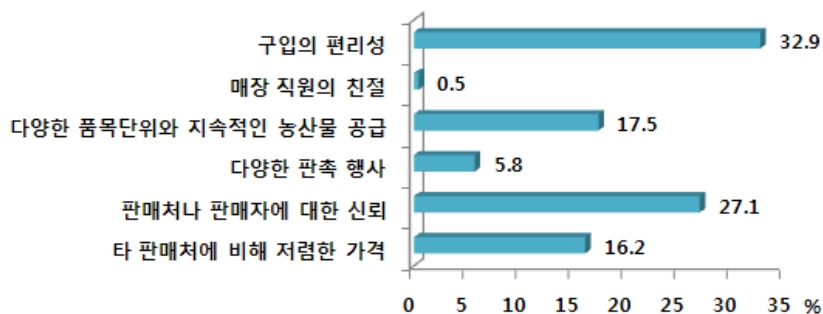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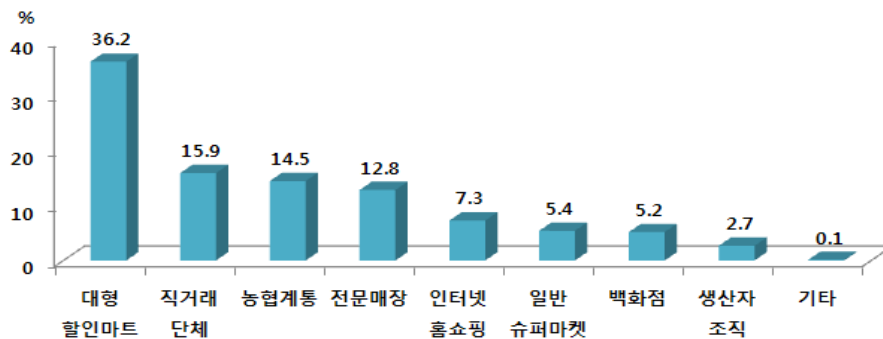


그림 3-15. 친환경가공식품 구입처를 선택한 이유(1순위+2순위)



- 향후 친환경농가공식품을 구입하기로 희망하는 곳은 ‘대형할인마트 36.2%’, ‘직거래 단체’ 15.9%, ‘농협계통’ 14.5%, ‘전문매장’ 12.8% 등으로 나타남 <그림 3-16>.

그림 3-16. 향후 친환경농가공식품 구입 희망처(구매 경험자)



- 친환경농가공식품 구입 시 ‘안전성’ 37.4%, ‘가격’ 13.5%, ‘주산지’ 10.9%, 등의 순으로 고려하며<그림 3-17>, 특히 첨가물, 영양소, 원산지, 가격 등의 품질속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표 3-19>.

그림 3-17. 친환경농가공식품 구입 시 고려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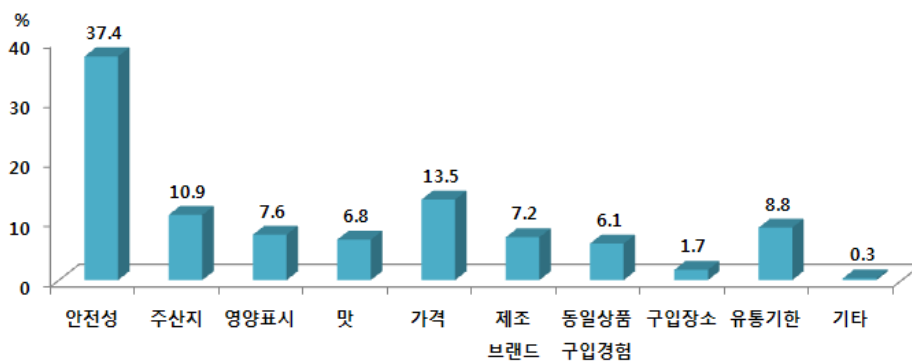


표 3-19. 친환경농가공식품 구입 시 품질 속성별 고려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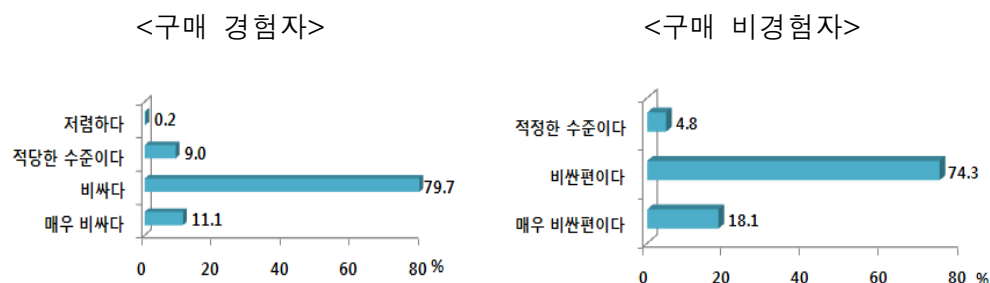
단위: %

	매우 중요	중요	보통	중요하지 않음	매우 중요하지 않음
원산지	31.5	60.8	6.8	0.9	-
가격	24.2	66.6	8.7	0.5	-
영양소	32.0	57.6	9.4	1.0	-
맛	25.2	62.2	12.3	0.3	-
색깔	9.4	39.7	43.6	6.8	0.5
용기	9.2	33.7	47.2	9.2	0.7
제품 브랜드	12.1	49.6	35.1	2.7	0.5
농도/たく도	11.9	47.2	38.0	2.9	-
첨가물	48.7	43.6	7.2	0.5	-

2.2.2. 친환경농가공식품 소비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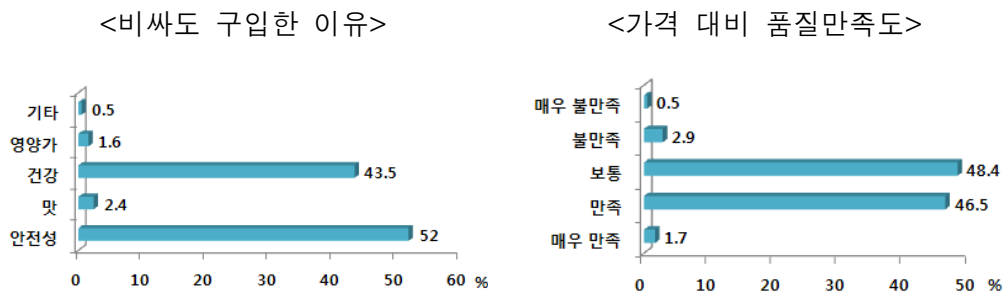
- 구매경험자와 비경험자 모두 친환경농가공식품의 가격에 대해 비싸다는 응답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비경험자의 경우 비싸다고 인식한 비중이 더 높았음.

그림 3-18. 친환경농가공식품 가격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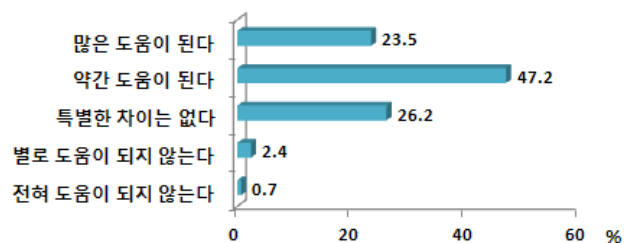
- 친환경농가공식품의 가격에 대해 비싸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으며, 비싸도 구입하는 이유는 ‘안전성’ 52.0%, ‘건강’ 43.5%로 나타남<그림 3-19>. 친환경농가공식품의 가격 대비 제품(품질) 만족도는 ‘만족’ 이상이 48.2%로 다소 높았음.

그림 3-19. 비싸도 구입하는 이유와 가격비 품질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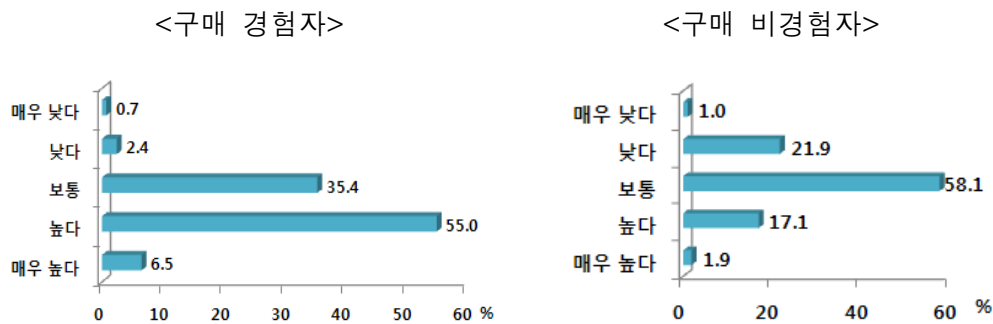
- 국산 유기가공식품 섭취로 인한 건강증진 여부에 대해 ‘약간 도움이 된다’가 47.2%, ‘많은 도움이 된다’가 23.5%로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70.7%로 높게 나타났음<그림 3-20>.

그림 3-20. 친환경농가공식품 구입 후 건강증진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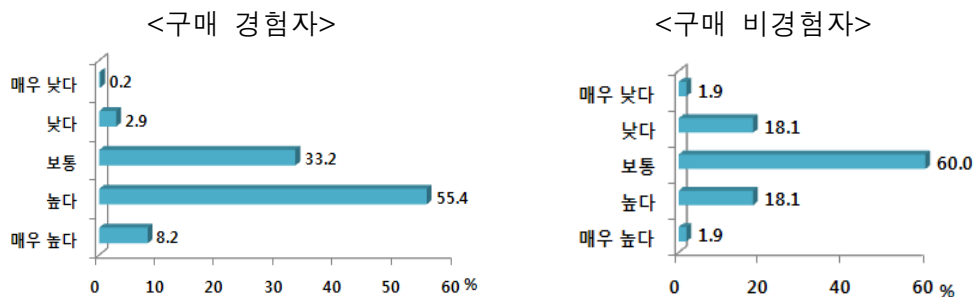
-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에 대한 구매경험자의 만족수준은 ‘높다’는 응답이 61.5%로 비경험자의 19.0%보다 크게 높았음. 반면, 유기가공식품 구매 비경험자의 인증제도에 대한 만족수준이 ‘낮다’는 의견이 22.9%로 구매경험자에 비해 높게 나타남.

그림 3-21.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에 대한 만족수준



- 구매경험자 가운데 유기가공식품의 안전성이 ‘높다’는 응답이 63.6%이나 비경험자는 20.0%에 그침. 반면, 안전성이 낮다는 응답이 구매경험자는 3.1%이나 비경험자는 20.0%로 높게 나타남.

그림 3-22. 유기가공식품 안전성에 대한 만족수준



- 국산 유기가공식품에 대한 향후 지불의사는 구매 경험자가 평균 1,508원, 구매 비경험자가 1,404원으로 나타나 현재의 가격차 2배보다 크게 낮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음<표 3-20>.

표 3-20. 국산 유기가공식품 품목별 향후 지불의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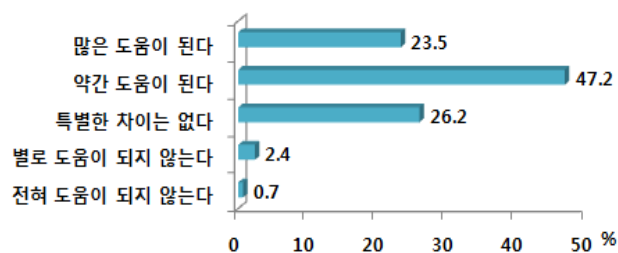
단위: 원

	일반 가공식품	유기가공식품		
		구매 경험자(A)	구매 비경험자(B)	A-B
쌀가공식품(떡류, 죽류 등)	1,000	1,578	1,481	97
밀가공식품(밀가루, 면류, 빵류 등)		1,500	1,349	151
유아식 / 분유		1,693	1,610	83
신선반찬류(김치, 두부, 장아찌 등)		1,540	1,350	190
조미양념류(조미료, 장류, 기름류 등)		1,538	1,390	148
다류(녹차, 둥글레차 등)		1,428	1,456	△28
음료류(사과주스, 포도즙, 양파주스 등)		1,444	1,356	88
과자류(쿠키, 스낵, 시리얼 등)		1,391	1,320	71
기타(잼류, 유가공품 등)		1,463	1,323	140
평 균		1,508	1,404	104

자료: 정학균·장정경(2011).

- 친환경농가공식품 섭취로 인한 건강증진 여부에 대해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70.7%, ‘특별한 차이는 없다’ 26.2% 등으로 분석되었음<그림 3-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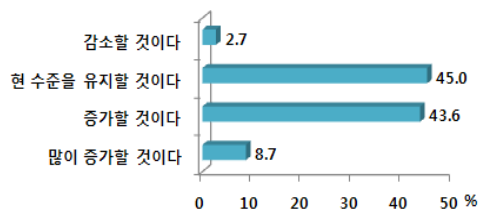
그림 3-23. 친환경농가공식품 구매 후 건강증진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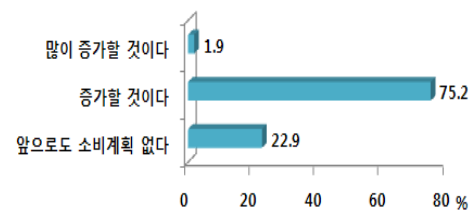
- 구매 경험자의 52.3%, 구매 비경험자의 77.1%가 장래에 건강을 위해 안전한 친환경농가공식품에 대한 소비를 늘리려 하고 있음<그림 3-24>.

그림 3-24. 향후 친환경농가공식품 소비의향

<구매 경험자>



<구매 비경험자>



- 향후 구입을 확대할 의향이 가장 높은 품목은 구입 경험자의 경우 ‘신선반찬류’ 26.2%와 ‘밀가공식품’ 17.7%, ‘쌀가공식품’ 14.0%로 나타났음<표 3-21>. 구입 비경험자의 경우 ‘신선반찬류’ 25.9%, ‘쌀가공식품’ 18.5%, ‘유아식/분유’ 17.3% 등의 순으로 구입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표 3-21. 향후 구입확대 의향 품목

단위: %

구입품목	경험자	비경험자
쌀가공식품(떡류, 죽류 등)	14.0	18.5
밀가공식품(밀가루, 면류, 빵류 등)	17.7	9.9
유아식/분유	6.5	17.3
신선반찬류(김치, 두부, 장아찌 등)	26.2	25.9
조미양념류(조미료, 장류, 기름류 등)	9.9	13.6
다류(녹차, 둥글레차 등)	4.1	1.2
음료류(사과주스, 포도즙, 양파주스 등)	10.4	11.1
과자류(쿠키, 스낵, 씨리얼 등)	7.7	2.5
기타(잼류, 유아공품 등)	3.4	-
합 계	100.0	100.0

- 소비의향을 소득별로 살펴보면 300만 원 미만인 소비자의 경우 소비의향별 응답비중의 가중평균이 24.0%로 나타난 데 비해, 400만 원 이상인 소비자의 경우 26.2%로 고소득층이 상대적으로 소비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p-value: 0.133).

표 3-22. 소득수준별 소비의향

단위: %

구 분		소비의향					
		감소	현수준 유지	증가	많이 증가	전체	가중평균 ¹⁾
소득	200만 원 미만	10.00	50.0	40.0	0.0	100.0	23.0
	200-300만 원 미만	4.3	50.7	36.2	8.7	100.0	24.9
	300-400만 원 미만	0.9	47.4	40.4	11.4	100.0	26.2
	400-500만 원 미만	0.9	43.9	50.0	5.3	100.0	26.0
	500만 원 이상	4.2	38.5	45.8	11.5	100.0	26.5
	300만 원 미만	7.2	50.4	38.1	4.3	100.0	24.0
	400만 원 이상	2.5	41.2	47.9	8.4	100.0	26.2

주: 1) 가중평균치는 ‘감소’에 가중치 1, ‘현수준유지’에 가중치 2 등을 차례로 부여하여 가중 평균한 값임.

- 소비의향을 가족 건강증진도별로 살펴보면 도움이 안된다고 응답한 소비자의 경우 소비의향별 응답비중의 가중평균이 25.5%로 나타난 데 비해,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소비자의 경우 27.6%로 가족건강증진을 경험한 소비자의 소비의향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p-value: 0.000).

표 3-23. 건강증진도별 소비의향

단위: %

		소비의향					
		감소	현수준 유지	증가	많이 증가	전체	가중평균 ¹⁾
건강 증 진	매우 도움안됨	00	33.3	33.3	33.3	100.0	30.0
	도움안됨	10.0	80.0	00	10.0	100.0	21.0
	보통	5.6	61.1	28.7	4.6	100.0	23.2
	도움됨	2.1	44.1	50.3	3.6	100.0	25.5
	매우 도움됨	00	25.8	51.5	22.7	100.0	29.7
	도움안됨	5.0	56.7	16.7	21.7	100.0	25.5
	도움이됨	1.0	34.9	50.9	13.1	100.0	27.6

주: 1) 가중평균치는 ‘감소’에 가중치 1, ‘현수준유지’에 가중치 2 등을 차례로 부여하여 가중 평균한 값임.

2.2.3. 친환경농가공식품 소비촉진을 위한 개선사항

- 친환경농가공식품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구매경험자는 ‘인증제도의 개선 및 관리강화’, ‘제조방법 및 과정을 명확하게 공개’, ‘원재료의 산지 및 생산자 공개’ 등의 순으로 필요하다고 분석되었으나, 비경험자는 ‘원재료의 산지 및 생산자 공개’, ‘인증제도의 개선 및 관리강화’, ‘제조방법 및 과정을 명확하게 공개’ 등의 순으로 필요하다고 나타남<그림 3-28>.
- 친환경농가공식품 구입 확대를 위해서 구매 경험자는 가격인하(37.8%), 신뢰제고(37.3%), 취급매장 증가(11.6%) 등이 필요하고, 구매 비경험자는 가격인하(46.7%), 신뢰제고(35.2%)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음<그림 3-25>.

그림 3-25. 친환경농가공식품 신뢰도 향상 위한 필요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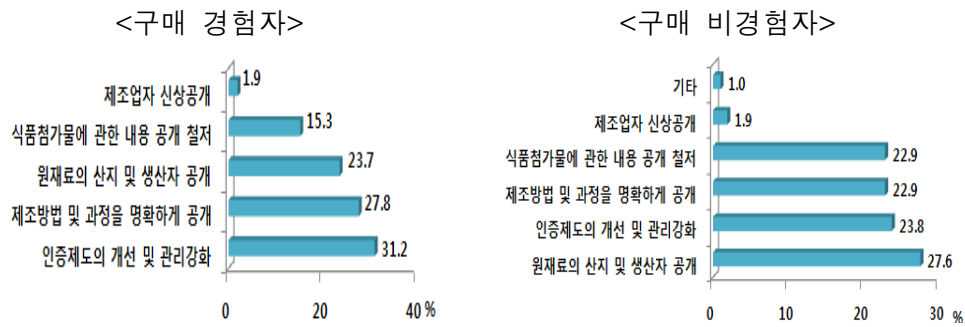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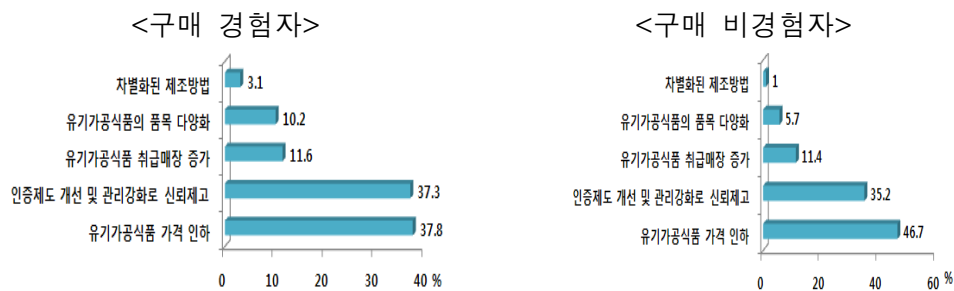


그림 3-26. 향후 구입확대 위한 필요사항



3. 설문조사의 시사점

- 수도권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친환경농식품에 대한 구매패턴, 향후소비의향, 지불의향 등을 조사하였음. 설문조사 자료를 기초로 소비자들의 친환경농식품의 구매행태와 향후 소비의향을 분석하고,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음.
- 첫째, 향후 친환경농식품에 대한 소비의향을 조사한 결과 구입 경험자와 비경험자 모두 향후 소비를 증가시킬 것이라고 응답하였음. 친환경농산물 구

매경험자의 41.1% 비구매경험자의 74.3%, 친환경농가공식품의 경우 구매경험자의 52.3%, 비구매경험자의 77.1%가 소비를 늘릴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소비자들의 필요를 적절하게 충족시킬 경우 잠재적 소비량이 상당히 많음을 시사하고 있음.

- 둘째, 친환경농식품 소비촉진을 위한 개선사항으로 친환경농산물과 친환경농가공식품 모두 ‘가격인하’를 가장 우선순위로 꼽았고, 적당한 구입처, 인증제도의 개선 등을 그 다음으로 꼽았음. 구입경험자의 유기농산물의 가격프리미엄은 51~79%, 적정 프리미엄은 37~52%로 나타났고, 유기가공식품의 가격프리미엄은 100%, 적정 프리미엄은 50%로 나타났음. 유기농산물은 약 20% 정도, 유기가공식품은 약 50% 정도 가격프리미엄을 떨어뜨린다면 소비를 확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구입비경험자의 경우 친환경농산물 29%, 유기가공식품 60% 정도 가격프리미엄을 떨어뜨린다면 구입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셋째, 친환경농식품 구입장소로 친환경농산물과 가공식품 모두 대형할인점이 4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구입장소를 선택하는 데 있어 소비자들은 구입의 편리성을 가장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마케팅 전략이 편리성을 추구하는 소비자지향적으로 바뀌어야 함을 시사함.
- 넷째, 설문조사 결과 유기가공식품의 다양화는 낮은 순위로 응답하였지만 일반 가공제품에 비해 아이템이 한정되어 있다면 소비의 제약요인이 될 수 있을 것임. 따라서 국산 유기가공식품업체는 일반 가공식품의 아이템을 벤치마킹할 수도 있겠지만 소비에 있어 유기가공식품의 특징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품목류(유아식/분유, 쌀가공식품 등)를 중심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음.
- 다섯째, 가족 건강에 대한 기여도를 보면 친환경농산물의 경우 72.0%, 친환경농가공식품의 경우 70.7%로 높게 나타났음. 순위형 로짓분석 결과에서

건강증진도가 높다고 인식할수록 향후소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친환경농식품의 가족건강 증진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부각시켜 홍보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음.

- 여섯째, 친환경농산물의 가족건강 증진도는 안전성에 대한 신뢰수준이 높을수록, 구입빈도가 높을수록, 단체회원일수록 소비를 지속적으로 할수록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의향요인을 추정한 결과 소득, 친환경농산물 구입비중, 품질만족도, 건강증진도 등이 높을수록 소비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일곱째, 소비자들은 유기가공식품 구매 시 83.8%가 인증마크를 확인하고, 64.4%가 식품첨가물을 확인한다고 응답하여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매우 중시하고 있음. 따라서 인증기관의 책임성과 인증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인증기관의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인증기관에 대한 모니터링을 내실 있게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 여덟째,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차별적인 마케팅 전략이 필요함. 순위형 로짓분석 결과는 고소득자일수록 향후에 국산 유기가공식품의 소비를 증가시킬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소비촉진전략이 필요함. 예를 들어 백화점에서 유기가공식품의 구색을 갖추어 줌으로써 일괄구매가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임.

제 4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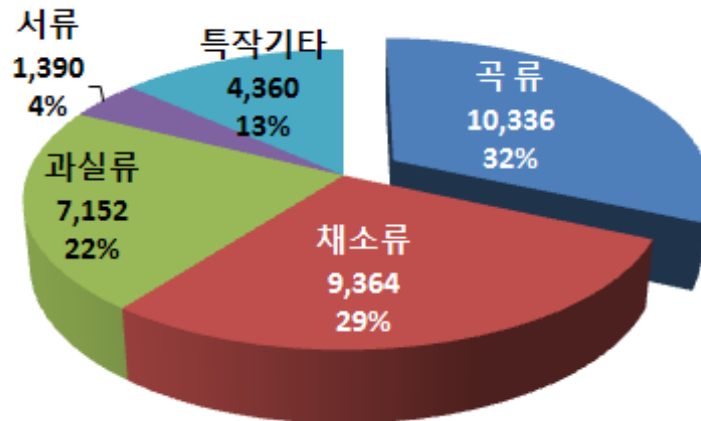
국내 친환경농식품의 시장규모 및 전망

1. 친환경농식품 시장규모

- 친환경농산물 시장규모는 친환경 농법별 재배면적에 단수를 적용하여 생산량을 추정하고 농법별로 시장으로 판매되는 양을 추정한 후, 유통업체의 수수료, 유통비용, 판매가격 등을 고려하여 개략적으로 추정하였음.
- 2011년 기준 친환경농산물의 시장 유통규모 추정결과 곡류의 유통규모는 약 1조 336억 원으로 전체 친환경농산물 유통규모의 31.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이 중에서 쌀이 7,546억 원으로 추정되었음. 또한 채소류는 9,364억 원으로 전체 유통규모의 28.7%를 차지하였고, 과일류는 전체 유통규모의 21.9%인 7,152억 원으로 뒤를 이었음.
- 따라서 2011년도 우리나라 친환경농산물 시장에서 거래되는 총규모는 2010년보다 3.8% 감소한 3조 2,60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됨. 시장규모가 과거의 추세와 달리 감소한 이유는 저농약 인증 생산량이 2010년에 비해 크게 감소하고 인증이 보다 강화되었기 때문임<표 4-1>.

그림 4-1. 친환경인증 농산물의 시장 유통규모(2011)

단위: 억 원



- 2011년도 우리나라 친환경농산물 시장규모를 유통단계별로 살펴보면 유기농이 16.5%인 5,364억 원, 무농약이 47.9%인 1조 5,627억 원, 저농약이 35.6%인 1조 1, 611억 원으로 나타났음. 무농약인증 시장규모가 처음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됨<표 4-2>.

표 4-1. 친환경인증 농산물의 시장 유통규모(2011)

단위: 억 원, %

구 분	곡 류		채소류	과실류	서류	특작기타	계
		쌀					
유통규모	10,336	7,546	9,364	7,152	1,390	4,360	32,602
비중(%)	31.7	23.1	28.7	21.9	4.3	13.4	100.0

주: 2011년도 친환경농산물 유통규모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출하량 잠정치율 적용하여 추정하였음.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추정치(2012).

표 4-2. 친환경 농산물의 인증단계별 시장 유통규모(2011)

단위: 억 원, %

	유기농	무농약	저농약	계
곡류	3,259	5,964	1,112	10,336
- 쌀	1,137	5,349	1,060	7,546
- 기타	2,122	615	52	2,789
채소류	1,007	4,421	3,937	9,364
과실류	139	642	6,371	7,152
서류	111	1,158	120	1,390
특작기타	848	3,441	70	4,360
계	5,364	15,627	11,611	32,602
비중	16.5	47.9	35.6	100.0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2).

2. 친환경농산물 시장 전망

- 친환경농산물의 향후 시장 유통규모는 친환경농업 발전 속도에 따라 크게 달라질 것임. 따라서 향후 2020년까지의 친환경농산물 시장 유통규모 전망치는 친환경농산물 시장(소매단계)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되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성장세가 점차적으로 둔화될 것이라는 가정 하에 추정하였음. 더 나아가 2010년 저농약 신규인증제 폐지에 이어 2016년 저농약 인증제 완전폐지 등의 예상되는 중요 정책적 변화를 고려하였음. 즉 저농약인증으로 재배하고 있는 농가가 신규인증이 중단됨에 따라 저농약인증 시장규모가 감소하고 일부 유기와 무농약으로 전환(농식품부 전화조사 결과를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가정함.

- 2012년의 친환경농산물 거래규모는 2011년 대비 12.9% 정도 증가한 3조 6,800억 원으로 증가하며, 2013년에는 3조 9,845억 원, 2015년에는 4조 8,329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었음. 이는 저농약인증 농산물 시장규모가 감소하는 속도보다 유기와 무농약인증 농산물 시장규모의 증가속도가 보다 빠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임. 여기에는 2012년부터 유기와 무농약 농산물 직접지불금이 대폭 상승되어 이들 인증단계의 재배면적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는 정책적 변수가 고려됨. 2016년부터 저농약인증제가 완전히 폐지됨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시장규모 증가세가 주춤하겠으나, 이후 점차 회복되어 2020년에는 전체 농산물 시장규모의 20.2%인 6조 9,246억 원이 될 것으로 나타났음<표 4-3>.

표 4-3. 품목별 친환경농산물 시장규모 전망

단위: 억 원

구 분	2008	2010	2011	2012	2013	2015	2017	2020
곡 류	7,751	9,216	10,336	12,180	14,116	18,785	23,712	29,684
	쌀	7,218	7,998	7,546	8,844	10,163	13,381	20,936
	기타	533	1,218	2,789	3,337	3,953	5,404	8,748
채소류	8,386	12,046	9,364	10,450	11,097	13,070	14,650	18,340
과실류	4,195	7,641	7,152	7,308	6,530	5,445	2,741	3,431
서 류	1,144	1,005	1,390	1,644	1,915	2,566	3,262	4,084
특작·기타	3,143	3,966	4,360	5,218	6,185	8,464	10,949	13,706
총 계	24,619	33,874	32,602	36,800	39,845	48,329	55,313	69,246

주: 친환경농산물 시장전망은 2020년을 목표연도로 설정하고 종류별로 증가율이 체감하는 것으로 가정하여 추정하였음. 2012년 이후 저농약인증 농산물 중 무농약인증 진입은 15% 내외, 2016년에는 20~35%로 가정하여 전망하였음.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2).

- 인증단계별 친환경농산물 시장규모를 살펴보면 유기농산물의 경우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1년 5,364억 원에서 2012년 6,754억 원, 2015년 1조 724억 원, 2020년 1조 7,536억 원이 될 것으로 전망됨. 무농약의 경우도 2011년 1조 5,627억 원에서 2012년 2조 177억 원, 2015년 3조 1,544억 원, 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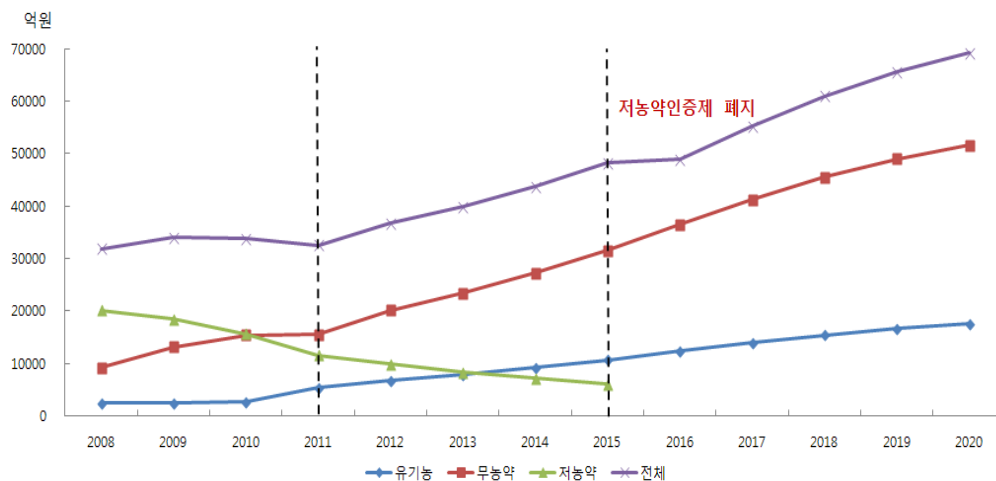
5조 1,709억 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저농약의 경우는 2011년 1조 1,611억 원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5년 6,061억 원이 될 것으로 전망됨<표 4-4>, <그림 4-2>.

표 4-4. 인증단계별 친환경농산물 시장규모 전망

단위: 억 원

	2008	2010	2011	2012	2013	2015	2017	2020
유기농	2,536	2,755	5,364	6,754	7,930	10,724	14,008	17,536
무농약	9,193	15,448	15,627	20,177	23,526	31,544	41,305	51,709
저농약	20,198	15,672	11,611	9,869	8,389	6,061	-	-
전체	31,927	33,874	32,602	36,800	39,845	48,329	55,313	69,246

그림 4-2. 인증단계별 친환경농산물 시장전망(2016년 이후 저농약 폐지 시)



주: 저농약인증의 경우 2010년부터 신규인증 중단, 2016년 이후 저농약인증제 완전 폐지를 적용함.

3. 유기가공식품 시장전망

- 우리나라 2008년도 국내 유기가공식품 시장 규모는 매출액 기준으로 2,158억 원에 달할 것으로 조사되었음<표 4-5>.
 - 국산원료를 사용한 것이 296억 원(7.3 %), 수입원료를 사용한 제품은 1,547억 원(38.3 %), 수입 완제품은 315억 원(7.8 %)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4-5. 국내 유기가공식품 시장규모(2008)

단위: 억 원, %

구분	판매액	구성비
국 산	1,843	85.4
(국산원료)	(296)	(13.7)
(수입원료)	(1,547)	(71.7)
수 입	315	14.6
합 계	2,158	100.0

자료: 박성훈(2008).

- 국산 원료 국내생산 가공식품 시장의 경우 유기면적 재배면적 증가율¹을 적용하여 산출하였음. 수입산의 경우는 국산이 증가함에 따라 유기농식품시장의 점유율이 확대되면서 증가하는 추세가 점차 둔화되는 것으로 가정하였음.
- 유기가공식품은 2011년 3,777억 원, 2015년 5,781억 원, 2020년 6,817억 원으로 추정되었음. 이 가운데 국내생산 유기가공식품은 2011년 3,219억 원, 2015년 4,937억 원, 2020년 5,867억 원으로 추정되었음<표 4-6>, <그림 4-3>.

¹ 유기재배면적의 전망치는 2020년 기준 전체 경지면적의 20%를 보급한다는 목표 하에 도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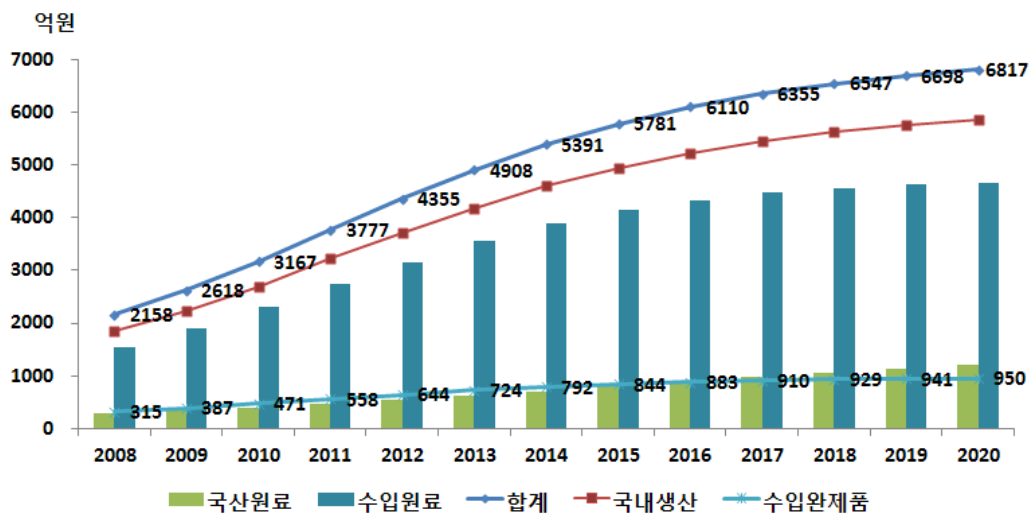
표 4-6. 유기가공식품의 시장규모 전망

단위: 억 원

	2008	2010	2011	2012	2013	2015	2017	2020
합계	2,158	3,167	3,777	4,355	4,908	5,781	6,355	6,817
국내생산	1,843	2,696	3,219	3,712	4,184	4,937	5,445	5,867
(국산원료 전체)	296	382	480	549	626	790	977	1,203
(수입원료 전체)	1,547	2,314	2,739	3,162	3,558	4,147	4,468	4,663
수입완제품	315	471	558	644	724	844	910	950

주: 국내생산의 국산원료는 유기재배면적의 증감률을 적용하였으며 유기재배면적의 전망치는 2020년 기준 전체 경지면적의 20%를 보급한다는 목표 하에 추정됨.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2012).

그림 4-3. 유기가공식품의 시장규모 전망



제 5 장

세계 유기농업 실천현황 및 시장규모

1. 세계 유기농업 생산현황²⁾

- 세계 유기농업은 빠르게 성장하여 2009년 현재 약 160개국에서 이행되고 있으며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음. IFOAM은 세계 유기농업 통계를 매년 발간하고 있어, 유기농업 관련 전문가들이 세계 유기농업의 실천현황을 파악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음.
- 유기농업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가장 잘 갖춘 지역은 유럽으로 전체 46개국 가운데 45개국이 자료를 구축하고 있음. 다음으로는 아시아 37개국(76%), 오세아니아 9개국(75%), 아프리카 38개국(67%), 라틴아메리카 29개국(64%), 북아메리카 2개국(40%)의 순으로 나타남.

2 세계 유기농업 실천현황 및 시장규모는 2011년 IFOAM에서 발간한 『The World of Organic Agriculture : Statistics and Emerging Trends 2011』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음.

표 5-1. 대륙별 유기농업 관련 자료 구축 현황(2009)

구 분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라틴 아메리카	북아메리카	오세아니아	합계
자료구축 국가 수	38	37	45	29	2	9	160
지역별 국가 수	57	49	46	45	5	13	214
자료 구축 비중(%)	67	76	98	64	40	69	75

자료: IFOAM(2011).

- 세계 유기농업 실천현황을 보면 2009년 기준 세계 총 유기농업면적은 약 7,920만ha로 2008년의 6,685만ha에서 무려 1,235만ha(18.5%) 증가하였음.
 - 대륙별로 보면 유럽이 2,147만ha로 가장 넓고 아프리카 1,746만ha, 라틴 아메리카 1,702만ha, 오세아니아 1,215만ha, 아시아 824만ha의 순이며, 북아메리카는 286만ha로 가장 적은 유기농업면적을 지니고 있음.
 - 대륙별로 일부 차이가 있으나 전반적으로 유기농업면적 가운데 농지와 야생채집/양봉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아프리카의 경우 총 유기농업면적 1,746만ha 중 야생채집/양봉이 1,642만ha로 약 94%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농지는 103만ha로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비중을 보임. 이와 대조적으로 북아메리카는 총 유기농업면적 286만ha 중 농지가 266만ha로 93% 정도를 차지하고 야생채집/양봉은 7% 정도임. 오세아니아도 1,215만ha의 총 유기농업면적 중 대부분이 농지로 이루어져 있음.
- 유기농경지(Organic agricultural land)는 논, 밭에서 유기농업 활동을 하는 농경지를, 기타 유기농업은 수경재배, 산림, 방목지, 야생채집, 양봉 등의 유기농업 활동을 이행하는 지역을 의미함.

그림 5-1. 세계의 유기농업 실천 면적(2009)



자료: IFOAM(2011).

- 대륙별 유기농업 실천 면적은 아시아와 라틴아메리카의 경우 유기농경지 면적과 기타 유기농업면적이 비슷한 비율이나, 유럽과 아프리카는 유기 기타 면적이 더 넓고 북아메리카는 유기농경지 면적이 더 넓으며, 오세아니아는 대부분 유기농경지 면적으로 봐도 무방할 정도로 유기농경지 면적이 압도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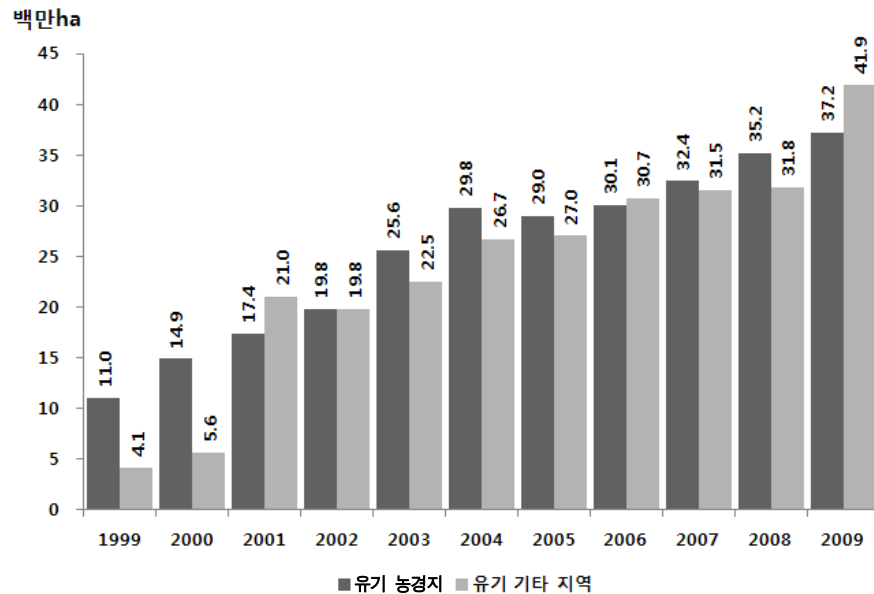
표 5-2. 대륙별 유기농업 실천현황(2009)

단위: ha, 호

구 분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라틴 아메리카	오세아니아	북아메리카	합 계
총 유기농업면적	17,456,374	8,241,652	21,467,647	17,022,426	12,152,158	2,862,855	79,203,112
유기농경지	1,026,632	3,581,918	9,259,934	8,558,910	12,152,108	2,652,624	37,232,127
기타 유기농업							
수경재배	-	428,852	-	4,532	-	-	433,384
산림	185	94	4,352	1,198	-	-	5,829
방목지	-	6,000	20,261	-	-	-	21,467,647
야생채집/양봉	16,429,557	4,224,787	12,183,100	8,457,786	50	210,231	41,505,511
농가수	511,661	731,315	257,545	283,066	8,466	17,069	1,809,122

자료: IFOAM(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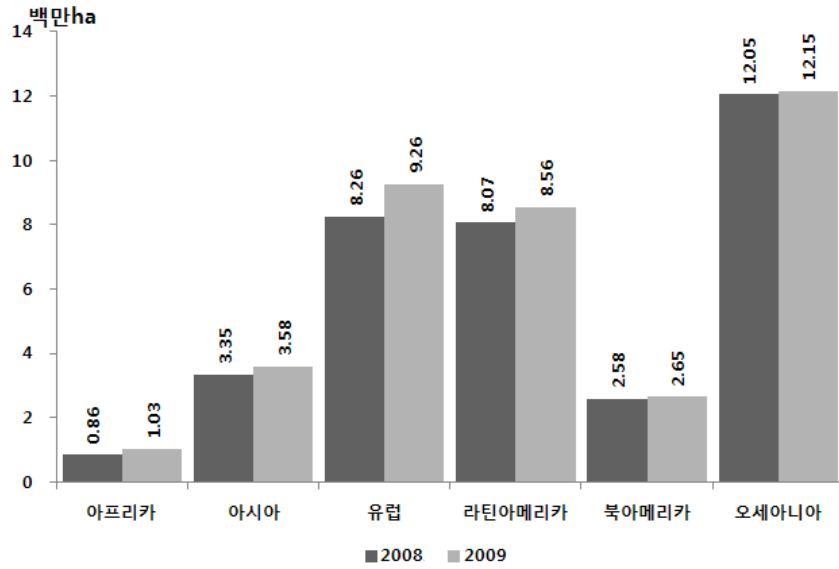
그림 5-2. 세계 유기농지 및 유기 기타 지역의 면적 증가 추세(2009)



자료: IFOAM(2011).

- 세계 유기농업 실천 면적을 유기농경지와 유기 기타 지역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지난 10년간 유기농경지와 유기 기타 지역 모두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유기농경지의 경우 2005년 한 차례만 전년도보다 약간 줄었으며, 1999년 약 1,100만ha에서 2009년 3배 이상 확대된 약 3,720만ha로 나타났음.
 - 유기 기타 지역은 더욱 증가하였음. 동기간 약 410만ha에서 약 4,190만ha로 10배 증가하였음.
- 1999년 당시 유기농경지 면적이 1,100만ha로 유기 기타 지역의 면적 410만ha보다 2배 이상 넓었으나, 2009년에는 각각 3,720만ha와 4,190만ha로 유기 기타지역 면적이 더 넓은 것으로 나타났음.

그림 5-3. 대륙별 유기농경지 면적변화(2008-2009)



자료: IFOAM(2011).

- 유기 농경지면적의 변화를 살펴보면 모든 대륙에서 유기 농경지면적이 증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음.
 - 특히, 아프리카지역의 유기 농경지면적이 크게 확대되었음. 2008년 약 86만ha에서 2009년 103만ha로 19.7%(168,971ha) 늘어졌음.
 - 면적이 가장 확대된 지역은 유럽으로 2008년 826만ha에서 12.1%, 99만ha 확대되어 926만ha가 되었음. 아시아와 라틴아메리카도 각각 6.9%와 6.1% 확대되었음.
 - 반면, 북아메리카와 오세아니아는 크게 확대되지는 않았음. 특히 오세아니아의 경우 유기 농경지면적이 0.9% 증가하는 데 머물렀음. 이는 이미 오세아니아 지역의 유기 농경지면적이 넓어서 증가폭이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음.

표 5-3. 대륙별 유기농경지 면적변화(2008-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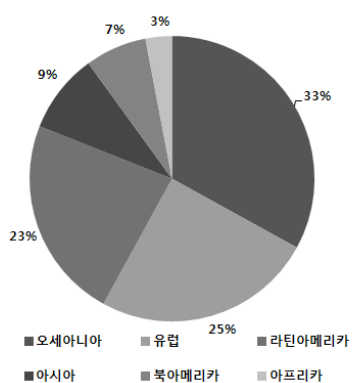
단위: ha, %

구 분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라틴 아메리카	오세아니아	북아메리카	합계
2008	유기 농경지면적	857,662	3,351,068	8,263,740	8,065,147	12,046,784	2,577,502	35,225,786
	구성비	2.4	9.5	23.5	22.9	34.2	7.3	100.0
	경지면적 대비 비중	0.09	0.23	1.72	1.30	2.76	0.63	0.81
2009	유기 농경지면적	1,026,632	3,581,918	9,259,934	8,558,910	12,152,108	2,652,624	37,232,127
	구성비	2.8	9.6	24.9	23.0	32.6	7.1	100.0
	경지면적 대비 비중	0.1	0.25	1.87	1.37	2.82	0.68	0.85
전년 대비 증가면적		168,971	230,850	996,194	493,763	105,324	75,122	2,006,341
증가율		19.7	6.9	12.1	6.1	0.9	2.9	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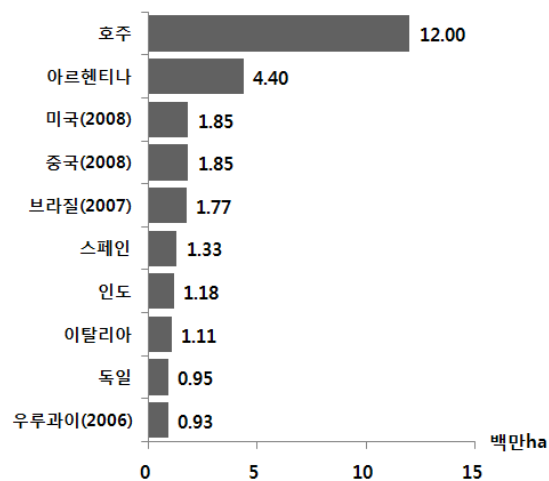
자료: IFOAM(2010, 2011).

그림 5-4. 유기농경지 면적의 대륙별 분포 비중과 농경지면적 상위 10개국(2009)

[유기농경지의 대륙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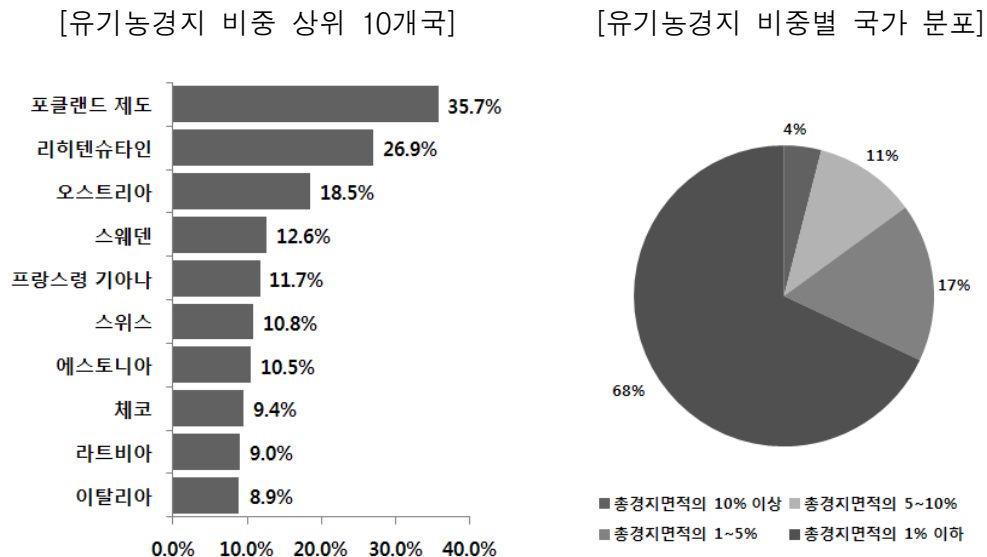
[유기농경지 면적 상위 10개 국가]



자료: IFOAM(2011).

- 세계 유기농지 면적의 분포를 보면, 오세아니아 지역이 33%로 가장 넓으며, 유럽 25%, 라틴아메리카 23%, 아시아 9%, 북아메리카 7%, 아프리카 3%의 순으로 나타남.
- 국가별로는 호주가 1,200만ha로 가장 넓고, 아르헨티나 440만ha, 미국과 중국 각각 185만ha, 브라질 177만ha이 뒤를 이었음.
- 경지면적 대비 유기농경지 비중을 국가별로 살펴보면, 포클랜드제도가 35.7%로 매우 높은 비중을 보였음. 한국은 0.74%로 160개국 가운데 51위였음.
 - 포클랜드제도 다음으로는 리히텐슈타인과 오스트리아, 스웨덴, 기아나, 스위스, 에스토니아 등이 경지면적의 10% 이상이 유기농경지인 것으로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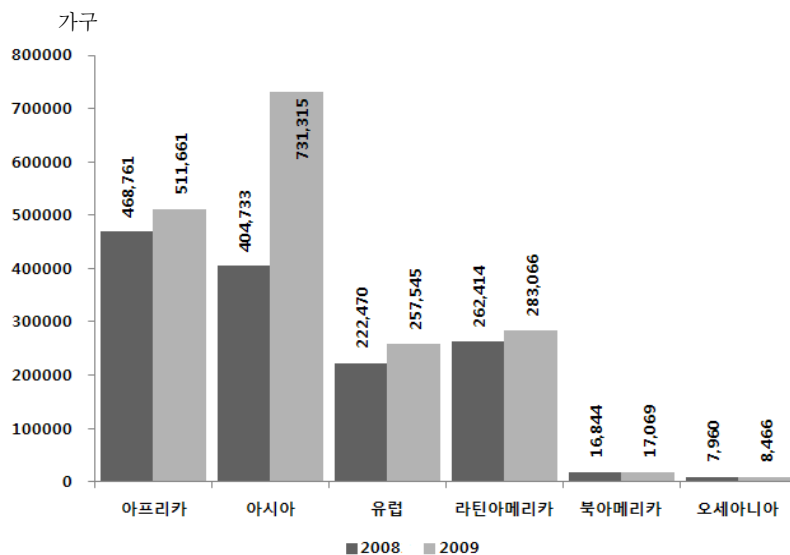
그림 5-5. 경지면적 대비 유기농경지 현황(2009)



자료: IFOAM(2011).

- 유기농경지 비중별로 국가의 수를 구분해보면, 총경지면적의 10% 이상인 국가는 상위 7개 국가로 전체 국가수의 4% 정도에 불과함. 5~10%인 국가는 11%, 1~5%인 국가는 17%, 1% 이하인 국가는 68%를 각각 차지하고 있음.
- 유기농업 실천 농가 수를 살펴보면 모든 대륙에서 유기농업 실천 농가 수 역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08년에는 아프리카가 468,761가구로 유기농업 실천 농가가 가장 많았으나 2009년 아시아 지역의 유기농업 실천 농가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아시아 지역이 가장 많은 유기농업 농가 수를 지닌 것으로 나타났음. 아시아는 80.7%, 326,562가구가 증가하였음. 중국, 인도, 태국, 베트남에서 많은 유기농식품이 생산되며, 주요 유기농산물로는 과일, 채소, 허브, 고추, 쌀, 차 등이 있음.

그림 5-6. 대륙별 유기농업 실천 농가 수(2008-2009)



자료: IFOAM(2011).

표 5-4. 대륙별 유기농업 실천 농가 수(2008-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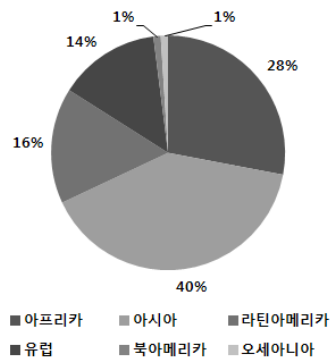
단위: 가구, %

구 분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라틴 아메리카	오세아니아	북아메리카	합계
2008	농가수	468,761	404,733	222,470	262,414	7,960	16,844	1,383,182
	구성비	33.9	29.3	16.1	19.0	0.6	1.2	100.0
2009	농가수	511,661	731,315	257,545	283,066	8,466	17,069	1,809,122
	구성비	28.3	40.4	14.2	15.6	0.5	0.9	100.0
전년 대비 증가가구 수		42,900	326,582	35,075	20,652	506	225	425,940
증가율		9.2	80.7	15.8	7.9	6.4	1.3	3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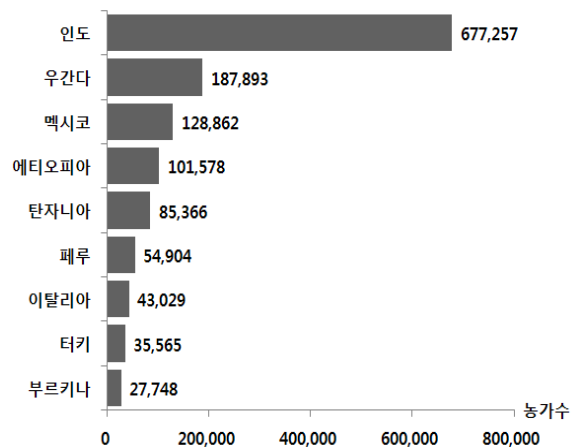
자료: IFOAM(2011).

그림 5-7. 유기농가의 지역별 분포 비중과 농가수 상위 9개국(2009)

[유기농가의 지역별 분포]



[유기농가 수 상위 9개 국가]



자료: IFOAM(2011).

- 세계 유기농가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아시아 40%, 아프리카 28%, 라틴아메리카 16%, 유럽 14%, 북아메리카 1%, 오세아니아 1% 미만으로 나타남.

- 국가별로는 인도가 677,257가구로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우간다 187,893가구, 멕시코 128,862가구, 에티오피아 101,578가구 순이었음. 주로 아시아와 아프리카지역 개발도상국의 농가수가 많은 것이 특징이며, 이탈리아와 터키의 유럽지역 두 국가의 농가가 상위에 포함되었음.
- 대륙별 농가당 유기농지면적을 살펴보면, 2008년과 2009년 모두 오세아니아 지역이 가장 넓었고 아프리카가 가장 좁았음. 오세아니아는 2008년 25.70ha에서 2009년 23.75ha로 7.6%인 1.95ha가 감소하였음.
 - 오세아니아 이외에 북아메리카, 라틴아메리카, 아시아 지역의 농가당 유기농지면적이 감소하였음.
 - 유럽과 아프리카 지역의 농가당 유기농지면적은 증가하였음. 아프리카는 0.18ha 확대되어 9.7%라는 매우 높은 증가율을 보였음. 유럽은 0.47ha, 2.7% 증가하였음.

표 5-5. 대륙별 농가당 유기농경지 면적(2008-2009)

단위: ha/가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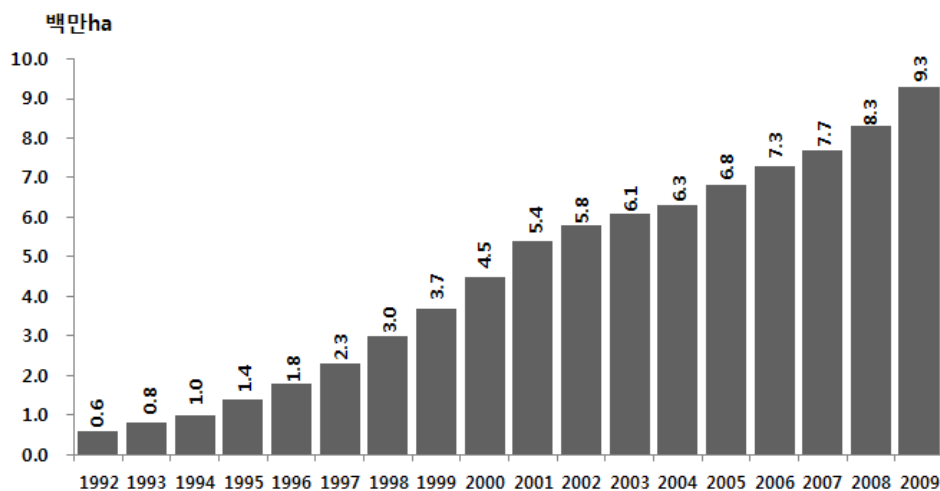
구 분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	라틴 아메리카	오세아니아	북아메리카	합계
2008	1.83	7.15	17.63	17.21	25.70	5.50	75.15
2009	2.01	7.00	18.10	16.73	23.75	5.18	72.77
전년 대비 증가면적	0.18	-0.15	0.47	-0.48	-1.95	-0.31	-2.38
증감률	9.7	-2.1	2.7	-2.8	-7.6	-5.7	-3.2

주: <표 5-3>과 <표 5-4>를 활용하여 농가당 유기농경지 면적을 계측하였음.

1.1. 유럽의 유기농업 생산현황

- 2009년 유럽의 유기농경지 면적은 930만ha인데 이는 1992년 60만ha에서 15.5배, 2000년 450만ha와 비교하면 10년 간 2배로 증가한 것임.
 - 1992년부터 2001년까지는 두 자리수 증가율로 빠르게 증가하였으며, 이후 잠시 증가율이 잠시 주춤하였다가 2007년부터 증가율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그림 5-8. 연도별 유럽 유기농경지 면적(1992-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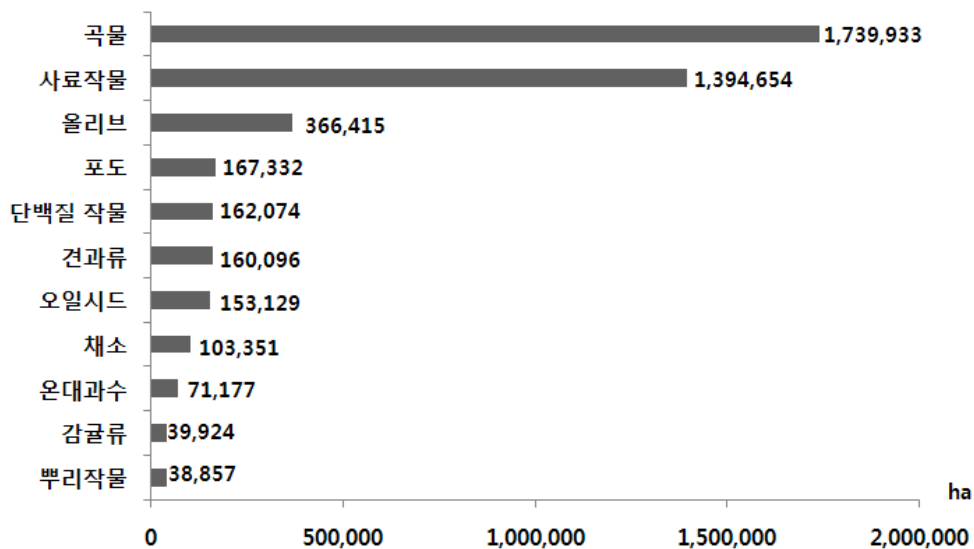


자료: IFOAM(2011).

- 2009년 토지이용을 보면 농경지 40%, 초지 45%, 다년생 작물 7%로 구성되어 있음.
 - 농경지의 주요 작물은 곡물이며 면적은 174만ha로 유럽 유기농경지 면적의 19%를 차지하고 있음. 곡물의 대부분은 이탈리아와 독일, 스페인, 우크라이나에서 재배되며 그 면적은 각각 251천ha, 209천ha, 184천ha, 134천ha임.

- 유기채소는 103천ha의 면적에서 재배되었으며 국가별로 보면 이탈리아 30천ha, 영국 16천ha, 독일 11.8천ha임.
- 이 밖에 올리브 366,415ha, 포도 167,332ha, 견과류 160,096ha 등이 재배되었음.

그림 5-9. 유럽 유기농업 토지이용 현황(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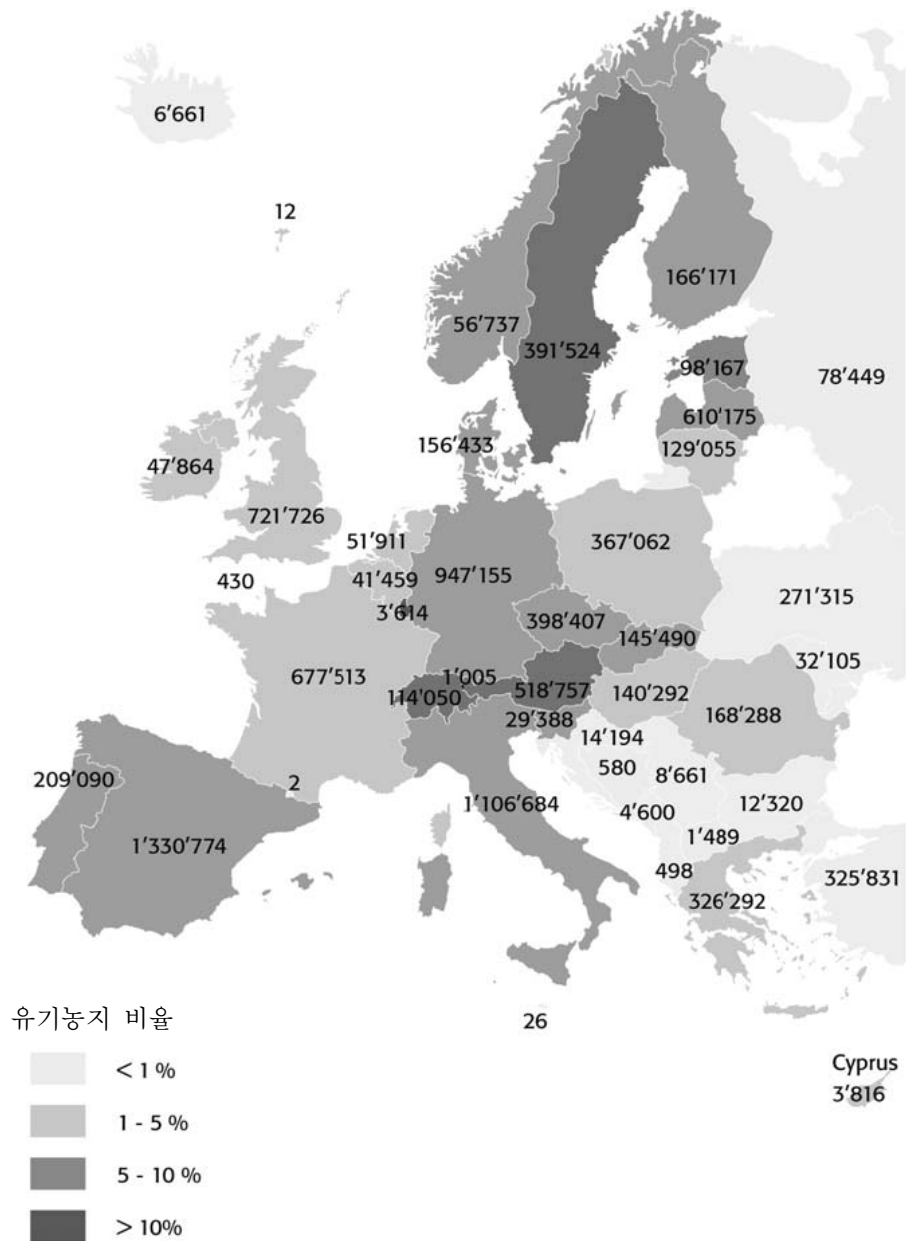


자료: IFOAM(2011).

- 유럽의 유기농경지 면적을 국가별로 보면, 스페인과 이탈리아가 각각 1,330,774ha와 1,106,684ha로 1백만ha 이상이며 독일 947,115ha, 영국 721,726ha, 프랑스 677,513ha, 오스트리아 518,757ha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유기농지 비율은 스칸디나비아 반도와 이베리아 반도 지역의 국가들이 높은 편이며, 중부유럽도 5% 이상인 국가들이 다수 분포되어 있음.

그림 5-10. 유럽 국가별 유기농경지 면적 및 비중(2009)

단위: h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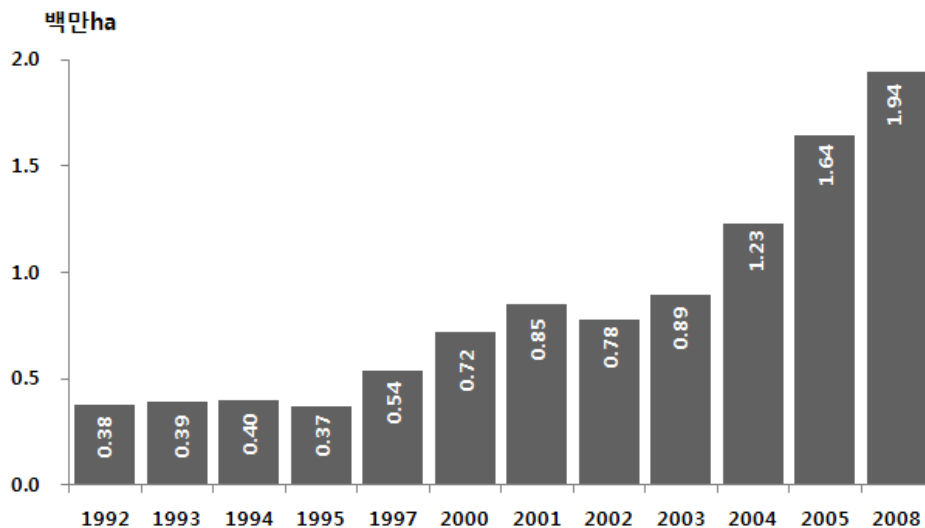


자료: IFOAM(2011).

1.2. 미국의 유기농업

- 미국 농무부(USDA) 산하 경제연구소(Economic Research Service, ERS)에 따르면, 2008년 미국 유기농 인증면적은 194만ha로 집계되었음. 인증면적 중 경작지는 107만ha, 초지가 87만ha임.
- 미국은 194만ha라는 광대한 토지에서 유기농업이 시행되고 있지만 미국 전체 경작지 중 유기농경지의 비중이 0.7% 수준에 불과함.
 - 유기농경지와 유기초지를 모두 고려하였을 경우, 미국 총 농지(farmland)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6%임.

그림 5-11. 미국의 유기농경지 면적(1992-2008)



자료: IFOAM(2010)을 기준으로 2008년도 데이터를 업데이트하였음.

- 미국 유기농업을 선도하고 있는 지역은 캘리포니아 주(州)이며, 2008년 기준 175천ha를 유기로 관리하고 있음.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주로 과일이나 채소 생산이 이루어짐. 이 밖에 위스콘신 주, 북 다코타 주, 미네소타 주, 몬타나 주 등을 중심으로 유기농업이 행해지고 있음.
- 2008년 유기생산조사(2008 Organic Production Survey)에 따르면, 유기농가의 평균 연간 매출액은 217,675달러로 전체 농가 평균 134,807달러를 크게 상회하며 60% 이상 매출액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평균 생산비용은 171,978달러이며, 전체 농가 평균 109,359달러보다 57% 이상 생산비용이 많이 소요됨.
- 유기농가의 운영이윤은 매출액에서 생산비용을 제외하여 구할 수 있는데, 45,697달러로 전체 농가 평균 25,448달러보다 약 80% 높은 수준임.
 - 비록 유기농업의 생산비용이 일반 농가의 경우보다 크게 높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익성이 매우 좋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표 5-6. 미국의 유기농업 생산액 비교(2008)

단위: US달러, %

구 분	유기농가 평균(A)	전체 농가 평균(B)	차액(A-B)	차액 비율($\frac{A-B}{B}$)
총 매출액	217,675	134,807	82,850	61.46%
생산비용	171,978	109,359	62,619	57.26%
운영이윤	45,697	25,448	20,249	79.57%

자료: 2008 Organic Production Survey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하였음.

1.3. 일본의 유기농산물 생산 및 수입

- 일본의 유기농산물 국내 인증량은 2003년 46,609톤에서 2010년 56,414톤으로 약 21% 증가하였음.
 - 2003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9년 57,342톤으로 최대 인증량을 기록하였다가 2010년에는 56,414톤으로 약간 감소하였음.
 - 2003~2010년 동안 품목별 인증량의 증감을 살펴보면, 품목에 따라 증가율이 큰 차이를 보였음. 대두와 밀, 채소가 각각 40.4%, 31.7%, 31.0%로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과일도 15.9%라는 증가율을 보였음. 반면 쌀과 밀은 각각 1.3%, 3.7% 증가하여 낮은 증가율을 기록하였음.

표 5-7. 일본의 유기농산물 국내 인증량

단위: 톤, (%)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채소	28,125	29,674	29,107	29,949	32,780	35,928	37,644	36,854	(65.3)
과일	2,163	2,029	2,222	1,766	2,199	2,050	2,436	2,506	(4.4)
쌀	10,838	10,400	11,369	10,811	10,828	11,278	11,565	10,976	(19.5)
밀	858	732	655	558	721	883	782	890	(1.6)
대두	786	639	877	974	986	1,318	939	1,035	(1.8)
녹차	1,487	1,664	1,610	1,538	1,702	1,754	1,873	2,088	(3.7)
기타1)	2,351	2,291	2,332	2,999	4,231	2,716	2,103	2,065	(3.7)
계	46,609	47,429	48,172	48,595	53,447	55,928	57,342	56,414	(100.0)

주 1) 기타는 홍차, 커피원두, 기타 두류, 너트류, 잡곡류, 설탕, 곤약감자, 팜 프루츠 등을 포함함. 단, 2010년 자료는 그 외에 참깨, 메밀, 버섯류, 종자식물, 빙잎, 향신료, 단풍나무액(메이플시럽)이 추가되었음.

2) ()는 농산물 품목별 비중(%)을 나타냄.

자료: 일본 농림수산업(2010, 2011).

표 5-8. 일본의 총생산량과 유기인증량 비교(2008-2010)

단위: 천톤, (%)

구 분	2008		2009		2010	
	총생산량	유기인증량 (유기비율)	총생산량	유기인증량 (유기비율)	총생산량	유기인증량 (유기비율)
채소	16,405	35.9 (0.22)	15,958	37.6 (0.24)	11,733	36.9 (0.31)
과일	3,411	2.1 (0.06)	3,379	2.4 (0.07)	2,937	2.5 (0.09)
쌀	8,823	11.3 (0.13)	8,474	11.6 (0.14)	8,554	11.0 (0.13)
보리	1,098	0.9 (0.08)	853	0.8 (0.09)	732	0.9 (0.12)
대두	262	1.3 (0.50)	230	0.9 (0.41)	223	1.0 (0.46)
녹차	96	1.8 (1.84)	86	1.9 (2.18)	85	2.1 (2.46)
기타	141	2.7 (1.93)	108	2.1 (1.95)	125	2.1 (1.65)
계	30,236	55.9 (0.18)	29,088	57.3 (0.20)	24,389	56.4 (0.23)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2011).

- 2010년 일본 국내 유기농산물 인증량의 품목 구성비를 살펴보면, 채소가 32,854톤으로 65.3%를 차지하고 있어 압도적인 비중을 보임.
 - 쌀이 10,976톤(19.5%)로 채소 다음으로 많으며, 과일과 녹차, 대두, 밀 등은 5% 미만으로 조사되었음.
- 총생산량 대비 유기인증량을 비교해보면, 제시된 품목 중 녹차의 유기비율이 2.46%로 가장 높으며 과일이 0.09%로 가장 낮게 나타났음.
 - 채소의 유기비율은 2008년 0.22%에서 2010년 0.31%로 증가하였고, 과일은 동기간 0.06%에서 0.09%로, 보리는 0.08%에서 0.12%로 증가하였음. 쌀은 0.13~0.14%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전반적으로 유기비율이 0.18%에서 0.23% 정도로 다소 증가한 것은 총생산량이 줄어든 데 반하여 유기인증량이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5-9. 일본의 유기농산물 해외 인증량

단위: 톤, (%)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채소	26,994	63,123	79,917	106,119	82,448	173,819	167,230	188,633	21.7
과일	18,736	11,233	67,512	131,538	156,764	90,857	24,593	85,255	9.8
쌀	2,604	4,581	3,171	21,777	2,851	13,835	32,398	14,558	1.7
밀	1,732	2,414	3,634	7,528	10,170	83,418	7,059	8,005	0.9
대두	54,109	70,975	35,362	63,647	94,574	94,250	90,371	103,784	11.9
녹차	964	1,848	226	449	83	255	5	780	0.1
기타 ¹⁾	192,784	295,476	1,250,255	964,208	1,554,629	1,542,600	382,549	468,928	53.9
계	297,923	449,650	1,440,177	1,295,266	1,901,519	1,999,034	704,205	869,943	100.0

주 1) 기타는 홍차, 커피원두, 기타 두류, 너트류, 잡곡류, 설탕, 곤약감자, 팜 프루츠 등을 포함함. 단, 2010년 자료는 그 외에 참깨, 메밀, 버섯류, 종자식물, 뽕잎, 향신료, 단풍나무액(메이플시럽)이 추가되었음.

2) ()는 농산물 종류별 비중을 나타냄.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2010, 2011).

- 일본의 유기농산물 해외 인증량은 채소를 중심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 채소는 2003년 26,994톤에서 2008년 1,999,034톤으로 5년간 35.7배 정도로 증가하였음. 이후 2009년에는 704,205톤으로 매우 크게 줄어들었다가 2010년 다소 증가하였음.
 - 2009년 해외 인증량이 줄어든 것을 보면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품목에서 줄어들었고, 특히 기타 품목에서 매우 크게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음. 쌀의 경우는 2007년에 크게 줄었고 2008년, 2009년 다시 증가하였다가 2010년 감소하는 등 변동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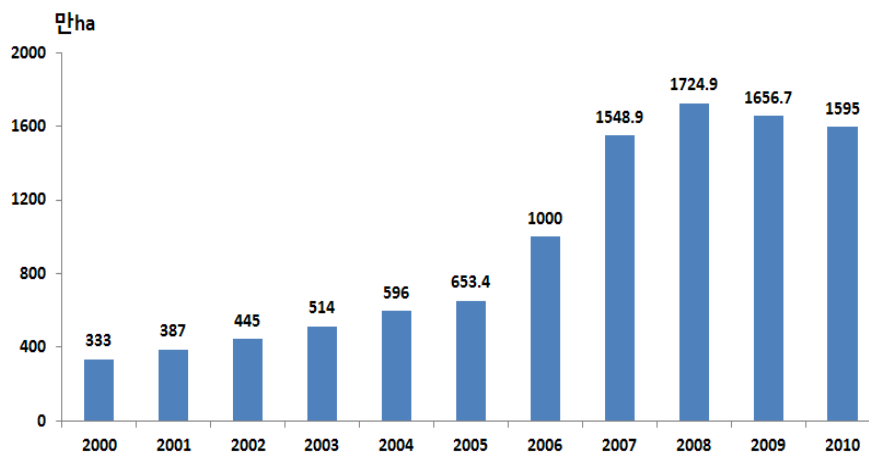
- 2003년에는 유기농산물 해외 인증량이 대두가 54,109톤(9.1%)으로 기타 품목을 제외하고 가장 많았으나 2010년에는 지속적으로 크게 증가한 채소가 유기농산물을 대표하고 있음. 채소의 경우 2009년 다소 감소하였으나 다른 품목들이 감소한 양에 비하면 미미하다 할 수 있음.
- 채소 외에도 쌀과 과일, 밀 등이 각각 4.6배, 3.6배, 3.6배로 증가하였음.
- 일본의 유기농산물은 국내보다는 수입산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 전체적으로 보면, 2010년 기준으로 국내산 유기농산물보다 해외 인증 유기농산물이 15.4배나 많음. 2003년 기준으로는 해외 인증 유기농산물이 약 6.4배 정도 많은 것으로 나타남.
 - 2010년 기준으로 기타를 제외하고 국내 인증량 대비 해외 인증량이 가장 많은 품목은 대두였으며 약 100배로 나타남. 국내 인증량은 1,035톤인데 반해 해외 인증량은 103,784톤에 이름. 과일도 약 34배로 많은 양이 수입되고 있음. 이에 반해 녹차는 2,088톤이 국내에서 인증을 받았으며 해외 인증은 780톤에 머물러 상당량이 국내에서 재배되고 있음.

1.4. 중국의 유기농업 생산 및 수출현황

- 2009년 말 기준으로 중국에서는 약 4,000여개의 기업들이 유기농산품을 생산하고 있음. 중국은 북부지역과 해안지역 두 지역에서 상당량의 유기농산물을 재배하고 있음.
 - 헤이룽장성(Heilongjiang), 지린성(Jilin), 내(內) 몽골(inner mongolia) 지역, 랴오닝성(Liaoning) 등 북부지역에서는 곡물, 콩류, 해바라기씨, 호박씨 등을 주로 생산하며 내수보다는 수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해안지역인 산둥성(Shandong), 장쑤성(Jiangsu), 베이징(Beijing), 상하이(Shanghai), 저장성(Zhejiang), 푸강(Fujian) 등에서는 내수 및 일본으로의 수출을 위한 유기농 채소류를 재배하고 있음.

- 중국 남동부의 저장성(Zhejiang), 장시성(Jiangxi), 푸젠성(Fujian)은 유기농 차(茶) 생산의 중심지역임.
 - 유기농식품 가공업체들은 상하이, 베이징 저장성, 장쑤성 등의 동부지역에 집중적으로 위치해 있음.
- 중국의 녹색식품 산지 인증면적을 보면 2000년 333만ha이었으나 2006년 1,000만ha를 넘어섰고 2007년에는 1,725만ha로 크게 확대되었음. 이후 2009년과 2010년에는 다소 감소하였음.

그림 5-12. 중국 녹색식품 산지 인증면적 변화 추이(2000-2010)



자료: 중국 그린푸드 통계연감(http://www.greenfood.org/Sites/MainSite/List_2_2453.html) 각 연도별 자료

- 인증면적을 구분해 보면 농작물 재배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농작물 재배는 식량작물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2005년 297.7만ha에서 4배 이상 증가한 2010년 1,214.17만ha로 확대되었음.
- 과수원과 차 재배 등 대부분이 확대되었고, 폴사료는 2007년 크게 확대되었다가 이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중국의 녹색식품은 산지구분에 수산양식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큰 특징임. 수산양식은 인증면적의 변동이 크게 나타나고 있음.

표 5-10. 중국 녹색식품 산지 인증면적 구분(2005-2010)

단위: 만ha

산지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농작물 재배	297.7	421.6	830.4	992.4	1142.8	1214.17
- 식량작물	253.8	234.3	504.4	667.5	760.9	869.91
- 유지작물	21.1	78.6	159.6	161.6	160.5	113.39
- 식용 당 작물	4.7	19.0	27.9	27.0	43.2	36.47
- 채소류, 과채류	12.5	28.1	66.1	80.0	86.8	99.10
- 기타 작물	5.6	61.5	72.5	56.3	91.5	95.96
과수원	33.4	183.0	94.4	77.7	71.7	89.67
차 재배	3.2	7.4	14.2	16.4	17.7	23.07
폴사료 재배	63.5	30.7	336.8	281.6	223.7	119.54
임지	68.6	-	-	-	-	-
수산양식	184.3	282.3	75.5	82.6	116.4	44.62
기 타	2.6	74.7	197.7	274.2	84.3	103.27
합 계	653.4	1000.0	1548.9	1724.9	1656.7	1595.0

자료: 중국 그린푸드 통계연감(http://www.greenfood.org/Sites/MainSite/List_2_2453.html) 각 연도별 자료를 바탕으로 단위를 변환하였음.

- 중국의 유기농업은 내수보다는 수출지향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음. 주요 수출국은 EU, 미국, 일본 등 20여개 국가임.
 - 주요 수출품목으로는 쌀, 차, 버섯, 대두, 채소류, 식용유 등이 있고 가금류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품목별 녹색식품의 수출현황을 보면, 2010년 수출액 기준으로 채소류 및 채소가공식품이 23.9%를 차지하여 가장 많고, 가금류가 18.7%로 다음 순위임. 반면, 쌀 수출액은 4.2%로 많지 않으며, 2007년 51억 8,540만 달러에서 2008년 168억 3,200만 달러로 크게 증가하였다가 이후 감소하고 있음.

표 5-11. 중국 주요 녹색식품의 수출 현황(2008-2010)

단위: 톤, 백만 달러, %

품 목	2008			2009			2010		
	수출량	수출액	비중	수출량	수출액	비중	수출량	수출액	비중
쌀	26.3	16,832.6	7.2	21.2	11,776.0	5.5	19.7	9,635.1	4.2
쌀 가공품	4.2	4,582.7	2.0	2.4	4,029.6	1.9	-	-	-
옥수수	1.6	4,958.6	2.1	-	-	-	-	-	-
옥수수 가공품	9.5	2,480.7	1.1	7.2	1,089.5	0.5	6.4	4,026.5	1.7
식용유 및 제품	3.4	9,599.0	4.1	2.7	4,877.0	2.3	8.3	5,428.3	2.4
가공 대두	-	-	-	1.7	2,021.5	0.9	1.2	6,947.5	3.0
유지작물 제품	5.8	5,150.0	2.2	6.8	6,785.2	3.1	5.3	6,838.0	3.0
설탕	4.1	2,342.0	1.0	2.0	1,433.6	0.7	1.2	1,701.7	0.7
곡식	1.4	1,266.0	0.5	2.1	1,555.0	0.7	2.4	4,879.4	2.1
채소	62.7	48,008.8	2.1	34.4	35,942.1	16.6	340.4	41,359.5	17.9
채소가공품	13.9	10,547.5	4.5	36.5	9,054.4	4.2	15.5	13,752.8	6.0
냉동 및 신선 채소	19.0	6,692.0	2.9	19.2	5,124.2	2.4	23.9	6,847.8	3.0

표 5-11. 중국 주요 녹색식품의 수출 현황(2008-2010)(계속)

품 목	2008			2009			2010		
	수출량	수출액	비중	수출량	수출액	비중	수출량	수출액	비중
신선 과일	31.7	11,086.3	4.8	32.4	11,943.9	5.5	69.8	9,757.7	4.2
말린 과일	2.3	3,314.8	1.4	3.1	3,340.6	1.6	0.7	3,022.0	1.3
버섯 및 산야채	1.8	2,184.9	0.9	3.0	2,870.6	1.3	3.6	3,735.3	1.6
버섯 및 산야채 가공식품	1.8	2,184.9	0.9	4.0	1,318.0	0.6	4.3	1,834.7	0.8
가공 과일 수업	14.2	5,722.8	2.5	13.6	8,352.6	3.9	13.8	9,727.8	4.2
기타 농림가공제품	-	-	-	5.0	4,350.0	2.0	6.9	5,264.4	2.3
돼지고기	0.7	1,185.0	0.5	0.7	1,142.3	0.5	-	-	-
가금류	4.2	40,270.0	17.3	4.5	41,160.0	19.1	5.3	43,262.0	18.7
쇠고기	1.0	9,125.4	3.9	14.0	5,345.4	2.5	13.8	6,213.4	2.7
양고기	0.7	3,211.0	1.4	0.2	1,159.0	0.5	0.3	1,200.0	0.5
달걀	0.6	1,288.5	0.6	0.6	1,260.5	0.6	-	-	-
벌꿀 제품	0.1	1,473.0	0.6	0.1	1,424.2	0.7	-	-	-
수산물	10.1	13,583.2	5.8	5.5	6,818.8	3.2	5.9	3,903.6	1.7
수산가공품	2.6	15,004.0	6.5	2.4	11,670.3	5.4	5.7	9,015.3	
차	0.7	2,393.5	1.0	0.3	6,414.2	3.0	12.0	6,270.7	2.7
주류	0.1	3,698.4	1.6	0.1	3,807.3	1.8	0.1	4,012.7	1.7
소금 및 식품첨가물	1.6	3,401.3	1.5	4.5	6,245.4	2.9	3.0	6,683.3	2.9
생산 수단	-	-	-	12.3	5,223.0	2.4	8.0	1,823.0	0.8
합계	2,082.2	229,402.0	98.7	2,115.3	207,533.5	96.1	2,163.2	217,142.6	94.0

주: 소금 및 식품첨가물에는 소금, 조미료, 식품첨가물 등이 포함됨.

자료: 중국 그린푸드 통계연감(http://www.greenfood.org/Sites/MainSite/List_2_2453.html) 각 연도별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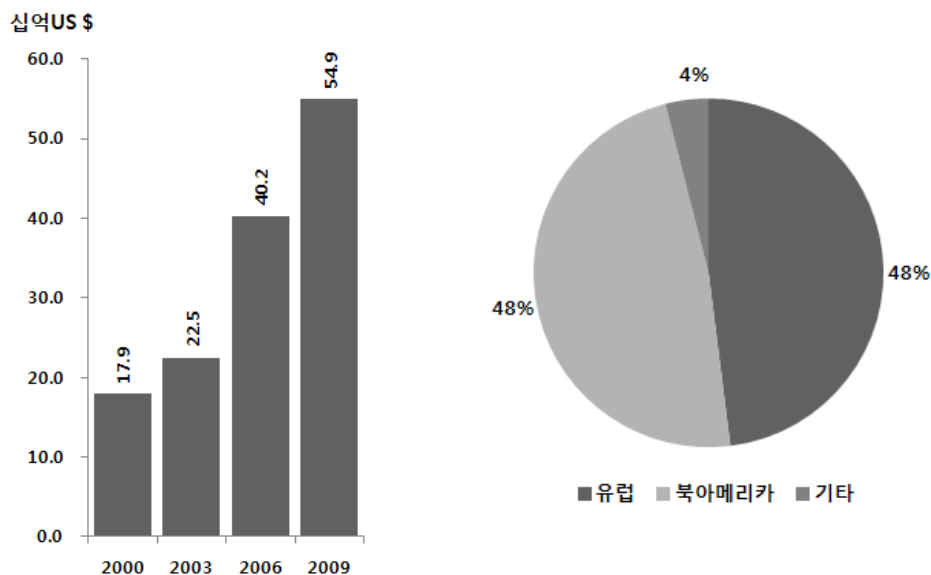
2. 세계 유기농식품 시장현황

-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로 산업투자 및 소비가 크게 위축되어 유기농식품시장도 위축되었으나 회복되고 있음. 2009년 유기농식품 시장규모는 549억 달러(70조 원³)로 2000년 179억 달러에서 3배 이상 성장한 규모임.
- 유기제품에 대한 수요는 유럽과 북아메리카 지역에 집중되어, 두 지역에서 전세계 판매량의 96%를 구입하고 있음. 아직 다른 지역에서는 소비자 인지도가 낮을뿐만 아니라 구매여력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임.

그림 5-13. 유기농식품의 시장규모 및 지역분포

[유기농식품의 시장규모(2008-2009)]

[유기농식품의 지역분포(2009)]



자료: IFOAM(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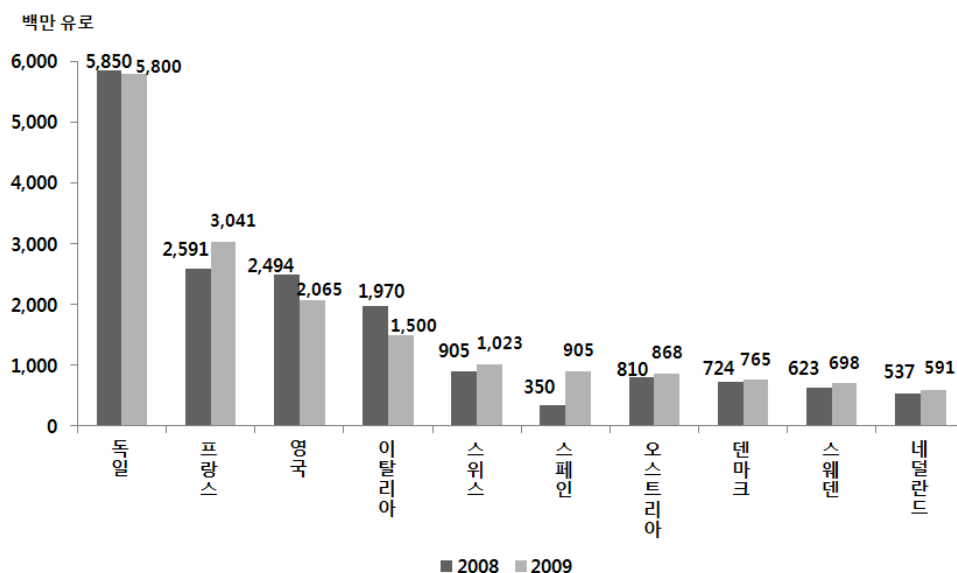
3 2009년 매매기준율 1,275.82원(US\$) 적용함.

- 유기제품은 수요량에 비하여 공급량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임. 초과 수요로 인하여 가격이 높게 형성되는 경향이 있음. 유기제품은 환경적·윤리적·건강적 측면에서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가격 프리미엄이 유기제품의 확대에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음.
- 유기농식품 시장분포를 보면, 유럽과 북아메리카지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유럽과 미국은 전세계 유기농식품 시장의 각각 260억 달러와 263억 달러로 48%씩을 차지하고 있음.
 - 유럽의 경우, 유기농식품 매출액은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서유럽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칸디나비아 지역과 알프스 지역이 유기농식품의 최대 소비지임. 이들 지역 이외에도 유럽 전역에서 유기농식품에 대한 소비가 확대되고 있음. 스페인과 포르투갈, 이탈리아 등에서 많은 유기농식품이 생산되고 상당량이 북유럽과 서유럽으로 수출됨.
 - 유기농식품시장으로 유럽시장이 주로 언급됨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캐나다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북아메리카 시장이 꾸준히 성장하여 세계 최대의 유기농식품 시장이 되었음. 미국은 유기농제품 분야에서 선도적인 생산·수출업체들을 보유하고 있지만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해, 상당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 아시아는 중국, 인도, 태국, 필리핀, 베트남이라는 대규모 농업생산국들이 있는 지역임. 하지만 이들 국가들에서 소비되는 유기농식품의 양은 미미한 수준이며, 일본과 한국, 대만, 싱가포르 등이 아시아의 주요 유기농식품 소비국이라 할 수 있음. 상당수의 아시아 국가들이 인증표준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시장 확대의 큰 장애요인이라 할 수 있음.
 - 오세아니아는 세계 유기농지의 약 1/3이 있는 지역이나 시장 규모는 2009년 기준으로 8억 달러로 크지 않음.

2.1. 유럽의 유기농식품 시장

-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하여, 2009년 유기농식품 시장 성장률은 한 자리 수에 머물렀음.
 - 이러한 가운데 프랑스와 스페인 유기농식품 시장의 성장이 두드러졌음. 프랑스의 시장규모는 2008년 25억 9천1백만 유로에서 30억 4천1백만 유로로, 스페인은 3억 5천만 유로에서 9억 5백만 유로로 크게 확대되었음. 이 밖에 스위스, 오스트리아, 덴마크, 스웨덴, 네덜란드의 시장이 다소 확대되었음.
 - 동기간 영국과 이탈리아 독일은 규모가 감소하였음. 2009년 기준으로 영국의 유기농식품 시장규모는 전년 대비 4억 29백만 톤이 줄어든 20억 65백만 톤, 독일은 5천만 톤 줄어든 58억 톤, 이탈리아는 4억 7천만 톤 줄어든 15억 톤으로 나타났음.

그림 5-14. 유럽 주요국의 유기농식품 시장규모(2008-2009)



자료: IFOAM(2010, 2011).

표 5-12. 유럽 유기농식품 시장 현황(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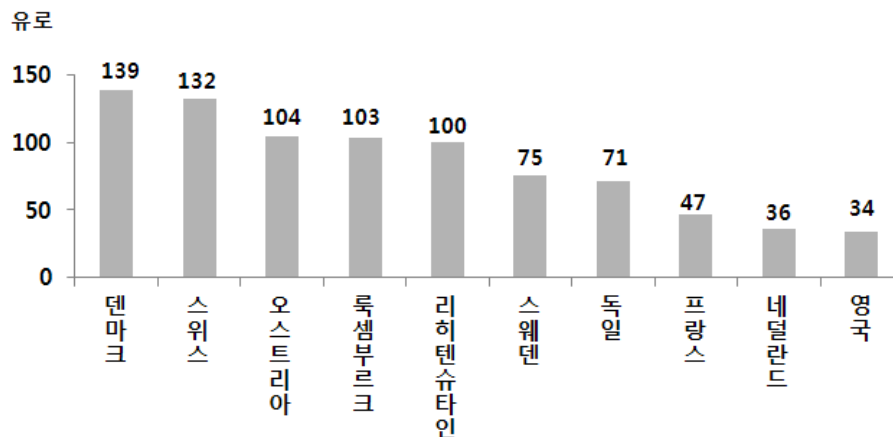
구 분	매출액 (백만 유로)	2008/09 성장률(%)	1인당 소비액 (유로)	식품시장 대비 비중(%)	공급액 (백만 유로)	수출액 (백만 유로)
그리스***	58	-	5	-	-	-
네덜란드	591	10	36	2.3	56	525**
노르웨이	114	10	24	1.3	-	-
덴마크	765	6	139	7.2	67	100
독일	5,800	0	71	3.4	300	-
러시아	65	-	0.5	-	-	4
루마니아***	3	-	0.1	-	-	-
룩셈부르크	51	-	103	3.3***	-	-
리히텐슈타인	3	-	100	-	-	-
몬테네그로*	0.01	-	0.3	-	-	-
벨기에	350	15	32	1.5	-	-
불가리아*	5	-	1	-	-	-
스웨덴	698	16	75	4	-	-
스위스	1,023	7	132	5.2	-	-
스페인	905	-	20	0.97	-	454
슬로바키아*	4	-	1	-	-	-
슬로베니아	34	-	17	1	0.05	0.1
아일랜드	113	-	24	-	-	-
에스토니아	12	1	9	1	-	-
영국	2,056	-13	34	-	19	-
오스트리아	868	5	104	6	51	66
우크라이나	1	-	0.03	-	-	-
이탈리아	1,500	9	25	-	-	-
체코	68	-	7	0.7	-	4
크로아티아	37	-	8	0.8	-	3
키프로스**	2	-	2	-	-	-
터키	4	-	0.1	-	-	20
포르투갈***	70	-	7	0.5	-	-
폴란드***	50	-	1	0.1***	-	-
프랑스	3,041	19	47	1.9	-	-
핀란드	75	1	14	1	-	14
헝가리	25	-	3	0.3	0.1	20

주: *는 2008년, **는 2007년, ***는 2006년 자료임.

자료: IFOAM(2011).

- 2009년도 1인당 유기농식품 소비액은 덴마크가 139유로로 가장 많았고, 스위스가 132유로로 그 다음이었음. 오스트리아, 룩셈부르크, 리히텐슈타인이 덴마크, 스위스와 함께 100유로 이상 소비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프랑스와 네덜란드, 영국은 50유로 이하로 상대적으로 적은 1인당 유기농식품 소비액을 보였음.

그림 5-15. 유럽 주요국의 1인당 유기농식품 소비액(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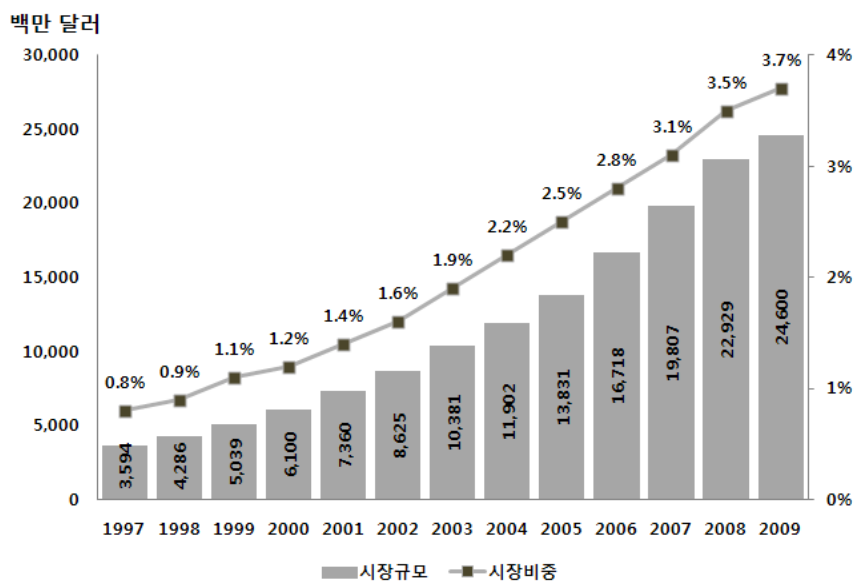
자료: IFOAM(2011).

2.2. 미국의 유기농식품 시장

- 2009년 미국의 유기제품 매출액은 266억 달러, 식품시장 점유율은 5.3%까지 성장하였음. 유기제품 매출액 266억 달러 가운데 유기농식품은 248억 달러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비유기농식품은 18억 달러임.
- 미국 총 식품 매출액은 2009년 1.6% 증가한 반면, 유기농식품 매출액은 5.1% 증가하여 매우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 1997년 36억 달러에서 2009년 246억 달러로 6.8배나 성장하였음.

- 식품시장 시장비중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999년 1%를 넘어섰고, 2004년 2%대에 들어섰으며 2009년 3.7%를 기록하였음.

그림 5-16. 미국의 유기농식품 시장규모(2009)



자료: IFOAM(2011).

- 유기농식품의 지속적인 확대는 유기농 과일과 채소에 기인하고 있는데, 전체 유기농식품 판매량 가운데 과일과 채소가 2009년 기준으로 95억 달러, 38%를 차지하고 있음. 이는 2008년도보다 11.4% 상승한 것임.
 - 유기농 과일 및 채소의 판매량은 전체 미국 과일 및 채소 판매량의 11%나 되고 있음. 전체 식품시장에서의 유기농식품 비중이 2009년 기준으로 3.7%임을 고려한다면 11%는 매우 높은 비중임.
- 비유기농식품에서는 유기 보충제(Organic Supplements)가 주도하고 있음. 유기 보충제 판매량은 6억 34백만 달러로 비유기농식품의 35%를 차지하고 있음.
 - 유기섬유(Organic Fiber)는 5억 21백만 달러의 판매량을 기록하였으며

10.4%를 차지하였고, 개인 미용 및 위생용품(personal care products)은 4억 59백만 달러, 3.7%로 나타났다.

- 미국의 유기농식품은 수요는 많으나 공급이 부족한 초과수요가 있기 때문에 주로 라틴아메리카, 호주, 아시아 등 다른 지역에서 수입된 상품들이 많이 거래되고 있음.

2.3. 일본의 유기농식품 시장

- 최근 3년간 일본의 유기농산물 가공식품 인증실적을 보면, 전체적으로는 국내 인증이 2008년 153,905톤에서 2010년 98,685톤으로 크게 줄어들었음. 동기간 국외 인증은 130,749톤에서 131,186톤으로 다소 증가하였으나 큰 차이는 없음.
- 국내 인증은 콩류 및 관련 가공품을 중심으로 유기농식품이 이루어지고 있음.
 - 2008년 기준으로 두부가 66,233톤, 43%의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함. 2010년에는 인증량이 절반 가량인 33,610톤으로 감소하였으나 국내 유기 가공식품의 34.1%로 가장 많은 양임.
 - 두부 다음으로 두유가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음. 2008년 22,623톤, 14.7%였던 두유는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0년 27,858톤의 인증량으로 보였으며 28.2%를 차지하였음.
- 국외 유기농식품은 조청 및 당류, 설탕 등을 중심으로 수입되고 있음. 이들 제품의 국내 생산량은 매우 미미한 수준이며,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음.
 - 2003년 설탕은 국내에서 24톤 생산된 것에 반하여 국외 인증량은 13,693톤에 이르렀으며, 2010년에는 17,799톤을 대부분 국외에서 수입하였음.
 - 조청은 동기간 48,822톤에서 3,264톤으로 매우 크게 줄어들었음.

표 5-13. 일본의 유기농산물 가공식품 국내 인증실적

단위: 톤

구 분	2008		2009		2010	
	국내	국외	국내	국외	국내	국외
냉동야채	197	8,298	240	13,876	77	5,561
야채통조림	12	3,433	89	7,306	86	7,925
삶은 야채	636	12,366	1,365	18,929	1,313	17,825
야채음료	1,391	241	1,565	868	1,596	989
기타 야채가공품	1,497	5,134	1,629	17,815	1,768	4,588
과일음료	1,833	8,141	1,622	2,940	1,945	2,976
기타 과일가공품	811	3,037	654	4,585	446	1,993
녹차	7,203	269	1,686	55	1,521	100
차음료	3,815	13	2,605	6	2,751	-
커피	1,307	-	1,257	-	1,045	-
커피원두	18,010	1,564	3,132	1,148	2,120	2,940
두유	22,623	18	25,267	38	27,858	247
두부	66,233	-	31,520	-	33,610	-
нат또	4,965	-	3,860	-	2,014	9
된장	3,123	685	2,354	570	2,399	505
간장	6,104	2,117	6,043	297	4,886	354
기타 콩류가공품	3,471	4,135	3,261	375	3,110	3,324
견과제품	118	875	165	1,353	123	1,399
견과류 가공품	1,056	3,151	1,680	4,893	1,401	4,925
면류	113	3,651	90	6,171	189	5,891
곤약	3,221	734	2,637	578	2,203	370
설탕	24	13,693	20	24,996	-	17,799
조청 및 당류	4	48,822	2	3,442	25	3,264
우유	741	-	669	2,572	531	12,680
기타 가공식품	5,397	10,370	4,729	19,696	5,668	25,521
계	153,905	130,749	98,142	132,506	98,685	131,1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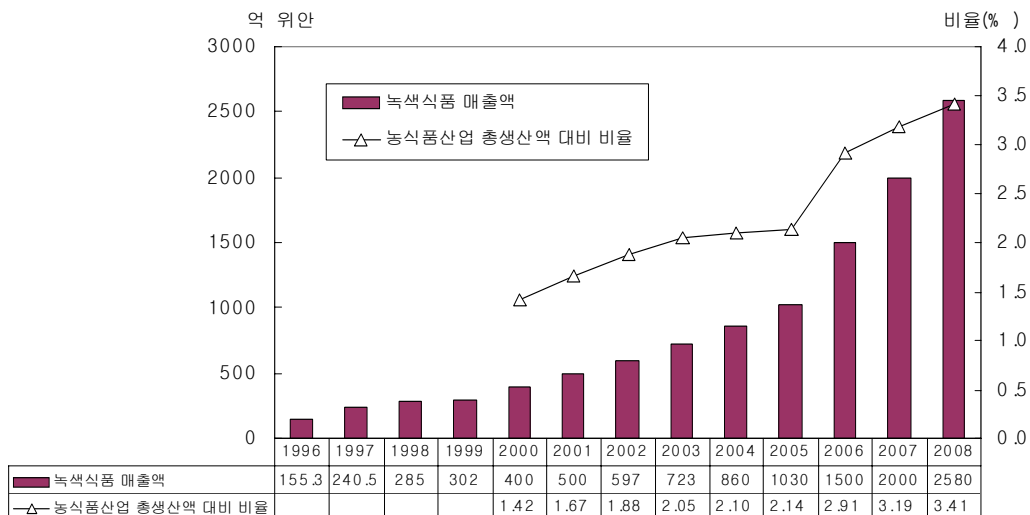
주: 2010년 기타 가공식품에는 기타 차(茶), 식초, 밀가루, 쌀 가공품, 기타 잡곡 가공품, 참깨 가공품, 식물성 식용유, 향식료, 축산물 가공식품 등이 포함됨.

자료: 일본 농림수산성(2011).

2.4. 중국의 녹색식품 시장

- 2008년도 중국의 녹색식품 시장규모는 매출액 기준 2,580억 위안으로 1996년 155.3억 위안 대비 약 17배 확대되었음.
- 녹색식품 시장규모의 약 1/50인 50억 위안 내외의 시장규모를 가진 것으로 알려진 유기식품을 합해 중국의 친환경농식품 시장규모는 약 2,630억 (한화로 약 41.9조 원) 위안 내외인 것으로 판단됨.
- 농식품산업 총생산액에서 녹색식품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0년 1.42%에서 2008년 3.41%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다만, 중국의 GDP에서 녹색식품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은 1% 미만으로 미미한 수준이지만 1996년 0.22%에서 2008년 0.86%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전형진, 2010).

그림 5-17. 중국의 녹색식품 시장규모 변화추이(1996-2008)



자료: 전형진·권태진·남민지(2010).

제 6 장

요약 및 결론

1. 요약

- 이 연구는 최근의 친환경농식품의 생산 및 소비실태를 분석하고 정책적 변동요인을 고려하여 시장규모를 전망함으로써 정책담당자와 친환경식품 생산, 유통, 가공업체 종사자들에게 의사결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됨.
- 정부가 친환경농업을 미래농업의 성장동력으로 적극 육성함에 따라 친환경 농산물 생산은 2000년대 초반까지 매년 122.7%의 급증세를 보였고, 최근 5년(2007~2011년) 동안에는 12.2%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2011년 친환경 농산물 인증면적은 유기와 무농약이 전년보다 각각 24.5%, 0.8% 증가하였지만 저농약이 30.8% 감소함에 따라 전년보다 11.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2011년 기준 친환경농산물 인증단계별 출하량을 보면, 유기 190,912톤(10.5%), 무농약 915,823톤(50.3%), 저농약 712,493톤(39.2%)로 무농약이 처음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품목류별로 보면 곡류 404,825톤(22.3%), 과실류 433,346톤(23.8%), 채소류 701,894톤(38.6%) 등

으로 채소류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전체 경지면적 중 친환경농업 인증실적이 차지하는 비중을 도별로 살펴보면, 전남 28.9%, 경남 7.8%, 경북 7.3% 등인 데 반해 경기 4.3%, 제주도 4.2%로 상대적으로 낮아 지자체의 친환경농업육성 전략에 따라 지자체 간에 상당한 격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소비자들의 친환경농식품에 대한 소비의향을 조사한 결과 구입 경험자와 비경험자 모두 향후 소비를 증가시킬 것이라고 응답하였음. 친환경농산물 구매경험자의 41.1%, 비구매경험자의 74.3%, 친환경농가공식품의 경우 구매경험자의 52.3%, 비구매경험자의 77.1%가 소비를 늘릴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음. 이는 소비자들의 필요를 적절하게 충족시킬 경우 잠재적 소비량이 상당히 많음을 시사하고 있음.
- 친환경농식품 소비촉진을 위한 개선사항으로 친환경농산물과 친환경농가공식품 모두 ‘가격인하’를 가장 우선순위로 꼽았고, 적당한 구입처, 인증제도의 개선 등을 그 다음으로 꼽았음. 구입경험자의 유기농산물의 가격 프리미엄은 51~79%, 적정 프리미엄은 37~52%로 나타났고, 유기가공식품의 가격 프리미엄은 100%, 적정 프리미엄은 50%로 나타나 시장에서 거래되는 친환경농식품의 가격이 소비자의 지불의사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됨. 유기농산물은 약 20% 정도, 유기가공식품은 약 50% 정도 가격프리미엄을 떨어뜨린다면 소비를 확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구입비경험자의 경우 친환경농산물 29%, 유기가공식품 60% 정도 가격프리미엄을 떨어뜨린다면 구입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친환경농식품 구입장소로 친환경농산물과 가공식품 모두 대형할인점이 4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구입장소를 선택하는 데 있어 소비자들은 구입의 편리성을 가장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마케

팅 전략을 편리성을 추구하는 소비자 지향적으로 바뀌어야 함을 시사함.

- 가족 건강에 대한 기여도를 보면 친환경농산물의 경우 72.0%, 친환경농가공식품의 경우 70.7%로 높게 나타났음. 순위형 로짓분석 결과에서 건강증진도가 높다고 인식할수록 향후 소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됨. 이는 친환경농식품의 가족건강 증진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부각시켜 홍보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음.
- 소비자들은 유기가공식품 구매 시 83.8%가 인증마크를 확인하고, 64.4%가 식품첨가물을 확인한다고 응답하여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매우 중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따라서 인증기관의 책임성과 인증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인증기관의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인증기관에 대한 모니터링을 내실있게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함.
- 2011년 국내 친환경농산물 시장규모는 전년보다 3.8% 감소한 3조 2,602천억 원으로 전망됨. 시장규모가 감소한 이유는 저농약인증제도의 신규인증 중단에 따른 저농약인증 재배면적의 감소와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의 강화로 생산량이 2010년에 비해 다소 감소하였기 때문으로 보임.
- 2012년의 친환경농산물 시장규모는 2011년 대비 13% 정도 증가한 3조 6,800억 원으로 전망됨. 저농약인증 농산물의 시장규모가 제도가 완전히 폐지되는 2015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나 유기와 무농약 농산물의 꾸준한 증가로 시장규모는 2013년 3조 9,845억 원, 2015년 4조 8,329억 원으로 늘어나며, 2020년에는 전체 농산물 시장 거래액의 약 20%인 6조 9,000억 원 될 것으로 전망됨.
- 세계 유기농산물 생산은 2009년 기준 약 160개국에서 약 7,920만ha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유기식품 및 음료 시장유통 규모도 약 70조 원으로 추정됨.

2000년대 유기농식품은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매년 20% 내외의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였으나 2009년은 글로벌 경제위기의 여파로 한자리수의 성장에 그침.

- 중국은 정부의 적극적인 녹색식품 육성전략에 힘입어 녹색식품 인증면적이 2000년 333만ha에서 2006년 1,000만ha를 넘어섰고 2007년에는 1,725만ha로 매우 확대되었음. 이후 2009년과 2010년에는 다소 감소하였음. 중국의 유기농업은 내수보다는 수출지향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주요 수출국은 EU, 미국, 일본 등 20여개 국가임.
- 일본의 유기농산물 인증물량은 2010년 기준으로 국내산보다 국외산이 15.4배나 많음. 유기농산물 가공식품 인증물량의 경우 해외인증이 국내인증보다 1.3배로 많으며, 해외인증의 경우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유기농식품의 해외의존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2. 정책적 함의

- 저농약 인증 폐지라는 제도적 변화로 저농약 농산물에 대한 인증실적이 단기적으로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따라서 저농약 인증농가의 신속한 유기와 무농약 인증 전환 및 유기농업 실천농가 육성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
- 친환경농업 인증실적을 보면 지자체별로 친환경농업육성 전략에 따라 상당한 격차가 나타나므로 지역단위에서 친환경농업이 확산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친환경농업 육성정책이 중요한 관건임. 더 나아가 지역적 특색에 맞는 품목과 브랜드 발굴을 통한 지역별로 차별화된 친환경농업 육성

전략이 마련되어야 함.

- 중국의 수출위주 유기농산물 또는 유기식품(녹색식품) 육성전략은 향후 우리나라 친환경농업 발전에 상당한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이러한 대외적 위협 요인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친환경농산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함.
- 또한 일본의 해외인증 급증과 유럽 선진국의 유기농산물 공급부족현상은 우리나라가 유기농산물을 수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임. 특히 일본은 해외인증 유기농산물과 가공품의 해외의존 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 특유의 고품질 유기농산물 및 가공품을 개발·육성하여 일본과 유럽, 미국에 수출할 수 있는 공세적인 전략 개발이 필요함.
- 친환경농식품 소비촉진을 위해 가격 프리미엄을 낮출 수 있는 생산 및 유통 부문의 적절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
 - 설문조사 분석결과, 친환경농식품 구입 경험자 및 비경험자 모두 향후 구입확대를 위해 가격인하가 가장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응답하였음. 현재 가격 프리미엄은 유기농식품을 예로, 유기농산물 1.9배, 유기가공식품 2.02배로 유기농산물 1.47배, 국산유기가공식품 1.5배⁴⁾의 지불의향가격에 비해 크게 높았음.
 - 친환경농산물의 경우 친환경직불제의 단가를 상향조정 및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친환경농자재지원을 통해 생산비를 절감할 필요가 있음. 친환경농업 직접지불금은 친환경농업 실천에 따른 수량감소와 생산비 증가분을 반영하여 산정되었으나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여 보다 현실화 시킬 필요가 있음. 또한 지급방식도 3년간 동일금액을 지원하는 방식에서 연차별 차등지원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친환경농업 직불제의 연차

4) 정학균·장정경(2011), 47p.

별 차등 지급안으로 논 농업을 예로 들면 유기재배의 경우 1~2년차(1단계)는 60~70만 원, 3~4년차(2단계) 50~60만 원, 5년차 이후(3단계)는 30만 원 수준에서 10년간 지급토록 조정할 필요가 있음. 또, 친환경농산물 종합물류센터 건립을 통해 물류비용을 절감시킬 필요가 있음. 친환경농산물 상당량이 생협, 직거래 등 폐쇄적 경로를 통해 유통되고 있음. 이러한 개별 단체를 통한 유통은 고비용, 고가격 구조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불리하기 때문임.

- 유기농가공식품의 경우 가공업체 생산 및 유통의 규모화와 효율화가 필요함. 특히 유기농산물의 생산-가공-유통이 대단지에서 집약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절한 지역을 선정하여 유기농식품 클러스터(또는 유기농 푸드밸리)를 조성할 필요가 있음.
- 친환경농식품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시킬 수 있도록 철저한 인증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함.
 - 소비자조사 분석결과, 친환경농산물 구입 애로사항으로 ‘인증제도의 이해와 신뢰성’에 대해 구매경험자는 세 번째, 비경험자는 두 번째로 어려움이 많다고 응답하였음. 또, 가공식품 소비확대를 위해 ‘인증제도 개선 및 관리강화’를 구매경험자와 비경험자 모두 두 번째로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음. 순위형 로짓분석 결과, 인증제도에 만족할수록 유기농 가공식품 소비를 늘리는 것으로 나타났음.
 - 현재 인증제도는 친환경농업육성법과 식품산업진흥법으로 이원화되어 있어 사업자 및 인증기관이 이중으로 지정됨에 따라 불필요한 비용부담이 발생하므로 인증제도를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음.
 - 친환경농식품 인증마크가 새겨져 있지만 오히려 일반 농식품보다 위해물질이 더 많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난다면 안전성이나 웰빙 때문에 친환경농식품을 소비하는 소비자들의 소비의욕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 따라서 인증기관의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인증기관에 대한 모니터링을 내실 있게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관계법령을 정비할 필요

가 있음.

- 친환경농식품 소비촉진을 위해 가공식품의 경우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품목을 다양화시킬 필요가 있음.
 - 설문조사 분석결과, 유기가공식품의 다양화는 낮은 순위로 응답하였지만, 일반 가공식품에 비해 아이টে이 한정되어 있다면 소비의 제약요인이 될 수 있을 것임.
 - 국산 유기가공식품업체는 일반 가공식품의 아이টে이를 벤치마킹할 수도 있겠지만 소비에 있어 유기가공식품의 특징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품목류(유아식/분유, 쌀가공식품 등)를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아이টে이를 개발할 필요가 있음.
- 친환경농식품 소비촉진을 위해 실효성 있는 마케팅 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순위형 로짓분석 결과, 나이가 젊을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유기가공식품 소비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또, 설문조사 분석결과, 소비자들은 친환경농식품의 적당한 구입처나 전문매장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음.
 - 젊은 연령층의 고소득자를 대상으로 차별적 마케팅 전략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백화점에서 친환경농식품의 구색을 갖추어 줌으로써 일괄구매가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임.
 - 구입의 편리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대형할인마트에 친환경농식품 혹은 유기농식품 전문판매코너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친환경농산물 판로확대를 위해서는 학교급식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
 - 설문조사 결과, 미취학 아동이나 초중고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경우 친환경농산물의 급식재 활용에 대해 10% 정도를 초과 부담할 수 있는 계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 학생들의 소비패턴을 고려한 맞춤형 식자재 공급으로 지속적인 소비가 가능하도록 접근할 필요가 있음.

- 친환경농식품의 건강과의 관계성 및 환경영향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음.
 - 소비자조사 결과, 친환경농식품 섭취와 가족건강의 관계성에 대하여 친환경농산물 소비자의 72.0%, 유기가공식품 소비자의 48.8%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음. 또, 순위형 로짓분석 결과에서 건강증진도가 높다고 인식할수록 향후소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음.
 - 친환경농식품 홍보전략 수립 시 친환경농식품과 건강과의 관계성에 대한 과학적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가족건강증진에 관한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함. 뿐만 아니라 친환경농식품의 환경영향에 대한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시켜 홍보할 필요가 있음.
- 최근 국내외적으로 친환경농식품 생산은 소비자들의 안전성에 대한 관심과 환경 질에 대한 수요 증가에 힘입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향후 상당한 친환경농식품 시장규모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또한 유기가공품의 원료로 유기농산물 수입량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따라서 친환경농식품의 소비활성화와 수입유기농산물 증가에 대비한 적절한 대응책 마련이 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임.

부록 1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 현황

부표 1. 지역별 친환경농산물 인증실적(2001-2011)

단위: ha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서울	5	19	17	10	14	15	16	26	35	39	31
부산	12	40	319	228	309	357	396	363	377	336	331
대구	10	49	145	140	164	175	191	658	598	587	461
인천	25	154	187	261	433	968	1,067	1,055	1,049	1,106	1,220
광주	2	2	33	50	66	103	253	358	342	342	281
대전	5	20	44	36	50	66	68	80	76	72	69
울산	73	84	144	198	315	341	465	554	658	677	662
경기	333	1,686	2,493	2,951	4,042	5,173	6,117	6,652	7,424	7,653	7,601
강원	338	1,172	2,495	2,894	3,951	4,668	5,487	6,622	14,889	15,132	7,963
충북	677	866	1,602	1,892	2,688	3,672	4,012	4,689	5,453	5,281	5,116
충남	868	1,539	2,809	3,295	4,841	4,967	5,987	9,191	15,521	15,513	15,953
전북	228	496	1,293	1,710	3,861	5,932	7,974	8,736	12,563	12,285	10,647
전남	422	1,110	2,949	4,057	13,771	29,431	65,619	101,255	104,682	98,112	87,817
경북	832	1,948	4,253	5,934	9,104	11,598	15,682	19,968	23,318	22,326	20,109
경남	451	1,276	2,050	3,081	4,498	6,009	7,323	11,613	12,247	12,043	11,882
제주	275	781	1,406	1,479	1,699	1,523	2,225	2,289	2,456	2,502	2,531
계	4,556	11,242	22,239	28,216	49,806	74,998	122,882	174,109	201,688	194,006	172,674

주: 친환경농산물 인증실적은 유기, 무농약, 저농약 농산물의 실적을 합한 수치임.

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친환경인증통계정보(<http://www.enviagro.go.kr>).

부표 2. 지역별 유기농산물 인증실적(2001-2011)

단위: ha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서울	2	5	5	1	1	1	2	5	0	0	1
부산	1	1	1	2	2	2	2	2	2	2	2
대구	0	0	1	1	17	16	19	431	94	97	26
인천	0	9	30	44	55	70	103	117	121	166	186
광주	2	2	2	2	1	4	7	12	4	6	6
대전	2	4	4	3	3	3	3	3	4	4	5
울산	0	0	0	0	0	3	0	8	9	57	59
경기	72	287	420	615	890	1,162	1,251	1,443	1,815	1,972	1,983
강원	66	118	266	877	1,025	1,241	1,215	1,380	1,281	1,636	1,976
충북	17	151	308	306	383	613	595	640	734	870	928
충남	96	436	843	1,013	1,525	1,646	1,750	1,402	1,581	1,655	1,835
전북	25	79	133	187	316	663	897	1,069	1,384	1,631	1,893
전남	63	153	259	416	697	1,380	1,476	2,410	2,745	3,323	5,983
경북	61	241	483	450	519	583	715	1,181	1,612	1,807	1,886
경남	12	29	143	215	389	557	526	818	838	981	1,281
제주	31	87	427	490	271	616	1,168	1,114	1,119	1,310	1,262
계	450	1,602	3,325	4,622	6,094	8,560	9,729	12,035	13,343	15,517	19,312

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친환경인증통계정보(<http://www.enviagro.go.kr>).

부표 3. 지역별 무농약농산물 인증실적(2001-2011)

단위: ha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서울	1	12	11	9	13	10	6	5	22	30	27
부산	1	1	1	8	23	91	97	141	142	156	164
대구	7	21	40	48	49	60	60	73	67	100	156
인천	4	80	86	95	137	337	533	672	703	773	921
광주	0	0	0	2	6	6	36	74	59	116	200
대전	1	0	5	1	6	7	6	7	7	6	21
울산	0	0	2	56	61	69	71	110	129	128	153
경기	161	788	1,167	1,211	1,485	1,882	2,072	1,925	2,325	2,813	3,231
강원	164	765	1,495	1,481	2,025	2,419	2,912	3,689	11,903	12,019	4,899
충북	508	249	455	459	984	1,413	1,442	1,642	1,930	2,114	2,289
충남	52	278	586	754	1,180	847	1,198	1,289	1,400	2,268	3,491
전북	50	104	471	478	1,075	2,029	2,997	3,590	4,501	5,171	5,339
전남	81	233	534	991	2,209	4,180	10,591	23,725	40,015	59,731	63,283
경북	99	204	654	1,412	2,404	2,875	3,024	3,242	3,881	4,678	5,726
경남	106	543	658	677	975	1,174	1,439	1,821	2,904	3,483	4,274
제주	60	450	592	758	1,171	668	804	933	1,051	947	1,079
계	1,295	3,728	6,757	8,440	13,803	18,067	27,288	42,938	71,039	94,533	95,253

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친환경인증통계정보(<http://www.enviagro.go.kr>).

부표 4. 지역별 저농약농산물 인증실적(2001-2011)

단위: ha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서울	2	2	1	0	0	4	8	16	13	9	3
부산	10	38	317	218	284	264	297	220	233	178	165
대구	3	28	104	91	98	99	112	154	437	390	279
인천	21	65	71	122	241	561	431	266	225	167	113
광주	0	0	31	46	59	93	210	272	279	220	75
대전	2	16	35	32	41	56	59	70	65	62	43
울산	73	84	142	142	254	269	394	436	520	492	450
경기	100	611	906	1,125	1,667	2,129	2,794	3,284	3,284	2,868	2,387
강원	108	289	734	536	901	1,008	1,360	1,553	1,705	1,477	1,088
충북	152	466	839	1,127	1,321	1,646	1,975	2,407	2,789	2,297	1,899
충남	720	825	1,380	1,528	2,136	2,474	3,039	6,500	12,540	11,590	10,627
전북	153	313	689	1,045	2,470	3,240	4,080	4,077	6,678	5,483	3,415
전남	278	724	2,156	2,650	10,865	23,871	53,552	75,120	61,922	35,058	18,551
경북	672	1,503	3,116	4,072	6,181	8,140	11,943	15,545	17,825	15,841	12,497
경남	333	704	1,249	2,189	3,134	4,278	5,358	8,974	8,505	7,579	6,327
제주	184	244	387	231	257	239	253	242	286	245	190
계	2,811	5,912	12,157	15,154	29,909	48,371	85,865	119,136	117,306	83,956	58,109

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친환경인증통계정보(<http://www.enviagro.go.kr>).

부록 2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 현황

부표 5. 재배면적 기준 기관별 친환경농산물 인증실적(2011)

단위: ha

기관별	유기	무농약	저농약	계
품관원	6,282	14,826	30,115	51,223
(사)양평친환경인증센터	244	789	98	1,131
(사)울진환경농업연구회	747	234	0	981
(사)전라남도친환경농업교육원	81	22	0	103
(사)제주농림수산식품인증센터	3	44	0	47
(사)제주생태도시연구소	40	417	66	523
(사)한국온실작물연구소	306	8,862	3,920	13,088
(사)한국콩가공식품협회	28	4	0	32
(유)돌나라유기인증코리아	580	0	0	580
(재)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5	55	49	109
(재)하동녹차연구소친환경농림산물인증센터	125	0	0	125
(주)녹색친환경농산물인증센터	3	48	0	51
(주)대한인증원	0	17	0	17
(주)동부한농	0	179	165	344
(주)미래친환경농업인증센터	269	5,897	375	6,541
(주)부강테크	0	0	1	1
(주)비씨에스코리아	170	342	0	512
(주)스페이스	296	10,250	1,947	12,493
(주)씨엠씨코리아친환경농산물인증센터	30	671	0	701
(주)아이에스씨농업발전연구소	309	1,026	951	2,286
(주)에버그린농우회	41	435	722	1,198
(주)온누리친환경	43	757	808	1,608
(주)우리농인증원	19	245	0	264
(주)웰빙친환경인증센터	29	957	312	1,298
(주)지리산인증	146	224	0	370
(주)친우	28	272	36	336

부표 5. 계속

단위: ha

기관별	유기	무농약	저농약	계
(주)컨트롤유니온씨티피케이손코리아	183	9	0	192
(주)푸른환경농업연구소	28	1,062	1,539	2,629
(주)한국농산업연구소	0	13	0	13
(주)한국유기농인증원	291	390	604	1,285
(주)한국친환경유기인증센터	954	369	46	1,369
강릉원주대학교(산학)	24	576	41	641
강원대학교(산학)	233	775	181	1,189
건국대학교(산학)	5	18	35	58
건국에코씨트인증원(주)	414	57	28	499
경남과학기술대학교(산학)	21	762	735	1,518
경북대학교(산학)	0	1	0	1
국립경상대학교(산학)	103	469	0	572
국립목포대학교(산학)	407	2,330	253	2,990
국립순천대학교(산학)	495	2,206	1,124	3,825
글로벌유농인(영농)	349	579	1,260	2,188
남부대학교(산학)	34	1,334	0	1,368
네오바이오(주)	0	17	0	17
농업회사법인(주)성농	203	1,525	470	2,198
농업회사법인(주)이-셀트	638	3,655	174	4,467
농업회사법인(주)지아이	689	2,613	600	3,902
농업회사법인(주)팜슨	4	192	537	733
농업회사법인그린스타농식품인증원(주)	127	325	0	452
농업회사법인예농(주)	2	17	398	417
농업회사법인제이케이(주)	12	1,622	0	1,634
농업회사법인한국농심회	200	339	0	539
농협중앙회	5	0	0	5
단국대학교(산학)	0	45	0	45
동신대학교(산학)	5	1,275	531	1,811
롯데쇼핑(주)롯데마트	0	23	0	23

부표 5. 계속

단위: ha

상지대학교(산학)	282	321	24	627
세종생명농업연구원(주)	9	691	0	700
오씨케이(주)	456	275	0	731
이클린친환경인증(영농)	342	4,739	4,177	9,258
전남대학교(산학)	655	1,292	475	2,422
전남친환경인증센터	211	5,734	0	5,945
전북대학교(산학)	12	147	0	159
전주대학교(산학)	51	859	254	1,164
제주대학교(산학)	36	242	3	281
천안연암대학(산학)	39	199	1,782	2,020
충북대학교(산학)	38	216	2	256
토지(영농)	372	6,300	2,786	9,458
한경대학교(산학)	2	187	309	498
한국농식품인증원(주)	1,469	709	176	2,354
해진친환경(영농)	37	4,102	0	4,139
효성오앤비(주)	51	69	0	120
계	19,312	95,253	58,109	172,674

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자료.

부록 3

친환경농산물 소비자조사표

안녕하십니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친환경농식품의 생산·소비 실태와 시장전망」 연구 수행을 위해 소비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선생님의 의견은 향후 소비자들이 원하는 친환경농식품 생산 및 소비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어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문의처: hak8247@krei.re.kr

[응답자 선정 질문]

1.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남자 ☞ 조사중단	여자
①	②

2.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①	②	③	④	⑤

☞ 10대 이하 조사중단

3. 귀하의 현재 거주지역은 어디입니까?

-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⑧ 경기 ⑨ 강원 ⑩ 충청
 ⑪ 전라 ⑫ 경상 ⑬ 제주

3-1. [문3의 1.서울 응답자만] 귀하가 **거주**하고 계시는 **구**는 어디입니까?

- ① 노원구 ② 도봉구 ③ 강북구 ④ 성북구 ⑤ 동대문구
 ⑥ 성동구 ⑦ 광진구 ⑧ 중랑구 ⑨ 은평구 ⑩ 서대문구
 ⑪ 마포구 ⑫ 종로구 ⑬ 중구 ⑭ 용산구 ⑮ 강남구
 ⑯ 송파구 ⑰ 서초구 ⑱ 강동구 ⑲ 양천구 ⑳ 구로구
 ㉑ 영등포구 ㉒ 동작구 ㉓ 관악구 ㉔ 강서구 ㉕ 금천구

4. 귀하께서는 결혼을 하셨습니까?

미혼 ☞ 조사중단	기혼
①	②

4-1. 결혼을 하셨다면 귀하는 전업주부이십니까, 취업주부이십니까?

전업주부	부업주부	취업주부	기타()
①	②	③	④

<친환경농산물 설명필요>

5. 귀하께서는 최근 6개월 이내 친환경농산물(유기, 무농약)을 구입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다	아니다
①	② ☞ 조사중단

[응답자 정보]

※ 다음은 통계처리를 위한 응답자 기초 정보 관련된 문항입니다.

1. 귀하의 최종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중학교 졸업 이하	고등학교 졸업	대졸(전문대 포함)	대학원졸 이상
①	②	③	④

2. 귀하가 성인이 되기 전 주로 거주한 지역은 어디입니까?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	기타()
①	②	③	④

3. 귀댁의 한달 평균 총소득(세금을 제외한 순수한 소득, 임대 및 이자소득 포함)은 얼마입니까?

200만원 미만	200-300만원 미만	300-400만원 미만	400-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①	②	③	④	⑤

4. 귀하를 포함하여 현재 같이 살고 있는 가족수는 총 몇 명입니까?(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가족은 제외)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이상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5. 귀 댁에 살고 있는 미취학, 초중고생 자녀는 각각 몇 명입니까?

미취학 및 초등학생 자녀	()명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명
합계	()명

< ON : 합계는 자동 계산, 합계가 D4(가족수)보다 적어야 함 >


6. 가족구성원 중 아토피, 암, 당뇨, 고혈압이 있는 분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①  문 D6-1로	②

D6-1. [D6의 1 응답자만] 질환이 있다면 다음 중 어느 질환입니까? 모두 선택해 주세요.

아토피	암	당뇨	고혈압
①	②	③	④

7. 귀하께서는 친환경농산물을 지속적으로 소비해 오셨습니까?

그렇다	아니다
①  문 D7-1로	②

D7-1. [D7의 1 응답자만] 그렇다면 친환경농산물을 소비해온 기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① 6개월 미만	② 6개월 이상~1년 미만	③ 1년 이상~2년 미만
④ 2년 이상~3년 미만	⑤ 3년 이상~4년 미만	⑥ 4년 이상~5년 미만
⑦ 5년 이상		

8. 귀하는 소비자단체(생활협동조합 등)의 회원입니까?

그렇다	아니다
①	②

[친환경농산물 인식]

■ 친환경농산물의 정의

친환경농산물은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준수, 작물별 시비기준량 준수, 적절한 가축사료 첨가제 사용 등으로 화학자재 사용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하고, 축산분뇨의 적절한 처리 및 재활용 등을 통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친환경농업을 통해 생산된 농산물을 말합니다.

■ 친환경농산물의 종류

- 1) **유기농산물**: 전환기간 3년이상을 유기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고 재배한 농산물
- 2) **무농약농산물**: 유기합성농약은 일체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는 가급적 권장 시비량의 1/3 이내로 사용하여 재배한 농산물
- 3) **저농약농산물**: 화학비료와 농약을 권장량의 1/2 이내로 사용하고, 제초제는 사용하지 않고 재배한 농산물

■ 친환경농산물 인증마크



※ 저농약농산물제도는 곧 폐지되므로 본 조사표의 친환경농산물은 유기농산물과 무농약농산물을 말합니다.

■ 다음은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여쭙어 보겠습니다. 본 문항은 귀하의 의견을 여쭙는 것이니 정답은 없으니 편하게 응답해 주십시오.

문1. 귀하께서는 친환경농산물(유기, 무농약)을 일반농산물과 어떻게 구분하십니까?

- | | |
|---------------------------|---------------------|
| ① 품질인증표시를 보고 | ② 유통회사의 상표를 보고 |
| ③ 생산방식의 설명표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 ④ 소비자 단체를 통해서 구입 |
| ⑤ 생산자를 믿고 직접 구입 | ⑥ 기타 【 】 |

문2. 친환경농산물(유기, 무농약)의 **인증제도, 안전성, 품질**에 대한 귀하의 신뢰정도를 **표시(✓)**해 주십시오.

	① 매우 낮음	② 낮음	③ 보통	④ 높음	⑤ 매우 높음
1) 인증제도에 대한 신뢰도					
2) 안전성에 대한 신뢰도					
3) 품질에 대한 신뢰도					

문3. 다음에 제시된 농산물 안전성 정보에 대해 귀하께서는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시는지 **표시(✓)**해 주십시오.

	① 매우 둔감	② 둔감	③ 보통	④ 민감	⑤ 매우 민감
1) 잔류농약					
2) 중금속 함량					
3) 화학비료 사용 여부					

문4. 귀하는 친환경농산물(유기, 무농약) 인증기관(국가기관, 민간인증기관) 중 어디를 더 신뢰하십니까?

- ① 국가기관에서 인증해주는 것을 더 신뢰한다 ② 민간 인증기관을 더 신뢰한다
 ③ 모두 신뢰한다 ④ 모두 신뢰하지 않는다
 ⑤ 잘 모르겠다

문5. 귀하는 **국산** 유기농산물(농약과 화학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은 농산물, 유기가공품 포함)과 **수입** 유기농산물 중 **안전성** 면에서 어느 것을 더 신뢰하십니까?

- ① 국산 유기농산물을 더 신뢰한다 ② 수입 유기농산물을 더 신뢰한다
 ③ 모두 신뢰한다 ④ 모두 신뢰하지 않는다
 ⑤ 잘 모르겠다

문6. 귀하는 **국내 유기농산물 인증제도**와 **국제 유기농산물 인증제도** 중 어느 것을 더 신뢰하십니까?

- ① 국내 유기농산물 인증제도를 더 신뢰한다
 ② 국제 유기농산물 인증제도를 더 신뢰한다
 ③ 모두 신뢰한다
 ④ 모두 신뢰하지 않는다
 ⑤ 잘 모르겠다

문9. 일반농산물과 비교하여 친환경농산물의 소비가 귀하나 귀하 가족의 건강증진에 얼마나 도움이 된
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도움 별로 도움 보통 약간 매우
되지 않음 되지 않음 도움 됨 도움 됨
①-----②-----③-----④-----⑤

문10. 귀하께서는 일반농산물의 가격과 비교하여 친환경농산물의 가격수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저렴한 편 보통 비싼 편 매우
저렴한 편 비싼 편
①-----②-----③-----④-----⑤

문11. 귀댁의 소득과 비교하여 친환경농산물의 가격수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저렴한 편 보통 비싼 편 매우
저렴한 편 비싼 편
①-----②-----③-----④-----⑤

[구입경험 평가 및 향후 구매의향]

문12. 귀하께서는 친환경농산물(유기, 무농약) 소비계층과 관련하여 어디에 속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친환경농산물의 지속적인 소비계층(1개월에 4회 이상 친환경농산물 구매 계층)
- ② 친환경농산물 보통 소비계층(1개월에 1회 이상 친환경농산물 구매 계층)
- ③ 친환경농산물 관심 계층(6개월 이내에 1회 이상 친환경농산물 구매계층)

문13. 다음 중 귀하께서 구입해 본 경험이 있는 친환경농산물(유기, 무농약)은 어떤 품목입니까? 모두
체크해 주세요.

- ①() 곡류 : 쌀, 잡곡, 콩 등
- ②() 채소류 : 배추, 상추, 무, 시금치, 콩나물 등
- ③() 과채류 : 수박, 참외, 토마토, 딸기 등 밭에서 재배되는 열매류
- ④() 과실류 : 사과, 포도, 배, 감, 복숭아 등 나무에서 열리는 열매류

문20-2. 자주 구입하는 친환경농산물(유기, 무농약)의 브랜드를 부류별로 3가지 이내로 기입해 주십시오.

	브랜드 1	브랜드 2	브랜드 3
곡류(쌀)			
채소류			
과실류			
과채류			

문21. 친환경농산물(유기, 무농약) 브랜드는 어떤 브랜드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많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대중브랜드
- ② 특정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명품브랜드
- ③ 기타()

문22. 귀하께서는 외국에서 수입되는 유기농산물에 대한 구입 의향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문22-1로](#)
- ② 없다 --> [문23로](#)

문22-1. 외국산 유기농산물에 대한 구입 의향이 있는 경우 외국농산물 가격수준이 국내 유기농산물 대비 어느 정도 수준이면 구입하겠습니까?

- ① 국내 유기농산물 가격과 유사한 수준이면 구입한다.
- ② 국내 유기농산물 가격보다 20~30% 저렴해야 구입한다.
- ③ 국내 유기농산물 가격보다 20%~30% 비싸도 구입한다. --> [문22-2로](#)
- ④ 유기농산물의 경우 수입산에는 관심이 없다.

문22-2. 국내 유기농산물 가격보다 비싸도 구입하겠다고 답한 경우 어떤 요인에서 결정하시게 되셨습니까?

- ① 국내 유기농산물보다 안정성이 높을 것 같아서
- ② 원하는 상품이나 포장단위 등 구색이 잘 맞아서
- ③ 수입 유기농산물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서
- ④ 기타()

[친환경농산물 가격부문]

문23. 지금까지 귀하의 친환경농산물(유기, 무농약) 구입 경험 또는 평소 느낌을 기준으로 볼 때, 일반농산물의 가격을 1,000원으로 보았을 때 각각의 친환경농산물의 가격은 **현재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같은 양일 경우)

※ 귀하께서 구입한 경험이 있는 품목에 대해 평소 느꼈던 체감가격으로 답변해주십시오.

인증구분 품목	친환경농산물		일반농산물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곡류(쌀, 잡곡 등)	원	원	1,000원
채소류(상추, 배추 등)	원	원	1,000원
과채류(딸기, 토마토 등)	원	원	1,000원
과실류(사과, 배 등)	원	원	1,000원

문24. 만약 귀하께서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가격을 결정한다고 가정할 경우, 일반농산물의 가격을 1,000원으로 보았을 때 각각의 친환경농산물에 대해서 귀하가 생각하시는 **친환경농산물의 유익한 점을 고려한 '적정가격'**을 기입해 주십시오. (같은 양일 경우)

인증구분 품목	친환경농산물		일반농산물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곡류(쌀, 잡곡 등)	원	원	1,000원
채소류(상추, 배추 등)	원	원	1,000원
과채류(딸기, 토마토 등)	원	원	1,000원
과실류(사과, 배 등)	원	원	1,000원

※ 문23, 24의 각 셀의 보기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1,000원	1,100원	1,200원	1,300원	1,400원	1,500원	1,600원	1,700원	1,800원	1,900원	2,000원
⑫	⑬	⑭	⑮	⑯	⑰	⑱	⑲	⑳	㉑	
2,100원	2,200원	2,300원	2,400원	2,500원	2,600원	2,700원	2,800원	2,900원	3,000원 이상	

문25. 귀댁의 한달 평균 총 식료품의 구입비용은 어느 정도 입니까?

월평균 ()만원

문25-1. 귀댁의 총 식료품 비용 중 친환경농산물(유기, 무농약) 구입에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를 지출하십니까?

월평균 ()만원

문26. 친환경농산물(유기, 무농약)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가장 바람직한 방안은 무엇인지 두 가지를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

- ① 현행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를 보다 철저하게 관리
- ② 위반 시 벌칙 강화 등 현행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의 개편을 통한 엄격한 관리
- ③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유통, 소비 전 과정을 추적할 수 있는 이력추적관리시스템 도입
- ④ 소비자 단체 등 NGO 등을 통한 모니터링 강화
- ⑤ 문제 발생시 반품 또는 환불 등의 친환경농산물 리콜제 도입

문27. 귀하께서 **친환경농산물**(유기, 무농약)을 주로 구입하시는 장소는 어디 입니까?

【1순위: 】

【2순위: 】

- ① 직거래단체(한살림, 한국생협연대, 여성민우회생협 등)
- ② 백화점
- ③ 전문매장(초록마을, 유기농하우스 등)
- ④ 대형할인마트
- ⑤ 농협계통(하나로클럽, 하나로마트)
- ⑥ 인터넷 또는 홈쇼핑(온라인)
- ⑦ 생산자조직(영농조합법인, 작목반 등)
- ⑧ 일반 슈퍼마켓
- ⑨ 인터넷 또는 홈쇼핑(온라인)
- ⑩ 기타 【 】

문27-1. 귀하께서 **친환경농산물**(유기, 무농약)을 (1순위 장소)에서 주로 구입하시는 이유는?

【1순위: 】

【2순위: 】

- ① 타 판매처에 비해 저렴한 가격
- ② 판매처나 판매자에 대한 신뢰
- ③ 다양한 판촉행사
- ④ 다양한 품목단위와 지속적인 농산물 공급
- ⑤ 매장 직원의 친절
- ⑥ 구입의 편리성(집에서 가깝거나 다른 제품 구입하기에도 좋아서)
- ⑦ 기타 【 】

문28. 친환경농산물(유기, 무농약) 판로확대를 위해 안정적인 수요처의 발굴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초·중·고 등 학교단체 급식에서 친환경농산물 식자재 사용
- ② 군대급식에서 친환경농산물 식자재 사용
- ③ 병원, 기업 등에서 친환경농산물 식자재 사용
- ④ 친환경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제품 개발 확대
- ⑤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 강화

문29. 귀하께서 학교급식 비용이 증가하더라도 급식재료로 친환경농산물(유기, 무농약)을 사용하는 데 찬성하십니까?

(학부모의 경우만 답해주시고, 학부모가 아닌 경우는 다음 문제를 답하시면 됩니다)

- ① 예 (학부모인 경우) ② 아니오 (학부모가 아닌 경우)

문29-1. 친환경농산물(유기, 무농약)로 학교급식을 전환할 경우 현재 학교급식 비용 대비 최대로 지불 가능한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참고로 현재 학교급식비 단가는 학교마다 차이가 있으나 2,000~3,000원 수준입니다)

- ① 현 급식비보다 10% 정도 초과부담 가능
 ② 현 급식비보다 20% 정도 초과부담 가능
 ③ 현 급식비보다 10% 부담하고, 중앙정부(또는 지방정부)에서 10% 부담

☞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집된 자료는 소비자의 소중한 의견으로 활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환경농산물 비경험자 의향조사]

문30.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①	②	③	④	⑤

문31. 귀하의 현재 거주지역은 어디입니까?

서울	수도권	기타 ☞ 조사중단
①	②	③

문32. 귀하께서는 결혼을 하셨습니까?

미혼 ☞ 조사중단	기혼
①	②

문32-1. 결혼을 하셨다면 귀하는 전업주부이십니까, 취업주부이십니까?

전업주부	부업주부	취업주부	기타()
①	②	③	④

문33. 귀하의 최종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중학교 졸업 이하	고등학교 졸업	대졸(전문대 포함)	대학원졸 이상
①	②	③	④

문34. 귀하가 성인이 되기 전 주로 거주한 지역은 어디입니까?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	기타()
①	②	③	④

문35. 귀댁의 한달 평균 총소득(세금을 제외한 순수한 소득, 임대 및 이자소득 포함)은 얼마입니까?

200만원 미만	200-300만원 미만	300-400만원 미만	400-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①	②	③	④	⑤

문36. 귀하를 포함하여 현재 같이 살고 있는 가족수는 총 몇 명입니까?(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가족은 제외)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이상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문37. 귀 댁에 살고 있는 미취학, 초·중·고생 자녀는 각각 몇 명입니까?

미취학 및 초·중·고생 자녀	()명
중·고생 및 고·등·고·학·생 자녀	()명

문38. 귀하는 다음의 ‘친환경농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친환경농업은 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적게 쓰는 농법이다
- ② 친환경농업은 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전혀 쓰지 않는 유기농법이다
- ③ 친환경농업은 환경보전을 중시하는 특수농법이다
- ④ 친환경농업은 환경과 건강을 동시에 고려하는 농업이다
- ⑤ 친환경농업은 과거의 전통농법이다

문39. 귀하께서 지금까지 친환경농산물(유기, 무농약)을 구입하지 않은 이유를 중요도 순으로 2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 【2순위: 】

- ① 가격이 비싸서
- ② 친환경농산물 인증에 대한 이해와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생산, 유통 정보 등)
- ③ 적당한 구입처를 찾기 어려워서
- ④ 모양, 색상 등 외관이 기존 농산물에 비해 나빠서
- ⑤ 원하는 품목(농산물)이나 포장단위가 없어서
- ⑥ 기존 일반농산물로도 충분히 만족하기 때문
- ⑦ 기타 【 】

문40. 귀하께서는 친환경농산물(유기, 무농약)의 신뢰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높음 ② 높음 ③ 보통 ④ 낮음 ⑤ 매우 낮음

문41. 귀하의 향후 친환경농산물(유기, 무농약) 소비의향은 어떻습니까?

- ① 여건이 허락된다면 구입할 것이다 ② 별로 구입할 의향이 없다
③ 잘 모르겠다

문42. 일반농산물의 가격을 1,000원으로 보았을 때 현재 귀하가 생각하는 친환경농산물(유기, 무농약)의 **현재가격**은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같은 양일 경우) 해당란에 표시(✓) 하십시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모름	1,000원	1,100원	1,200원	1,300원	1,400원	1,500원	1,600원	1,700원	1,800원	1,900원
⑫	⑬	⑭	⑮	⑯	⑰	⑱	⑲	㉔	㉕	㉖
2,000원	2,100원	2,200원	2,300원	2,400원	2,500원	2,600원	2,700원	2,800원	2,900원	3,000원 이상

문42-1. 만약 귀하가 친환경농산물(유기, 무농약)에 대한 가격을 결정한다고 가정할 경우, 일반농산물의 가격을 1,000원으로 보았을 때 친환경농산물에 대해서 귀하가 **구입 가능한 '적정가격'**을 기입해 주십시오. (같은 양일 경우) 해당란에 표시(✓) 하십시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모름	1,000원	1,100원	1,200원	1,300원	1,400원	1,500원	1,600원	1,700원	1,800원	1,900원
⑫	⑬	⑭	⑮	⑯	⑰	⑱	⑲	㉔	㉕	㉖
2,000원	2,100원	2,200원	2,300원	2,400원	2,500원	2,600원	2,700원	2,800원	2,900원	3,000원 이상

문42-2. 귀하께서 현재 친환경농산물 가격 수준 (문56에서 응답)에서 귀하의 **소득이 현재보다 얼마나 더 상승하면** 친환경농산물(유기, 무농약)을 구입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 ① 1~10% 증가할 경우 ② 11~20% 증가할 경우
③ 21~30% 증가할 경우 ④ 31~40% 증가할 경우
⑤ 41~50% 증가할 경우 ⑥ 51% 이상 증가할 경우
⑦ 소득상승과는 무관하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집된 자료는 소비자의 소중한 의견으로 활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4

친환경농가공식품 소비자조사표

안녕하십니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는 「친환경농식품의 생산·소비실태와 시장전망」 연구 수행을 위해 소비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선생님의 의견은 향후 소비자들이 원하는 친환경농식품 생산 및 소비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어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문의처: hak8247@krei.re.kr

[응답자 선정 질문]

1.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남자 ☞ 조사중단	여자
①	②

2.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①	②	③	④	⑤

☞ 10대 이하 조사중단

3. 귀하의 현재 거주지역은 어디입니까?

- ① 서울 ② 부산 ③ 대구 ④ 인천 ⑤ 광주
 ⑥ 대전 ⑦ 울산 ⑧ 경기 ⑨ 강원 ⑩ 충청
 ⑪ 전라 ⑫ 경상 ⑬ 제주

3-1. [문3의 1.서울 응답자만] 귀하가 **거주**하고 계시는 **구**는 어디입니까?

- ① 노원구 ② 도봉구 ③ 강북구 ④ 성북구 ⑤ 동대문구
 ⑥ 성동구 ⑦ 광진구 ⑧ 중랑구 ⑨ 은평구 ⑩ 서대문구
 ⑪ 마포구 ⑫ 종로구 ⑬ 중구 ⑭ 용산구 ⑮ 강남구
 ⑯ 송파구 ⑰ 서초구 ⑱ 강동구 ⑲ 양천구 ⑳ 구로구
 ㉑ 영등포구 ㉒ 동작구 ㉓ 관악구 ㉔ 강서구 ㉕ 금천구

4. 귀하께서는 결혼을 하셨습니까?

미혼 ☞ 조사중단	기혼
①	②

4-1. 결혼을 하셨다면 귀하는 전업주부이십니까, 취업주부이십니까?

전업주부	부업주부	취업주부	기타()
①	②	③	④

<친환경농가공식품 설명필요>

5. 귀하께서는 최근 6개월 이내 친환경농가공식품(유기, 무농약)을 구입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다	아니다
①	② ☞ 조사중단

[응답자 정보]

※ 다음은 통계처리를 위한 응답자 기초 정보 관련된 문항입니다.

1. 귀하의 최종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중학교 졸업 이하	고등학교 졸업	대졸(전문대 포함)	대학원졸 이상
①	②	③	④

2. 귀하가 성인이 되기 전 주로 거주한 지역은 어디입니까?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	기타()
①	②	③	④

3. 귀하의 한달 평균 총소득(세금을 제외한 순수한 소득, 임대 및 이자소득 포함)은 얼마입니까?

200만원 미만	200-300만원 미만	300-400만원 미만	400-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①	②	③	④	⑤

4. 귀하를 포함하여 현재 같이 살고 있는 가족수는 총 몇 명입니까?(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가족은 제외)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이상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5. 귀 댁에 살고 있는 미취학, 초중고생 자녀는 각각 몇 명입니까?

미취학 및 초등학생 자녀	()명
중학생 및 고등학생 자녀	()명
합계	()명

< ON : 합계는 자동 계산, 합계가 D4(가족수)보다 적어야 함 >

6. 가족구성원 중 아토피, 암, 당뇨, 고혈압이 있는 분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①  문 6-1로	②

6-1. [6의 1 응답자만] 질환이 있다면 다음 중 어느 질환입니까? 모두 선택해 주세요.

아토피	암	당뇨	고혈압
①	②	③	④

7. 귀하께서는 유기가공식품을 지속적으로 소비해 오셨습니까?

그렇다	아니다
①  문 7-1로	②

7-1. [7의 1 응답자만] 그렇다면 유기가공식품을 소비해온 기간은 얼마나 되십니까?

① 6개월 미만	② 6개월 이상~1년 미만	③ 1년 이상~2년 미만
④ 2년 이상~3년 미만	⑤ 3년 이상~4년 미만	⑥ 4년 이상~5년 미만
⑦ 5년 이상		

8. 귀하는 소비자단체(생활협동조합 등)의 회원입니까?

그렇다	아니다
①	②

[친환경농가공식품 인식]

- **친환경농가공식품**은 친환경농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가공·유통되는 식품을 말한다. 친환경농산물은 유기, 무농약, 저농약의 3단계가 있으며 저농약은 곧 폐지되므로 본 조사표에서는 유기와 무농약만을 지칭한다.
- 친환경농가공식품은 **국산 유기농가공식품**과 **수입 유기농가공식품**, **국산 무농약농가공식품**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국산 유기농가공식품은 국산 및 수입 유기농산물로 만들거나 수입 1차 가공품을 재가공하여 만든 가공식품을 말합니다.
 - 수입 유기농가공식품은 외국산 유기농산물로 외국에서 만들어진 완제품을 수입한 것을 말합니다.
 - 국산 무농약농가공식품은 국산 유기농산물로 만든 가공식품을 말합니다.

문1. 귀하께서는 친환경농 가공식품(유기, 무농약)을 구입하실 때 인증마크를 확인하고 구매하십니까?

그렇다	아니다
①	② ☞ C1-1 문항으로

문1-1. 아니라면 귀하께서는 제품 포장겉면의 “유기”라는 용어를 보고 구입하십니까?

그렇다	아니다
①	②

문2. 귀하께서는 친환경농가공식품 구입시 어떤 식품첨가물이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구입하십니까?

그렇다	아니다
①	②

문3. 귀하께서 친환경농가공식품을 구입하신 장소는 어디입니까? 자주 구입하는 장소부터 1~2순위까지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 | | |
|---------------------------------|------------------------|
| ① 직거래단체(한살림, 한국생협연대, 여성민우회생협 등) | |
| ② 백화점 | ③ 전문매장(초록마을, 유기농하우스 등) |
| ④ 대형할인마트 | ⑤ 농협계통(하나로클럽, 하나로마트) |
| ⑥ 인터넷 또는 홈쇼핑(온라인) | ⑦ 생산자조직(영농조합법인, 작목반 등) |
| ⑧ 일반 슈퍼마켓 | ⑨ 기타() |

문3-1. 귀하께서 응답하신 1순위인 [C3의 1순위 응답] 에서 친환경농가공식품을 주로 구입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타 판매처에 비해 저렴한 가격	② 판매처나 판매자에 대한 신뢰
③ 다양한 판촉 행사	④ 다양한 품목단위와 지속적인 농산물 공급
⑤ 매장 직원의 친절	⑥ 구입의 편리성
⑦ 기타()	

문3-2. 귀하께서 응답하신 2순위인 [C3의 2순위 응답] 에서 친환경농가공식품을 주로 구입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타 판매처에 비해 저렴한 가격	② 판매처나 판매자에 대한 신뢰
③ 다양한 판촉 행사	④ 다양한 품목단위와 지속적인 농산물 공급
⑤ 매장 직원의 친절	⑥ 구입의 편리성
⑦ 기타()	

[구입경험 평가 및 향후 구매의향]

문4. 친환경농가공식품의 가격 수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비싼편이다	비싼편이다	적정한 수준이다	저렴한 편이다	매우 저렴한 편이다
①	②	③	④	⑤
☞ 문 문4-1로				

문4-1. [문4의 1,2 응답자만] 일반가공식품과 비교하여 친환경농가공식품의 가격이 비싸더라도 구입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안전성	맛	건강	영양가	기타()
①	②	③	④	⑤

문5. 귀하께서 구입하는 친환경농가공식품의 가격대비 제품(품질)만족도는 어떠십니까?

매우 만족한다	만족한다	보통이다	불만족스럽다	매우 불만족스럽다
①	②	③	④	⑤

문6. 각 항목별 친환경농가공식품의 한 달 구매 횟수는 어느 정도입니까?

구분	월 1회 미만	월 1회	월 2회	월 3회	월 4회	월 5회 이상
쌀가공식품(떡류, 죽류 등)	①	②	③	④	⑤	⑥
밀가공식품(밀가루, 면류, 빵류 등)	①	②	③	④	⑤	⑥
유아식/분유	①	②	③	④	⑤	⑥
신선반찬류(김치, 두부, 장아찌 등)	①	②	③	④	⑤	⑥
조미양념류(조미료, 장류, 기름류 등)	①	②	③	④	⑤	⑥
다류(녹차, 둥글레차 등)	①	②	③	④	⑤	⑥
음료류(사과주스, 포도즙, 양파주스 등)	①	②	③	④	⑤	⑥
과자류(쿠키, 스낵, 씨리얼 등)	①	②	③	④	⑤	⑥
기타(잼류, 유가공품 등)	①	②	③	④	⑤	⑥

문7. 귀하께서 친환경농가공식품을 구입시 고려사항은 무엇입니까? 가장 고려하시는 사항부터 순서대로 1~3순위 까지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3순위

① 안전성	② 주산지	③ 영양표시	④ 맛
⑤ 가격	⑥ 제조브랜드(가공회사)	⑦ 동일상품의 구입경험	⑧ 구입장소
⑨ 포장디자인	⑩ 유통기한	⑪ 기타()	

문8. 친환경농가공식품을 구매할 때 다음 품질속성을 어느 정도로 중요성을 고려하십니까? 각각의 품질속성별로 체크해 주십시오.

구분	매우 중요하다	중요하다	보통이다	중요하지 않다	매우 중요하지 않다
원산지	①	②	③	④	⑤
가격	①	②	③	④	⑤
영양소	①	②	③	④	⑤
맛	①	②	③	④	⑤
색깔	①	②	③	④	⑤
용기(PET, 파우치, 병, 캔 등)	①	②	③	④	⑤
제품브랜드(제품명, 회사명 등)	①	②	③	④	⑤
농도/たく도	①	②	③	④	⑤
첨가물(색소, 보존료, 향료 등)	①	②	③	④	⑤

문9. 친환경농가공식품의 인증제도, 안전성, 맛에 대한 귀하의 만족수준을 체크해 주십시오.

	매우 높다	높다	보통	낮다	매우 낮다
인증제도에 대한 신뢰도	①	②	③	④	⑤
안전성에 대한 신뢰도	①	②	③	④	⑤
맛에 대한 평가	①	②	③	④	⑤

문10. 귀하는 국산 유기가공식품과 수입 유기가공식품(수입산 완제품) 중 안전성 면에서 어느 것을 더 신뢰하십니까?

① 국산을 더 신뢰한다	② 수입산을 더 신뢰한다
③ 모두 신뢰한다	④ 모두 신뢰하지 않는다
⑤ 모르겠다	

문11. 귀하께서는 국산 유기가공식품과 수입 유기가공식품 가운데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 ① 국내에서 생산된 국산 유기가공식품을 구입하겠다.
- ② 안전하고 믿을 수만 있다면 수입 유기가공식품을 구입하겠다.
- ③ 품목에 따라 선택적으로 이용하겠다.

문13. 일반가공식품과 비교하여 친환경농가공식품의 소비가 귀하나 귀하 가족의 건강증진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십니까?

①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②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③ 특별한 차이는 없는 것 같다	④ 약간 도움이 된다
⑤ 많은 도움이 된다	

문14. 귀하의 정기건강검진 횟수는 어떻게 되십니까?

① 1년에 3회 이상	② 1년에 2회
③ 1년에 1회	④ 2년에 1회
⑤ 2년에 1회 미만	

문15. 귀하의 향후 친환경농가공식품 소비의향은 어떠십니까?

많이 증가할 것이다	증가할 것이다	현 수준을 유지할 것이다	감소할 것이다	많이 감소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문16. 다음 품목 가운데 향후 구입을 확대할 의사가 가장 큰 품목은 무엇입니까?

① 쌀가공식품 (떡류, 죽류 등)	② 밀가공식품 (밀가루, 면류, 빵류 등)
③ 유아식 / 분유	④ 신선반찬류 (김치, 두부, 장아찌 등)
⑤ 조미양념류 (조미료, 장류, 기름류 등)	⑥ 다류 (녹차, 동글레차 등)
⑦ 음료류 (사과주스, 포도즙, 양파주스 등)	⑧ 과자류 (쿠키, 스낵, 씨리얼 등)
⑨ 기타 (잼류, 유가공품 등)	

문17. 귀하께서는 향후 친환경농가공식품을 주로 어느 곳에서 구입하기를 희망하십니까? 가장 구입을 희망하는 장소부터 1~2순위까지 작성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① 직거래단체(한살림, 한국생협연대, 여성민우회생협 등)	③ 전문매장(초록마을, 유기농하우스 등)
② 백화점	⑤ 농협계통(하나로클럽, 하나로마트)
④ 대형할인마트	⑦ 생산자조직(영농조합법인, 작목반 등)
⑥ 인터넷 또는 홈쇼핑(온라인)	⑨ 기타()
⑧ 일반 슈퍼마켓	

[친환경농가공식품 가격부문]

문18. 다음 품목들이 일반 가공식품에 비해 어느 정도까지 가격을 지불하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일반가공식품이 1000원일 경우, 각 부류에 지불하실 의사가 있는 금액을 1,000원 이상으로 작성해 주십시오.

	일반가공식품	국산 유기가공식품	국산 무농약가공식품
쌀가공식품(떡류, 죽류 등)	1,000원	()원	()원
밀가공식품(밀가루, 면류, 빵류 등)	1,000원	()원	()원
유아식/분유	1,000원	()원	()원
신선반찬류(김치, 두부, 장아찌 등)	1,000원	()원	()원
조미양념류(조미료, 장류, 기름류 등)	1,000원	()원	()원
다류(녹차, 동글레차 등)	1,000원	()원	()원
음료류(사과주스, 포도즙, 양파주스 등)	1,000원	()원	()원
과자류(쿠키, 스낵, 씨리얼 등)	1,000원	()원	()원
기타(잼류, 유가공품 등)	1,000원	()원	()원

※ 문18의 각 셀의 보기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1,000원	1,100원	1,200원	1,300원	1,400원	1,500원	1,600원	1,700원	1,800원	1,900원	2,000원
⑫	⑬	⑭	⑮	⑯	⑰	⑱	⑲	⑳	㉑	
2,100원	2,200원	2,300원	2,400원	2,500원	2,600원	2,700원	2,800원	2,900원	3,000원 이상	

문19. 친환경농가공식품의 구입확대를 위해서는 어떠한 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유기가공식품의 가격 인하
- ② 인증제도의 신설 및 관리강화로 신뢰 제고
- ③ 유기가공식품을 취급하는 매장 증가
- ④ 차별화된 제조방법
- ⑤ 유기가공식품의 품목 다양화

문20. 친환경농가공식품의 상품단위 또는 공급과 관련하여 다음 중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애로사항은 무엇입니까?

- ① 원하는 상품이 없는 경우
- ② 원하는 상품은 있으나 포장단위(용량)가 너무 큰 경우
- ③ 원하는 상품은 있으나 포장단위(용량)가 너무 작은 경우
- ④ 원하는 상품의 지속적인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상품이 있다가 없는 경우)
- ⑤ 해당사항 없음(상품선택에 불편사항 없음)

문21. 친환경농가공식품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원재료의 산지 및 생산자 공개
- ② 제조방법 및 과정을 명확하게 공개
- ③ 인증제도의 신설 및 관리강화
- ④ 제조업자 신상공개
- ⑤ 식품첨가물에 관한 내용 공개 철저
- ⑥ 기타()

문22. 친환경농가공식품과 관련하여 하고 싶은 말씀이나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집된 자료는 소비자의 소중한 의견으로 활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환경농가공식품 비경험자 소비의향]

문23.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이상
①	②	③	④	⑤

문24. 귀하의 현재 거주지역은 어디입니까?

서울	수도권	기타 ☞ 조사중단
①	②	③

문25. 귀하께서는 결혼을 하셨습니까?

미혼 ☞ 조사중단	기혼
①	②

문25-1. 결혼을 하셨다면 귀하는 전업주부이십니까, 취업주부이십니까?

전업주부	부업주부	취업주부	기타()
①	②	③	④

문26. 귀하의 최종 학력은 어떻게 되십니까?

중학교 졸업 이하	고등학교 졸업	대졸(전문대 포함)	대학원졸 이상
①	②	③	④

문27. 귀하가 성인이 되기 전 주로 거주한 지역은 어디입니까?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	기타()
①	②	③	④

문28. 귀하의 한달 평균 총소득(세금을 제외한 순수한 소득, 임대 및 이자소득 포함)은 얼마입니까?

200만원 미만	200-300만원 미만	300-400만원 미만	400-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①	②	③	④	⑤

문29. 귀하를 포함하여 현재 같이 살고 있는 가족수는 총 몇 명입니까?(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가족은 제외)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이상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문30. 귀 댁에 살고 있는 미취학, 초·중·고생 자녀는 각각 몇 명입니까?

미취학 및 초·중·고생 자녀	()명
중·고생 및 고·등·고·생 자녀	()명

문31. 귀하께서 지금까지 친환경농가공식품(유기, 무농약)을 구입하지 않는 이유를 2가지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① 가격이 비싸서	② 친환경농가공식품 인증에 대한 이해와 신뢰 부족
③ 적당한 구입처를 찾기 어려워서	④ 원하는 품목이나 포장단위가 없어서
⑤ 기존 일반가공식품으로도 충분히 만족하기 때문	⑥ 기타()

문32. 향후 귀하께서 친환경농가공식품(유기, 무농약) 구입시 가장 고려하게 될 것같은 순서대로 작성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3순위

① 안전성	② 주산지	③ 영양표시	④ 맛
⑤ 가격	⑥ 제조브랜드(가공회사)	⑦ 동일상품의 구입경험	⑧ 구입장소
⑨ 포장디자인	⑩ 유통기한	⑪ 기타()	

문33. 친환경농가공식품(유기, 무농약)의 가격 수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비싼편이다	비싼편이다	적당한 수준이다	저렴한 편이다	매우 저렴한 편이다	잘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⑤	⑥

문34. 친환경농가공식품(유기, 무농약)의 인증제도, 안전성에 대한 귀하의 만족수준을 표시(√)해 주십시오.

	매우 높다	높다	보통	낮다	매우 낮다
인증제도에 대한 신뢰도	①	②	③	④	⑤
안전성에 대한 신뢰도	①	②	③	④	⑤

문35. 귀하는 국산 유기가공식품과 수입 유기가공식품(수입산 완제품) 중 안전성 면에서 어느 것을 더 신뢰하십니까?

① 국산을 더 신뢰한다	② 수입산을 더 신뢰한다
③ 모두 신뢰한다	④ 모두 신뢰하지 않는다
⑤ 모르겠다	

문36. 귀하께서는 국산 유기가공식품과 수입 유기가공식품 가운데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 ① 국내에서 생산된 국산 유기가공식품을 구입하겠다.
- ② 안전하고 믿을 수만 있다면 수입 유기가공식품을 구입하겠다.
- ③ 품목에 따라 선택적으로 이용하겠다.
- ④ 잘 모르겠다

문37. 친환경농가공식품(유기, 무농약)의 구입확대를 위해서는 어떠한 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유기가공식품의 가격 인하
- ② 인증제도의 신설 및 관리강화로 신뢰 제고
- ③ 유기가공식품을 취급하는 매장 증가
- ④ 차별화된 제조방법
- ⑤ 유기가공식품의 품목 다양화
- ⑥ 기타()

문38. 친환경농가공식품(유기, 무농약)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① 원재료의 산지 및 생산자 공개
- ② 제조방법 및 과정을 명확하게 공개
- ③ 인증제도의 신설 및 관리강화
- ④ 제조업자 신상공개
- ⑤ 식품첨가물에 관한 내용 공개 철저
- ⑥ 기타()

문39. 귀하의 향후 친환경농가공식품(유기, 무농약) 소비의향은 어떠십니까?

많이 증가할 것이다	증가할 것이다	앞으로도 소비계획이 없다	기타()
①	②	③	④
☞ C10-1 문항으로			

문39-1. 다음 품목 가운데 향후 구입할 의사가 가장 큰 품목은 무엇입니까?

① 쌀가공식품 (떡류, 죽류 등)	② 밀가공식품 (밀가루, 면류, 빵류 등)
③ 유아식 / 분유	④ 신선반찬류 (김치, 두부, 장아찌 등)
⑤ 조미양념류 (조미료, 장류, 기름류 등)	⑥ 다류 (녹차, 동글레차 등)
⑦ 음료류 (사과주스, 포도즙, 양파주스 등)	⑧ 과자류 (쿠키, 스낵, 씨리얼 등)
⑨ 기타 (잼류, 유가공품 등)	

문40. 같은 중량을 기준으로 만약 일반가공식품의 가격을 1,000원이라고 보았을 때, 현재 귀하가 생각하는 국산원료의 국산 친환경농가공식품(유기, 무농약)의 가격은 현재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향후 귀하께서 구입할 의사가 있는 '적정가격'은 얼마입니까?(1,000원 이상의 금액을 기입하여 주시면 됩니다)

	일반가공식품	국산원료 친환경농가공식품	
		현재 가격 수준	향후 지불의사 금액
쌀가공식품(떡류, 죽류 등)	1,000원		
밀가공식품(밀가루, 면류, 빵류 등)	1,000원	()원	()원
유아식/분유	1,000원	()원	()원
신선반찬류(김치, 두부, 장아찌 등)	1,000원	()원	()원
조미양념류(조미료, 장류, 기름류 등)	1,000원	()원	()원
다류(녹차, 동글레차 등)	1,000원	()원	()원
음료류(사과주스, 포도즙, 양파주스 등)	1,000원	()원	()원
과자류(쿠키, 스낵, 씨리얼 등)	1,000원	()원	()원
기타(잼류, 유가공품 등)	1,000원	()원	()원

※ 문40의 각 셀의 보기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1,000원	1,100원	1,200원	1,300원	1,400원	1,500원	1,600원	1,700원	1,800원	1,900원	2,000원
⑫	⑬	⑭	⑮	⑯	⑰	⑱	⑲	⑳	㉑	
2,100원	2,200원	2,300원	2,400원	2,500원	2,600원	2,700원	2,800원	2,900원	3,000원 이상	

문41. 귀하께서는 현재 국산원료 친환경농가공식품의 가격 수준(문40-1에서 응답)에서 귀하의 소득이 현재보다 얼마나 더 상승하면 국산원료 친환경농가공식품을 구입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① 1~10% 증가할 경우	② 11~20% 증가할 경우
③ 21~30% 증가할 경우	④ 31~40% 증가할 경우
⑤ 41~50% 증가할 경우	⑥ 51% 이상 증가할 경우
⑦ 소득상승과는 무관하다	

문42. 친환경농가공식품과 관련하여 하고 싶은 말씀이나 건의사항이 있으시면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집된 자료는 소비자의 소중한 의견으로 활용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문헌

- 강충관 외 8인. 2005. 「친환경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방안 연구」. 농촌진흥청.
- 김창길·김태영·서성천. 2005.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선호와 구매행태 분석」. 연구보고 R500.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창길 외 3인. 2005. 「친환경농업의 경제적 분석과 발전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C2005-53.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창길·김태영·이상건. 2007. 「국내외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실태 및 시장전망」. 농정연구속보 제41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창길·이용선·이상건. 2008. 「친환경농산물의 소비 성향과 마케팅 전략」. 연구보고서 P 98.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창길 외 3인. 2010. 「2010년 국내외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실태 및 시장전망」. 연구보고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김충실·이상호. 2009.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와 유통업자의 구매의향 비교 분석.” 한국유기농업학회지 17(3): 291-306.
- 김태영·장우환. 2011. “친환경농산물 구매 및 소비행태 분석-대구광역시 가정주부를 중심으로.” 한국유기농업학회지 19(2): 145-156.
- 닐슨컴퍼니코리아. 2011. 「국내·외 유기식품 산업 현황 조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 박성훈. 2008. 「유기식품 시장동향 2008」. 한국식품연구원.
- 식품의약품안전청. 2011. 「수입식품등검사연보」.
- 안병렬. 2005.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구매행태 특성분석.” 한국유기농업학회지 13(3).
- 오호성 외 8인. 2000. 「저투입 환경농산물의 수요개발에 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 유덕기. 2008. “친환경유기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마케팅 전략.” 한국유기농업학회지 16(4): 391-408.
- 유덕기. 2011. “유기농마케팅조직의 성공사례 및 성공요인 연구.” 한국유기농업학회지 19(2): 157-184.
- 이종성. 2001. 「우리나라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실태와 소비자 의향분석」. 박사학위논문. 동아대학교.
- 전형진·권태진·남민지. 2010. 「중국의 친환경농식품 시장현황과 전망」.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대중국 종합연구 협동연구총서.

- 정만철. 2006. “친환경농산물 가공식품 생산·유통현황.” 『농업경영정보』 2006-4. 농촌진흥청.
- 정학균·장정경. 2011. 『유기가공식품의 소비실태분석 연구』. 연구보고서 P 98.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조윤미 외 4인. 2006. 『유기식품 및 유기가공식품에 대한 소비자인식도 조사』. 연구결과보고서. 식품의약품안전청.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2. 『농업전망 2012』. 연구보고서.
- 허승욱·김호. 2003. “수도권 소비자의 친환경농산물 소비실태 분석과 소비확대 전략.” 한국유기농업학회지 11(4): 15-37.
- 허승욱·김호. 2010. “친환경농산물 소비의 속성별 만족도 및 요인분석.” 한국유기농업학회지 18(1): 41-53.
- 황재현. 2009. “친환경·유기농산물 생산·유통·소비시장 현황 분석-가격경쟁력 제고 방안을 중심으로-.” 한국유기농업학회지 17(3): 329-345.
- Catherine Greene et al., “Emerging Issues in the U.S. Organic Industry”, *USDA Economic Information Bulletin Number 55*, June 2009.
- IFOAM. 2010. *The World of Organic Agriculture: Statistics and Emerging Trends*.
- IFOAM. 2011. *The World of Organic Agriculture: Statistics and Emerging Trends*.
- 日本 農林水産省. 2010. 『年度別有機農産物等の格付実績』
- 日本 農林水産省. 2011. 『年度別有機農産物等の格付実績』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친환경인증통계정보(<http://www.enviagro.go.kr>) 및 자료.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홈페이지(<http://www.at.or.kr>).

정책연구보고 P157

친환경농식품의 생산·소비실태와 시장전망

등 록 제6-0007호(1979. 5. 25)

인 쇄 2012. 2.

발 행 2012. 2.

발행인 이동필

발행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30-7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117-3

02-3299-4000 <http://www.krei.re.kr>

인 쇄 (주)문원사

02-739-3911~5 E-mail: munwonsa@chol.com

ISBN 978-89-6013-332-7 93520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
-